

전북의 대 중국 기계·자동차 부품 수출확대 방안



일시 : 2007. 6. 5(화) 15:00

장소 : 전북발전연구원 회의실

주최 : 전북발전연구원



전북의 대 중국 기계·자동차 부품 수출확대 방안

PROGRAM

구분	시간	소요시간 (분)	내용	비고
	15:00~15:05	5	인사말씀	
발표	15:05~16:20	75	나상균박사(부품산업의 현황 및 교역변화추이) 안종석교수(부품산업의 경쟁력분석) 이승인박사(부품산업의 수출품목 선정) 이헌재교수(부품산업의 교역전망) 송재훈교수(부품산업 수출증대방안)	분야별 연구진
토론 및 질의응답	16:20~17:00	40	조동용(전북지방분권운동본부 상임위원) 서기원(KOTRA 전북무역관 차장) 전종찬(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 지부장) 국중하(우신산업 대표이사)	자문위원

CONTENTS

1	발표	나상균 박사		부품산업의 현황 및 교역변화 추이
35	발표	안종석 교수		부품산업의 경쟁력 분석
75	발표	이승인 박사		부품산업의 수출품목 선정
113	발표	이헌재 교수		부품산업의 교역전망
139	발표	송재훈 교수		부품산업 수출증대 방안
	토론	조동용 상임위원		전북지방분권 운동본부
	토론	서기원 차장		KOTRA 전북무역관
	토론	전종찬 지부장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
	토론	국중하 대표이사		우신산업

주제 1

전북과 중국의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 및 교역 변화 추이

• 발표자 : 나 상 균 연구위원 (전북발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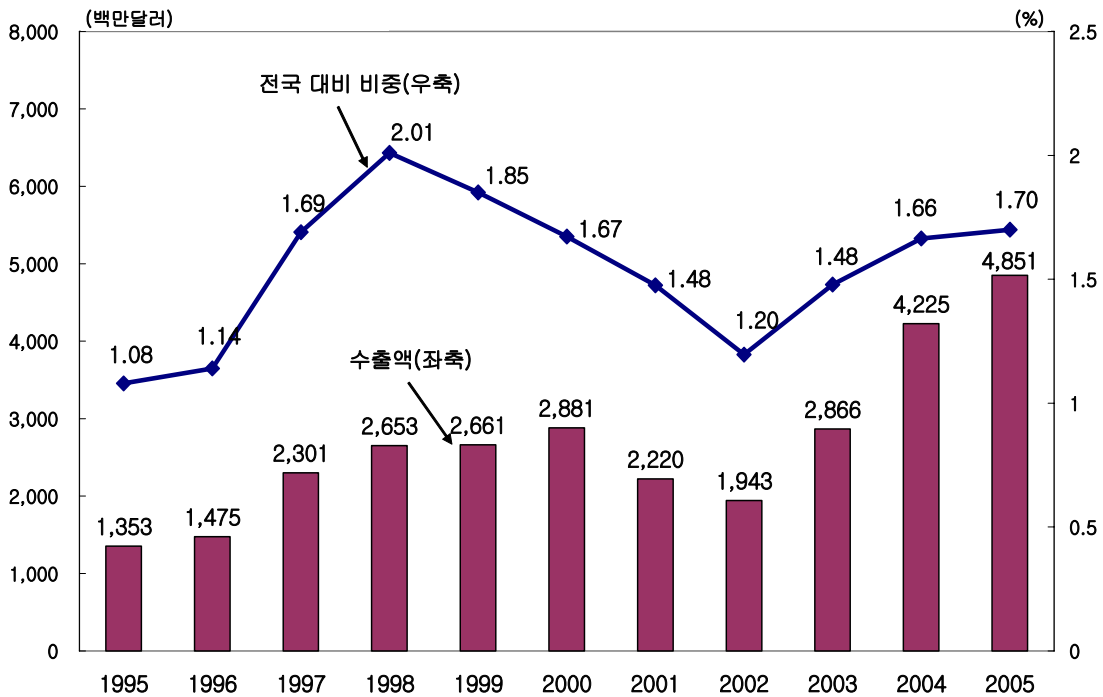
1. 전북의 교역동향
2. 전북의 대중국 교역동향
3. 중국의 기계·자동차 부품 산업현황
4. 전북의 기계·자동차 부품 산업현황
5. 전북의 대중국 수출의 교역변화 추이

전북과 중국의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 및 교역 변화 추이

1. 전북의 교역 동향

1) 수출 현황

- 최근 전북지역 수출은 전국의 수출 증가세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신장세 지속
 - 2003년과 2004년 중 50%에 가까운 급신장세를 보였으며 2005년에도 14.8%나 증가
 - 이에 따라 전국 수출액에서 전북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1.48%에서 2005년에는 1.70%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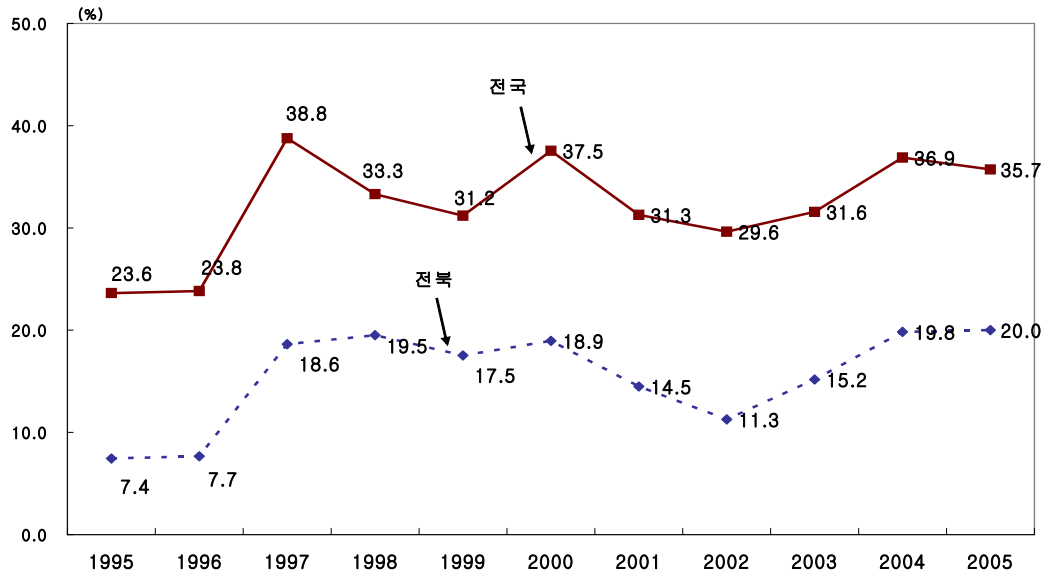


[그림 1-1] 전북지역의 수출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 또한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수출 비율도 2001년 14.5%에서 2005년에는 20.0%로 상승

- 그러나 전국의 경우 동 비율이 35.7%(2005년 기준)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북지역의 경우 수출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 GRDP 대비 수출 비중(%) 추이

주 : 1) 2005년 GRDP는 2004년 GRDP에 전국 GDP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산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한국은행 국민계정

- 이처럼 최근 전북지역의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나타낸 것은 도내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수출물량이 급증한 데 주로 기인
 - 2001년 57,940대에 불과하였던 자동차(조립부품수출(KD) 포함) 수출대수는 200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409,284대를 기록
 - 2002년 10월 GM이 대우자동차(2000. 11월 부도)를 인수함에 따라 GM의 판매망을 기반으로 승용차 수출이 대폭 확대되고 현대자동차의 대형 상용차도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
 - 수출금액 면에서 보더라도 2003년 이후 전북지역 전체 수출증가액의 대부분을 자동차 관련품목(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차지

전북과 중국의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 및 교역변화추이

<표 1-1> 전북지역의 자동차 수출대수 추이

(단위: 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GM대우	(완성차)	47,153	20,880	62,415	154,808	173,980
군산공장	(KD)1)	-	4,638	70,224	146,246	211,530
현대자동차	(완성차)	9,797	10,092	11,302	15,475	19,494
전주공장	(KD)1)	990	1,560	2,014	4,574	4,280
계		57,940	37,170	145,955	321,103	409,284

주 : 1) 부품상태로 물품을 수출한 뒤 현지에서 조립, 완성품을 만드는 형태로서 주로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개도국으로 수출(Knock Down)

- 전북지역 총수출 증가액 가운데 자동차 관련품목 수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71.9%, 2004년 71.4%, 2005년 63.5%에 달함
- 한편 전북지역의 2번째 주요 수출품목인 합성수지(폴리카보네이트, 폴리스티렌 등)는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분의 수출가격 반영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인해 수출액이 증가

<표 1-2> 합성수지 및 자동차관련 제품의 요인별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합성수지	수출증가율	19.4	32.8	31.0
	물량요인	5.2	6.6	7.8
	단가요인	14.2	26.2	23.2
자동차관련 품목	수출증가율	142.9	86.1	19.0
	물량요인	117.3	70.6	14.7
	단가요인	25.6	15.5	4.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MTI 3단위 분류)

2) 지역별 및 국별 수출 현황

(1) 지역별 수출

- 전북지역 수출품의 주요 수출지역은 아시아, 유럽, 북미, 중동 등임
-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비중이 41.4%(2005년 기준)로 가장 높고 이어 유럽(20.2%), 북미(15.2%), 중동(12.2%) 순임

<표 1-3> 전북지역의 수출대상지역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아시아	42.4	47.6	51.9	42.9	41.4
유럽	16.6	17.4	17.5	21.6	20.2
북미	18.8	11.8	15.0	17.0	15.2
중동	11.1	10.9	8.5	11.1	12.2
중남미	7.9	8.6	3.5	4.8	6.6
대양주	1.9	2.4	2.5	1.4	2.7
아프리카	1.3	1.3	1.1	1.2	1.7
총 수출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 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비중은 2001년 42.4%에서 2003년 51.9%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중동 및 중남미로 자동차 수출이 확대되면서 2005년에는 41.4%로 하락
 -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산유국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2003년 이후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비중도 상승(2003년 8.5% → 2005년 12.2%)
- 한편 북미 및 유럽지역은 2003~2004년에는 수출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2005년 들어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지로의 자동차 수출이 정체되면서 수출증가세가 둔화
 - 한편 전북지역 수출은 최근 수출대상국이 다변화되면서 수출대상국별 편중도가 하락 추세
- CR5와 HHI가 각각 2001년 50.0과 703.8에서 2005년 45.2와 599.8로 하락
 - 전북지역의 CR5 및 HHI은 전국(2005년 기준, CR5: 54.0, HHI: 858.8) 수준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

<표 1-4> 전북 지역의 수출대상국 집중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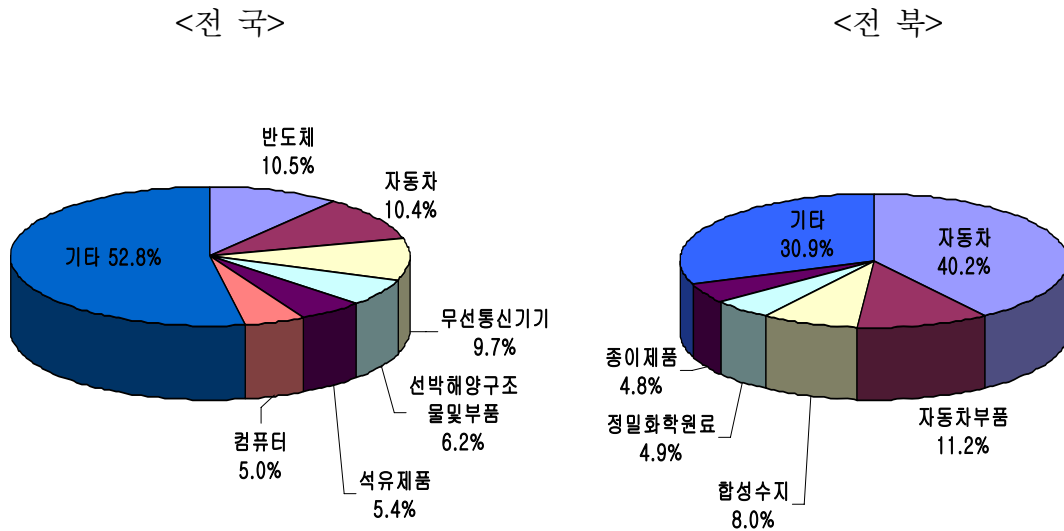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CR51)	전 북	50.0	45.3	50.6	46.7	45.2
	전 국	52.7	52.6	55.2	55.2	54.0
HHI2)	전 북	703.8	615.3	774.6	700.8	599.8
	전 국	809.8	821.6	843.9	860.6	858.8

주 : 1) 중국, 미국, 일본, 홍콩, BRICs(중국 제외) 등 5대 주요 수출대상국 비중의 합계

$$2) HHI = \sum_{i=1}^n W_i^2 \text{ (단, 여기서 } W_i \text{는 수출비중이 } i \text{번째로 높은 국가의 수출비중, } n \text{은 총 수출대상국가수)}$$

3) 품목별 수출 현황

- 전북지역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정밀화학원료 및 종이 제품 등임
 - 자동차 수출비중이 40.2%(2005년 기준)로 가장 높고 이어 자동차부품(11.2%), 합성수지(8.0%), 정밀화학원료(4.9%), 종이제품(4.8%) 순임
 - 품목별 수출구조를 전국과 비교해 보면, 전북지역은 특정품목 편중현상이 두드러짐
- 전북지역의 경우 자동차관련 품목(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50%를 상회하는 가운데 5대 수출품목의 비중(CR5)*도 전국(42.2%)에 비해 크게 높은 69.1%에 달함
- CR(Concentration Ratio)은 산업이나 제품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CR5는 상위 5개 산업이나 제품의 집중도를 의미



[그림 1-3]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비중(2005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 또한 수출품목의 편중도를 나타내는 HHI지수*는 1,912(2005년 기준)로 전국(2005년 기준, 474)에 비해 절대수준 자체가 크게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
- 허쉬만-허핀달 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는 본래 산업의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지수로서 값이 클수록 산업의 집중도가 심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수출품목의 집중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수출품목별로 수출비중의 제곱을 구한 뒤 이를 합산하여 도출

<표 1-5> 전북지역 수출품목의 집중도 추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CR51)	전북	52.9	54.6	60.1	67.4	69.1
	전국	39.0	42.4	43.2	44.2	42.2
HHI2)	전북	924.7	822.4	1,044.1	1,701.3	1,912.0
	전국	401.4	441.6	459.7	487.4	474.0

주 : 1) 5대 수출품목 비중의 합계

2) HHI = $\sum_{i=1}^n W_i^2$ (단, 여기서 W_i 는 수출비중이 i번째로 높은 품목의 수출비중, n은 총 수출품목수)

-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자동차관련 품목(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2001년 수출액이 5.7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말 GM의 대우자동차 인수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25억달러를 기록

- 자동차 품목은 GM대우의 라세티, 현대자동차의 2.5톤 이상의 대형차종이 주종을 이룸
 - 이에 따라 전북지역 전체 수출액 중 자동차관련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25.6%에서 2005년에는 51.4%로 상승

- 합성수지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 지속,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최근 들어 연평균 30%에 육박하는 높은 수출증가율을 유지
 - 삼양화학 전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엔지니어링(고강도)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가 주요 품목임
 - 정밀화학원료는 수출액이 2001년 1.7억달러에서 2005년 2.4억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전북지역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
 - 한국바스프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는 라이신(Lysine, 동물사료 첨가제)이 주요 품목임
 - 종이제품은 중국산 저가제품과의 경쟁으로 최근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 추세
 - 노스캐스코그와 페이퍼코리아에서 생산하는 신문용지 및 인쇄용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

전북과 중국의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 및 교역변화추이

<표 1-6> 전북의 품목별 수출 추이

(백만달러,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자 동 차	541	24.4	412	21.2	662	23.1	1,562	37.0	1,952	40.2
	(-41.8)		(-23.9)		(60.8)		(136.1)		(24.9)	
자동차부품	28	1.2	53	2.7	466	16.3	536	12.7	544	11.2
	(1.5)		(91.0)		(785.7)		(15.0)		(1.5)	
합성수지	155	7.0	187	9.6	223	7.8	296	7.0	388	8.0
	(-2.4)		(20.7)		(19.4)		(32.8)		(31.0)	
정밀화학	168	7.6	154	7.9	182	6.3	200	4.7	236	4.9
원료	(0.2)		(-8.6)		(18.1)		(9.8)		(18.2)	
종이제품	161	7.2	105	5.4	165	5.8	229	5.4	232	4.8
	(-22.7)		(-34.9)		(58.2)		(38.5)		(1.3)	
기 타	1,167	52.6	1,032	53.2	1,168	40.7	1,402	33.2	1,499	30.9
	(-16.1)		(-11.5)		(13.0)		(20.0)		(7.0)	
총 계	2,220	100.0	1,943	100.0	2,866	100.0	4,225	100.0	4,851	100.0
	(-23.0)		(-12.5)		(47.5)		(47.4)		(14.8)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4) 기업규모별 수출 현황

- 전북지역의 수출은 2004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주도형에서 대기업 주도형으로 전환
 - 2003년 이후 GM대우 군산공장 및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출 확대 등에 주로 기인

<표 1-7> 전북지역의 기업규모별 수출 추이

(백만달러,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대기업	1,073	55.2	1,018	35.5	2,777	65.7	3,187	65.7
	(43.8)		(-5.1)		(172.8)		(14.8)	
중소기업	870	44.8	1,848	64.5	1,448	34.3	1,663	34.3
	(-40.8)		(112.4)		(-21.7)		(14.9)	
총 수출	1,943	100.0	2,866	100.0	4,225	100.0	4,850	100.0
	(-12.5)		(47.5)		(47.4)		(14.8)	

주:()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

- 한편 전북지역 벤처기업 수출은 2004년 이후 전북지역 전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미미
- 전북지역 전체 수출액 대비 벤처기업 수출 비중은 2001년 1.4%에서 2005년에는 2.5%로 상승하였으나 2005년 전국의 벤처기업 수출비중(3.6%)보다는 낮은 수준

<표 1-8> 전북지역의 벤처기업 수출 추이

(백만달러,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금액	비중1)
전 북	31.3	1.4	42.9	2.2	34.5	1.2	73.7	1.7	121.2	2.5
	(22.7)		(37.4)		(-19.5)		(113.3)		(64.5)	
전 국	5,553	3.7	5,961	3.7	7,079	3.7	9,018	3.6	10,325	3.6
	(14.5)		(7.3)		(18.7)		(27.4)		(14.5)	

주 : 1)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 2)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5) 국가별 수출입 현황

- 전북지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및 홍콩 등임
 - 대중국 수출비중이 16.9%(2005년 기준)로 가장 높고 이어 미국(12.9%), 일본(6.6%), 홍콩(3.4%) 순임
- 중국의 경우 2001년까지만 하여도 미국에 이어 제2의 수출국이었으나 대중국 자동차부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2002년부터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
- 전국의 수출대상국 순위는 전북지역과 마찬가지로 2005년 현재 중국(21.8%), 미국(14.5%), 일본(8.5%), 홍콩(5.5%) 순이며, 2003년에 최대 수출대상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전환됨

<표 1-9> 전북지역의 중국 수출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5년 (전국)
중 국	12.7	16.2	21.4	19.0	16.9	21.8
미 국	17.7	11.3	11.8	14.3	12.9	14.5
일 본	10.9	9.7	7.3	5.5	6.6	8.5
홍 콩	5.2	5.7	5.5	3.9	3.4	5.5
중국제외 BRICs	3.5	2.4	4.6	4.0	5.4	3.8
소 계	50.0	45.3	50.6	46.7	45.2	54.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2. 전북의 대중국 교역동향

1) 교역동향

- 최근 6년간 전라북도의 대 중국 교역 동향을 보면, 전국대비 1.6%를 차지하고 있고, 2005년도 14.5%로 증가되다가 2006년도 상반기 기준 -14.6%로 감소 추세에 있음
- 2005년도 전국은 26.7%를 증가하였지만 전북은 14.5%, 2006년도 상반기에는 전국은 14.6% 증가였지만 전북은 -14.6%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도에는 2005년도 보다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며 대중국 무역수지가 적자의 폭이 커짐

<표 1-10> 전북의 대중국 교역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6년 (증가율)	6년간누계 (비중)
전 국	31,254	31,493	41,154	57,019	79,348	100,563 (26.7)	54,930 (14.6)	340,831 (100)
전 북	518 (1.66)*	520 (1.65)*	644 (1.56)*	1,065 (1.87)*	1,217 (1.53)*	1,394 (14.5)	603 (-14.6)	5,378 (1.6)

주 : 2006년은 상반기 데이터이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 전국대비 전북의 대중교역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 수출동향

- 최근 6년간의 대중국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6년간 누적비중은 1.5%로 나타남
- 2005년도의 증가율은 1.9%로 나타났고, 2006년도에는 대폭 감소하여 -12.3%로 나타났음
- 전국대비 전북의 비중은 1.33%~1.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기준으로 금년상반기 10대 대중국 수출 품목 중에서 컴퓨터, 광학기기, 철강판 등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등 주요 대중국 수출 품목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11> 전북의 대중 수출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6년 (증가율)	6년간누계 (비중)
전 국	18,455	18,190	23,754	35,110	49,763	61,915 (24.4)	32,546 (11.8)	207,187 (100)
전 북	278 (1.51)*	281 (1.54)*	315 (1.33)*	615 (1.75)*	803 (1.61)*	818 (1.9)	358 (-12.3)	3,110 (1.5)

주 : 2006년은 상반기 데이터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 전국대비 전북의 수출변화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1-12> 전북지역 시·군별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기업

(단위: %)

구 분	품 목	비중	수출증가율 (2004년대비)	주요기업
군산시	자동차	58.0	23.6	(주)GM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 군산공장,
	자동차부품	17.0	△1.7	(주)한국바스프 군산공장,
	정밀화학원료	7.3	13.9	(주)타타대우상용차 등
전주시	합성수지	32.3	38.6	(주)삼양화성 전주공장, (주)휴비스
	인조섬유	24.1	△9.9	전주공장, (주)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 등
	종이제품	21.4	△8.0	
완주군	자동차	66.9	34.1	(주)현대자동차 완주공장, (주) 한화,
	합성수지	11.0	41.3	(주)KCC 등
	기타석유화학제품	4.4	4.0	
익산시	반도체	30.9	△12.7	(주)한국고덴시, (주)광전자,
	동계품	15.0	27.5	(주)두산전자사업 익산공장,
	귀금속장식품	8.9	△16.9	(주)일진소재사업 등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 2005년

전북과 중국의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 및 교역변화추이

- 2005년도 수출액은 자동차부품,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은 식물성물질, 정밀화학원료로 나타남
- 2004년도와 비교하여 수출을 가장 많이 한 품목은 자동차부품과 반도체로 같지만, 수입은 반도체가 5위를 기록하고 있고, 식물성물질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

<표 1-13> 업종별 대 중국 수출입 현황(상위10위, 2005년도 기준)

(단위: 천불)

순 위	품목명	수출액	품목명	수입액
1	자동차부품	380,619	식물성물질	123,004
2	반도체	70,123	정밀화학원료	55,301
3	합성수지	63,374	곡실류	53,162
4	정밀화학원료	58,019	반도체	42,923
5	인조섬유	36,454	유리제품	38,306
6	기타석유화학제품	23,684	합금철선철및고철	26,758
7	동제품	22,488	농약및의약품	26,128
8	인조섬유장섬유사	19,248	전자응용기기	13,842
9	선재봉강및철근	16,832	기타비금속광물	13,450
10	유리제품	14,573	어류	13,33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3) 대 중국 품목별 수출현황

- 전라북도 대중국 수출품목은 자동차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46%, 반도체 8%, 폴리에스테르 6%,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6%, 합성단섬유 4%, 질소관능화합물 3%, 합성장섬유사 2%, 합금강 및 봉형강 1%, 금, 귀금속 1% 기타 1%로 나타남
-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수출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함

<표 1-14> 대 중국 품목별 수출액

순 위	품 목 명	금 액 (백만불)	수출비중 (%)	주요 기업
1	자동차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378	46	GM 대우
2	반도체	64	8	고덴시, 광전자
3	폴리에테르	50	6.	휴비스, 삼양화성
4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49	6	휴비스, 삼양화성
5	합성단섬유	36	4	휴비스, 삼양화성
7	질소관능화합물	20	3	(주)삼양사
8	합성장섬유사	19	2.	휴비스, 삼양화성
9	합금강 및 봉형강	13	1	세아베스틸
10	금, 귀금속	11	1.	서광보석, 동원보석
11	기 타	178	23	

4) 수입동향

- 최근 6년간 대중국 수입비중을 보면, 1.7%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5년도의 수입비중은 전국 30.6%, 전북 39.1%로 나타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역수입 및 수출호황에 따른 기초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요가 증가하여 대 중국 수입은 전년에 대비하여 수입이 증가

<표 1-15> 전북의 대중국 수입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증가율)	2006년 (증가율)	6년간누계 (비중)
전 국	12,799	13,303	17,400	21,909	29,585	38,648 (30.6)	22,384 (18.9)	133,644 (100)
전 북	240 (1.88)*	239 (1.80)*	349 (2.01)*	450 (2.05)*	414 (1.40)*	576 (39.1)	245 (-17.8)	2,268 (1.7)

주 : 2006년은 상반기 데이터이며 증가율은 2005년의 전년대비 증가율

*: 전국대비 전북의 수입변화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5) 수출입의 중국 의존도

<표 1-16> 전북 대중국 수출입 및 중국 의존도

(단위 : 백만달러)

연도	대중국 수출입			중국 비중		
	수출	수입	수출입	수출	수입	수출입
2000	278	240	519	9.7	16.0	11.8
2001	281	239	522	12.7	15.9	14.1
2002	315	349	676	16.2	21.8	19.1
2003	615	450	1,160	21.4	22.0	23.4
2004	803	414	1,217	19.0	16.4	18.0
2005	818	576	1,394	16.9	23.5	19.1
2006.1~6	358	245	603	13.3	20.0	15.4

주 : 중국 비중은 전북지역 수출입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6) 대 중국 수출업체 현황

- 전라북도내 무역업체수는 전주시 232개업체로 23.55%, 군산시 181개 업체 18.38%, 익산시 267개업체 27.11%로 나타나 전라북도의 해외 무역업체는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전라북도는 전략산업인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의 해외 수출업체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중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17> 수출업체 현황

구 분	무역업체수	비율(%)
전주시	232	23.55
군산시	181	18.38
익산시	267	27.11
김제시	73	7.41
정읍시	58	5.89
남원시	32	3.25
완주군	63	6.40
고창군	13	1.32
무주군	6	0.61
부안군	21	2.13
순창군	11	1.12
임실군	9	0.91
장수군	8	0.81
진안군	11	1.12
합 계	985	100

- 현재 전라북도의 대중국 수출업체 비중현황은 전체 기업체수 269개 업체중 10만 불 이하 81개업체, 10~100만불 119개 업체, 100~1,000만불 58개업체, 1,000~10,000만불 10개 업체, 10,000이상은 1개 업체로 대부분 대규모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
- 따라서 대규모 수출업체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선도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함

<표 1-18> 규모별 대 중국 수출업체 현황

수출액 기업체수	10 만불 이 하	10 ~100	100 ~ 1,000	1,000 ~ 10,000	10,000 이상
269	81	119	58	10	1

3. 중국의 기계자동차 부품산업현황

1) 한·중 자동차 부품 수출·입 현황

- 자동차부품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은 <표 1-19>에서 보듯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수출 1,736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 5,925백만 달러의 29.3%를 차지하여 제1수출국으로 부상하였음에 비하여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83백만 달러로 저조한 수준

<표 1-19> 한중 자동차부품 수출입 현황

(단위:천달러,%)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대 중국 수출액	168,703	116.2	943,805	459.4	1,736,074	83.9
대 중국 수입액	26,423	70.6	49,587	87.7	82,917	67.2

자료:산업자원부, MTI 코드 수출입통계

- 1999년 ~ 2004년 한국의 대중 수출액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차체용 기타 부분품, 기타 부분품 등과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이상인 품목은 기어박스, 기타 제동장치, 운전박스, 자동구동 차축, 비구동 차축, 업소버 등임

2) 중국 자동차부품 산업의 국가정책

- 중국정부는 중국자동차업체의 대형화 및 국산화를 유도하기 위해 1994년 「자동차 산업정책(3大3小2微)」에 이어 2005년 8월 「중국 11·5계획의 중국 자동차산업 분야 정책 방향」을 추진

<표 1-20> “3대3小兩微” 생산체제 형성과 생산 개시 연도

구분	기업명	소속	정부허가연도	실제생산연도	외국도입선	협작연도	도입방식변화
3大	第一汽車	기계공업부	1987	1988	독일(폭스바겐)	1990	CKD→협작
	東風汽車	기계공업부	1987	1992	프랑스(시트로엥)	1992	CKD→협작
	上海汽車	상해시	1987	1983	독일(폭스바겐)	1985	CKD→협작
3小	北京汽車	북경시	1988	1985	미국(클라이슬러)	1983	CKD→협작
	天津汽車	천진시	1988	1986	일본(다이하쓰)	-	기술도입
	廣州汽車	광둥성	1988	1987	프랑스(푸조)	1985	CKD→협작
2微	長安汽車	병기부	1992	1991	일본(스즈끼)	1993	CKD→협작
	貴州航空	항공공업공사	1992	1991	일본(후지중공업)		기술도입

자료: CAAM, 中國汽車工業年鑑

(1) 11·5계획과 자동차산업 정책방향(2005.8)

□ 독자모델 개발 추진과 세계 3위의 생산대국 위상 확보

- 중국은 11·5 계획기간(2006~2010년) 자동차산업을 명실상부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
 -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자동차산업이 GDP의 2.5%를 달성하도록 유도
 - 2010년 자동차 보유대수 5,500만대 및 1,000명당 보유대수 40대 달성, 생산목표 800~900만대로 세계 생산순위 3위 유지
 -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통해 산업의 집적도를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동차그룹을 육성
 -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의 독자개발능력 향상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노력
- 승용차 독자모델 개발을 통해 국산화와 수출산업화를 동시에 추구
 - 승용차시장(MPV, SUV 포함)에서 국산 독자모델의 시장 점유율을 2005년 43%에서 2010년에는 60%로 늘려 시장 주도권을 중국기업이 행사하도록 유도
 - 정부조달시장에서도 국산차를 우선적으로 구매(2006년 자동차 정부 조달액 700억 위안(88억달러))
 - 소형 승용차와 부품을 중심으로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하며 2010년 수출액 목표치를 500억달러로 설정(자동차는 생산량의 10%, 오토바이는 50%를 수출)
 - 2006년 8월, 長春, 重慶, 武漢 등 8개 지역을 수출기지로 지정한데 이어一汽VW, 北汽福田, 奇瑞汽車, 哈飛汽車 등 44개의 완성차업체와 萬向, 東風康明斯 등 116

개 부품업체를 수출전문업체로 지정

- 에너지 절약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에 주력
 - 중국은 2010년 출시 신차의 연비를 2003년 대비 15% 향상시키는 등 환경친화적인 차량 개발에 노력
 -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차, LPG, CNG 등 차세대 연료와 차량 개발에 주력
 - 환경 및 안전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배기가스(2007년 유로3, 2010년 유로4 수준 도입), 연비규제, 안전규제 관련 제도적 환경 조성과 법률 정비
- 외자계 기업에 대한 경영감독 강화를 통해 자국기업의 자동차산업 주도권 장악에 유리한 환경 조성
 - 기업소득세 단일화, M&A 규제, 조세(이전가격 조사와 개인소득세)와 노동,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

□ 부품산업의 기술능력 확충과 국제화 유도

- 2010년 세계 상위 500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부품기업을 육성
 - 중국 부품업체들의 수출확대를 촉진하는 가운데 특히 전자부품 분야의 개발력과 세계 주요메이저 업체들과 하청관계를 형성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강화
 - M&A를 통해 부품기업의 대형화, 계열화를 유도(예; 一汽富奥公司, 萬向集團 등)
 - 국내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장기적인 전략적 제휴관계 구축을 지원
- 완성차업체와 부품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유도
 - 상해기차, 쌍용자동차(2004.10, 지분 51.3%)와 대우GM 지분 인수
 - 화상그룹, 미국 로렌스 오토모티브 인테리어 자회사를 669만달러에 인수
- 사시설계 능력 개발, 엔진 및 핵심 모듈기술 국산화를 추진
 - 자동차공업협회 산하에 19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엔진, 변속기, 전자의 모듈화를 적극 추진
 - 2010년 부품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3%로 확충하고 모듈 부품 및 시스템 부품업체의 육성을 강화

<표 1-21> 중국 11·5 계획의 자동차산업 분야 정책 목표

분 야		정 책 목 표
생산	산업	- 2010년까지 자동차생산 세계 상위 3위권 진입 - 자동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 GDP의 2.5% 달성
	기업	- 자동차산업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추진, 산업의 집적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동차그룹을 육성 - 기업의 독자 개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갖는 제품의 비율을 확대
	시장	- 2010년 중국 자동차시장은 800~900만 대 규모로 내수를 충족시키는 한편 수출도 확대 - 2010년 자동차 보유대수 5,500만대 및 1,000명당 보유대수 40대 달성
	수출	- 2010년 수출액 500억 달러 이상 달성
연구개발	- 자동차 제품의 독자개발과 기술혁신 능력을 구축	
부품산업	- 2010년 세계 상위 500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부품기업을 육성 - 자동차부품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능력의 향상과 기존 경영자원의 활용을 확대 - 모듈 부품 및 시스템 부품업체의 육성을 강화 - 중국 부품업체들의 수출확대를 촉진하는 가운데 특히 전자부품 분야의 개발력과 해외 공급 개척을 강화 -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장기적인 전략적 제휴관계 구축을 지원	
환경보호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및 신에너지 제품과 경제성을 갖춘 자동차의 비율을 제고 - 2010년에 출시되는 신차의 연비를 2003년 대비 15% 향상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 환경오염이 적은 배기량이 적은 차, 에너지절약형 자동차, 대체연료차량의 개발을 강화 - 에너지와 소재의 절감, 환경보호, 안전 및 재활용 기술을 첨단수준으로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	
해외경영	-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해외투자와 해외경영을 지원	

자료: 중국국가발전계획위원회

(2) 향후발전전망

□ 2010년 국민소득 3,000달러, 자동차 판매 1,000만대 시장

-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이에 따른 소비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앞으로 상당 기간 승용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수요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

- 특히 2008년 北京올림픽과 2010년 上海박람회가 동부 연안지역의 자가용시대 진입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
 - 중국정부의 승용차와 소형주택 구입 장려 등 내수 중심의 성장정책도 자가용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유가의 지속적 인상과 자동차 운영비, 대도시 교통난과 주차난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휘발유 NO. 93의 경우 2002년 리터당 1.95위안에서 2005년에는 4.26위안으로 가격이 2.2배나 인상)
- 2010년 중국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연평균 14~15% 씩 증가하여 1,000만대~1,1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량도 100만대 정도로 늘어나 본격적으로 수출산업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2020년에는 일인당 GDP 5,000달러, 도시화율 60%로 자동차 판매대수가 2,000만대를 돌파하여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 한편,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생산량 증설 투자계획을 종합해 보면 2010년 생산능력은 1,747만대에 달할 전망
 - 2010년 一汽와 上海汽車는 현재의 100만대 생산능력을 200만대로 확충하고 東風은 180만대, 北京汽車와 長安汽車는 150만대, 廣州汽車와 奇瑞汽車 역시 100만대로 이들 업체만해도 1,080만대를 돌파

<표 1-22> 2010년 중국 자동차의 생산, 판매 전망

(단위: 만대, %)

구분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생산	생산량	145	207	571	1,148
	그중 승용차	32	61	277	688
	증가율	23.3	7.4	22.5	15.0
	그중 승용차	50.1	13.8	35.3	20.0
판매	판매량	148	208	576	1,017
	그중 승용차	35	61	279	675
	증가율	33.7	7.0	22.5	14.5
	그중 승용차	43.3	11.8	35.5	15.0

주) 생산량과 판매량은 기간의 마지막 연도, 증가율은 기간내 연평균 증가율

자료: 산업연구원

- 중국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산업 2010년 생산액은 1조 2,000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며 2006~20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5.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그중 완성차 제조업체 공급 부품 생산액은 6,300억위안, 애프터 서비스용 부품 1,700억위안, 수출용 4,000억위안으로 부품산업의 수출화가 본격 추진될 전망

3) 완성차업계의 중국진출 현황

(1) 현대자동차

- 1994년 9월 '무한기차공업총공사'와 같이 총투자금액 6백만달러 규모의 미니버스 KD조립공장 계약을 체결, 1996년 5월부터 생산 개시
- 2002년 2월 '북경기차공업공고유한책임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를 설립하고 신규사업권 취득
 - 양측의 지분비율은 50 대 50으로 현대차는 250백만달러를 투자하여 2002년 10월부터 소나타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2003년 말부터는 '아반테XD'(현지명: 엘란트라)를 추가 생산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SUV인 '투싼'을 추가투입하고 생산규모도 20만대로 확대추진
- 현대는 2008년까지 11억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 생산량을 2005년 20만대에서 60만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중
 - 이를 위하여 북경현대기차에 제2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광저우 자동차집단과 현대상용차간 2007년 10만대의 상용차 생산을 목표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음

(2) 기아자동차

- 기아차는 1996년 9월 '강소열달기차유한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강소열달기아기차유한공사'를 설립하여 1997년 8월부터 프라이드모델(경형객차)을 조립 생산
- 2001년 11월 长风기차집단의 '강소열달기아기차유한공사'에 대한 자본제휴에 합의, 새로운 합작회사인 '동풍열달기차유한공사' 설립
 - 지분비율을 현대·기아 50%, 열달 25%, 동풍 25%로 하고, 지방정부 중점관리기업에서 중앙정부 관리기업으로 변경하여 기아차가 동풍과 자본제휴를 통해 동풍 자동차의 자회사함으로써 중국현지에 진출
 - 2002년 10월부터 엑센트 부분변형 모델을 생산하고 2004년부터는 카니발과 옵티마 추가생산을 실시중

- 생산규모를 현 5만대에서 기존 프라이드 외 전차종을 생산하여 2004년 15만대로 확대한 후 장기적으로 30만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

(3) GM대우 자동차

- GM대우자동차는 GM 본사를 매개로 ShanghiGM과의 협력을 추진중
 - ShanghiGM은 GM대우자동차의 라세티 모델을 액셀로라는 이름으로 생산중이며, 이외에도 대우차에 근간을 둔 모델을 생산(스파크와 에피카)하고 있음
 - 또한 대우에서 생산하여 시보레 브랜드로 판매하는 칼로스와 아베오를 중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150여개의 시보레 딜러망을 구축할 예정
- GM대우자동차는 GM을 통하여 중국자동차 업체인 Chery 자동차의 대우 자동차 디자인 모방과 관련된 분쟁 중에 있음.
 - 모방시비가 걸린 Chery 자동차 모델은 올해 시판된 모델인데 Chery의 Oriental Sun 모델은 대우의 마그너스 모델을, QQ모델은 마티즈를 모방한 것으로보여짐

(4) 쌍용자동차

- 쌍용자동차는 2005년 1월 27일 중국 2대 자동차 메이커인 '상하이 기차'(SAIC)에 지분 48.9%를 공식 매각하였음
 - '상하이 기차'(SAIC)는 쌍용자동차 생산차종인 렉스턴의 현지생산공장을 상해 부근에 건설할 것을 검토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쌍용을 통하여 유럽시장을 비롯한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됨

4. 전북의 기계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1) 전북의 부품·소재 산업 현황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1년 단위, 1인 이상 전 사업체 조사)의 기준에 따르면 부품·소재 관련 사업체의 수는 1,161개, 종사자수는 26,082명이고, 광공업통계(1년 단위, 5인 이상 광업, 제조업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631개 사업체, 25,19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표 1-23> 전라북도 부품·소재 산업 관련 통계(2004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료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연간출하액	부가가치액
광업·제조업통계(A)	2,416	73,114	21,097,109	7,324,003
부품·소재 산업(B)	631	25,196	5,950,045	2,201,996
비율(B/A)	26.1%	34.5%	28.2%	30.0%

주: 2004년 데이터의 경우 업종별 2개 이하의 사업체가 존재하는 경우 62개 업종 83개 사업체가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의 통계수치(종사자수, 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지 않아 제외되었음.

-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5인 이상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전북도내에는 5인 이상 종사하는 사업체가 총 631개, 종사자수는 약 25,196명이며, 업체당 40여명이 근무하고 있음
 - 부품·소재 산업 관련 업체의 2004년 총 출하액이 5,950,045백만원이므로, 업체당 9,426백만원 가량의 매출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업체별 1~4인이 근무하는 사업체의 경우 530개의 사업체에 평균 1,325명(최소 530~최대 2,120명)이 종사하고 있어, 업체당 2명 정도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부품·소재 산업은 전북도내 제조업 중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산업분야임
 - 그러나 사업체수(26%)와 종사자수(34%)에 비해 출하액(28%)이나 부가가치액(30%)이 다소 낮은편으로 단순제조에 가까운 구조임. 따라서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가 필요함
- 전라북도의 부품·소재 산업은 2003년과 대비하여 2004년의 경우, 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액 등 모든 분야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1-24> 전라북도 업종별 부품·소재 관련 업종 현황

2004년 추정치		업체수	종사자수	연간출하액	부가가치액
17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47	1,884	186,159	81,249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9	4,466	2,507,439	914,892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7	1,565	251,838	91,656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5	1,939	512,863	257,428
27	제 1차 금속산업	21	446	259,124	59,255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57	790	78,803	34,935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5	2,946	386,010	168,939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5	115	33,115	4,897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49	1,093	181,137	59,345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	3,466	494,196	161,395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7	336	15,370	10,267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3	5,821	985,559	344,218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20	743	281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6	308	57,690	13,238
합계		631	25,196	5,950,045	2,201,996

<표 1-25> 전라북도의 부품·소재 산업 현황

연도	부품·소재 업체수(개)	종사자수 (명)	연간출하액 (백만원)	부가가치액 (백만원)
2002	600	25,931	5,611,529	2,083,690
2003	608	24,359	5,667,453	2,114,220
2004	631	24,766	4,878,566	1,709,374
2004*	631	25,196	5,950,045	2,201,996

전북과 중국의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 및 교역변화추이

- 그러나 전북의 부품·소재 산업의 전국대비 비중은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약 1.1%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종사자수의 전국대비 비중에 비해 부가가치의 동 비중이 낮아 전북의 부품·소재 산업이 저부가가치형의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줌
- 또한 부품·소재 업종 중 2개미만의 사업체가 있는 업종이 타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다양하지 못함

<표 1-26> 부품·소재 산업 전국대비 전북 현황

지역	부품·소재 업체수	부품·소재 업종중 2개미만 업종수	부품·소재 업종중 2개미만 업종 업체수	종사자수	연간출하액	부가가치액	데이터 신뢰도 (매출액 기준)	비고
합계	53,753	-	-	1,465,170	406,659,652	160,861,808		
서울	4,744	25	34	68,278	10,356,498	4,123,001	98.01%	
부산	4,731	31	43	87,301	14,771,955	5,823,139	98.19%	
대구	3,921	31	42	71,344	11,911,268	4,482,589	95.42%	
인천	6,182	21	27	119,198	20,696,754	8,321,584	83.27%	
광주	1,097	52	69	34,565	7,523,471	2,665,716	69.47%	
대전	555	58	82	12,525	2,757,275	1,502,096	64.16%	
울산	974	52	69	51,700	27,871,294	8,588,547	70.75%	
경기	18,396	8	10	476,352	113,899,355	50,601,558	99.10%	
강원	321	72	92	7,325	1,636,405	723,470	71.92%	
충북	1,203	46	60	56,303	17,055,996	7,105,157	94.06%	
충남	1,622	41	56	89,220	35,013,815	13,693,986	83.43%	
전북	631	62	83	19,836	4,878,566	1,709,374	55.05%	75% 추정 가능
(비율)	1.17%	-	-	1.35%	1.20%	1.06%		
전남	517	49	64	18,365	19,452,941	4,835,785	49.55%	
경북	3,324	35	49	157,322	69,409,474	28,991,067	95.78%	
경남	5,498	22	29	195,395	49,411,515	17,687,328	96.48%	
제주	37	15	20	141	13,070	7,411	65.14%	

2) 전북의 부품·소재 산업체 이노비즈(INNOBIZ) 현황

- 이노비즈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본 사업을 통해 육성하고자하는 중소기업상과 그 맥을 같이 함
- 중소기업청의 주최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주관하여 미래의 잠재 성장력을 보유한 예비 이노비즈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이노비즈 인증 교육 및 코칭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발굴, 육성하게 됨

- 1단계(온라인 자가진단), 2단계(현장실사), 3단계(이노비즈 기업 선정 및 확인서 발급)의 단계를 거쳐 인증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선정 후 각종 정책자금, 신용보증 지원, 조달청 물품구매, 특허출원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됨
- 2006년 현재, 전북지역의 이노비즈 기업은 96개 업체로서 전국(5,224개 업체) 대비 1.8%를 점유하고 있음. 이중 부품·소재 관련은 약 5개 분야의 61개 업체로서 지역의 전 이노비즈 기업 대비 63.5%를 점유

<표 1-27> 전북의 업종별 INNOBIZ 기업 현황

구분	건설	기계 금속	바이오	서비스	섬유	식품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화학	환경	S/W	기타	합계
업체수	3	26	1	1	2	4	21	4	8	4	7	15	96

3) 부품 산업의 집적화 현황

- 전북지역의 부품·소재 산업은 군산~익산~전주·완주~김제·정읍을 광역적으로 연계하는 소위 T자형 벨트 내에 관련 대기업 및 중소기업 600여개가 집적화되어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집적지로 평가되고 있음
- 부품산업은 전주와 군산에 각각 입지한 자동차·중장비·농기계조립공장을 중심으로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음
 - 상용트럭, 버스 생산의 전국대비 94%를 차지하는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공장이 입지
 - 승용 및 상용차용 디젤엔진이 GM대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산업기계용 디젤엔진의 경우, 현재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에서 향후 2009년 생산을 목표로 시설을 구축 중임
 - 이와 함께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국내점유율 및 중국시장 점유율 1위인 건설중장비와 산업차량을 대규모로 생산할 예정이며, 유관업체들이 동반 이전할 계획임
 - 최근 LS전선과 동양물산의 이전, 가동으로 농기계 및 부품 분야의 신규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음

4) 소재 산업의 집적화 현황

- 소재산업은 부품 산업과 함께 전주, 익산,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음
- 세아베스틸에서는 고기능 수지강판, 칼라특수강판 등을 연간 12만톤 생산하고 있음
- 지역내 탄소복합소재 및 Al, Ti과 같은 비철합금 소재를 적용한 경량화, 고강도 소재기반 부품이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집중 개발되고 있음
- LS전선과 일진소재를 중심으로 PCB/PDP용 특수동박, 전도성 필름 등 전자소재를 생산
- 동양제철화학, 대상, 휴비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웨이퍼/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생분해성 수지, 정밀화학 응용소재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능성 ECO 소재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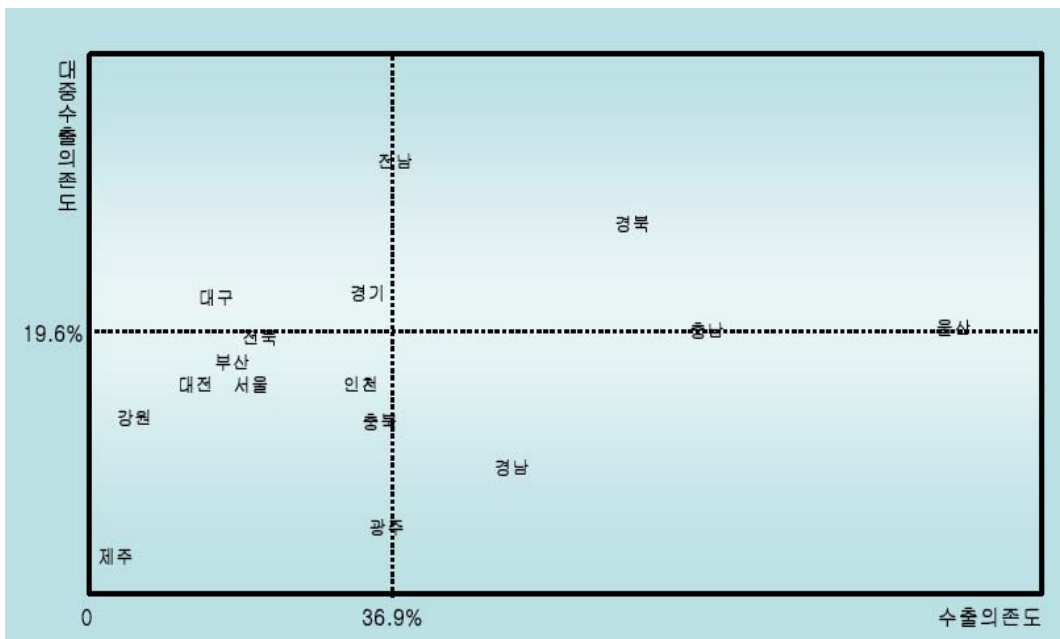
5. 전북의 대 중국 수출의 교역 변화 추이

1) 대중국 교역은 지난 13년간 15.8배 증가

- 1978년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홍콩을 통한 간접무역방식으로 시작된 한국의 대중국 교역은 1992년 8월 국교를 수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1992년 63.7억 달러에서 2005년 1,005.8억 달러를 기록하여 한·중 수교 이후 지난 13년간 15.8배 증가
- 중국이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생산기지로 전환되고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전자부품과 산업용 전자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2005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24.6% 증가한 619.9억 달러를 기록
- 1992년도의 수출 26.5억 달러와 비교할 때 23.4배 증가
-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역수입이 확대되고 수출호황으로 인한 원자재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대중국 수입은 전년대비 30.4% 증가한 385.9억달러에 이룸
- 1992년도의 수입 37.2억 달러와 비교할 때 수입 10.3배 증가

2) 대 중국 수출 의존도의 변화

-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 소득수준의 제고 및 한·중간 상호보완적인 무역 구조로 인하여 한·중간의 무역이 급속히 증대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중국의 WTO가입 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전북은 전체 수출 의존도가 낮고 또한 대중국 수출의존도도 높지 않은 지역으로 나타남



[그림 1-4] 지방자치단체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2004년)

주: 수출의존도는 지역내 국내총생산(GDP)에서 지역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 전북은 수출의존도가 낮고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 속함
- 전북은 2005년도 기준 대중국 교역의존도 19.1%, 수출의존도 16.9%, 수입의존도 23.5%로 나타나 교역의존도와 수입의존도는 전국보다 높지만 수출의존도는 전국보다 높은 편임

<표 1-28> 전북의 대중국 교역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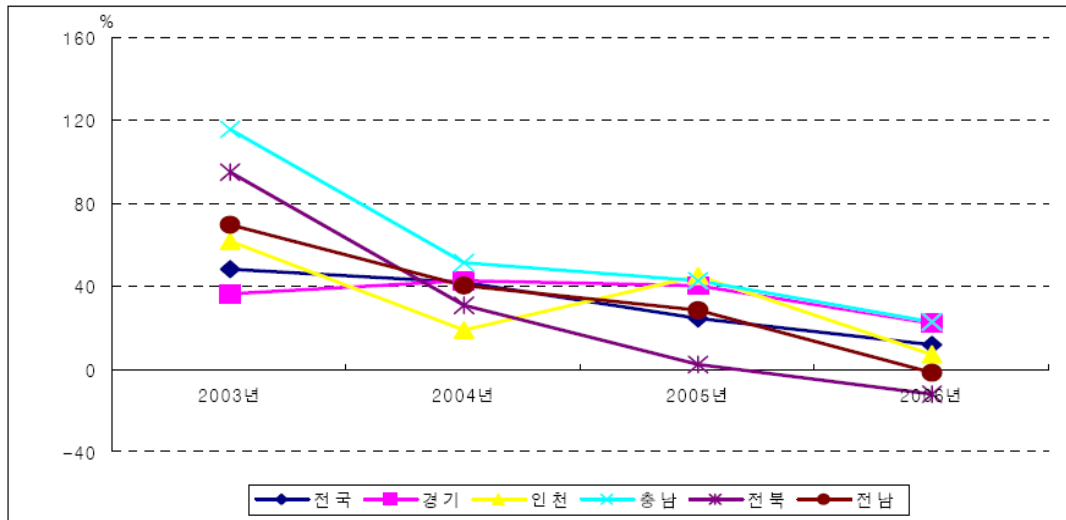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대중국 교역의존도			대중국 수출의존도			대중국 수입의존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 국	15.3	16.6	18.4	18.1	19.6	21.8	12.3	13.2	14.8
전 북	21.7	18.0	19.1	21.5	19.0	16.9	22.0	16.4	23.5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경기를 제외한 서해안지역의 대중국 수출입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음
 - 2006년 상반기 서해안 지역의 대중국 수출액을 살펴보면, 169.9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대중국 수출액의 52.2%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전체 대중국 수출액의 25.4%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를 제외할 경우 인천 3.8%, 충남 13.5%, 전남 8.3%, 전북 1.1%로 우리나라 전체의 26.8%에 머물고 있음

- 서해안 지역 중 가장 먼저 개발된 인천의 경우 2003년 61.8%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5년 45.2%, 2006년 상반기에는 7.1%로 감소되었으며, 수입증가율 또한 2003년 43.7%, 2005년 27.9%에서 2006년 상반기에는 -4.4%로 감소
 - 특히, 전남과 전북의 경우 2003년 각각 69.2%, 95.2%였던 수출증가율이 2006년 상반기 각각 -2.1%, -12.3%로 감소하였으며 수입증가율 또한 2006년 상반기 -20.4%, -17.8%로 감소
 - 서해안 지역의 지자체별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여 중국과 협력관계 유지



[그림 1-5] 서해안 지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변화

3) 전북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 둔화

(1) 교역량의 변화

- 전북의 2005년 기준 대중 수출은 전년대비 30.6%에서 1.9%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6년 상반기에는 -12.3%로 하락하였음
- 전북의 2005년도 기준 대중 수입액은 전년대비 -8.0에서 39.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 상반기에는 -17.8%로 감소하였음

<표 1-29> 전북의 대중국 교역, 수출, 수입증가율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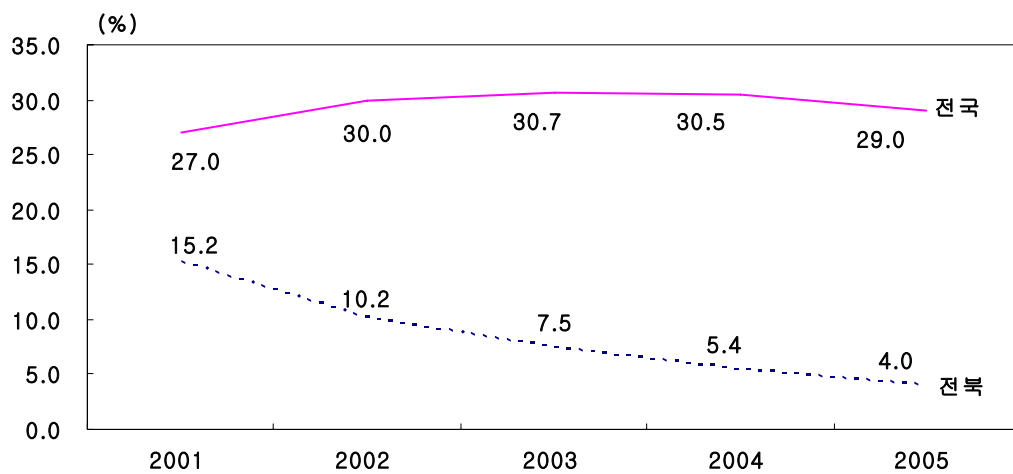
구분	교역			수출			수입		
	2003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국	39.2	26.7	14.6	41.7	24.4	11.8	35.0	30.6	18.9
전북	14.3	14.5	-14.6	30.6	1.9	-12.3	-8.0	39.1	-17.8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 IT 분야의 수출증가율 둔화

- 전북지역의 IT 수출 비중은 2001년 15.2%에서 2005년에는 4.0%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 전국의 IT 수출 비중이 30% 내외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부진한 실정
- 반도체 소자 등 전자부품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으로 제품가격 및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데다 일부 업체(파츠닉)의 부실화로 인한 생산차질로 수출액이 감소
- 컴퓨터 품목(2001년에는 전북의 5대 수출품에 속함)은 일부 업체(코리아데이터시스템스)의 회사정리 등으로 수출액이 급감



[그림 1-6] 전국 및 전북의 IT부문 수출비중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4) 교역구조의 보안적인 관계 증가

- 중국의 경제성장과 교역구조의 보완적인 관계로 인하여 대중국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게도 중요한 성장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미국 등 선진국 등에서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소한 내수시장 환경요인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전라북도에게 중국시장은 새로운 원동력이자 경제발전의 발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전북의 경우 품목별 수출에 있어서 지나친 중국의존도를 낮추고 대중국 수출 둔화에 대비해야 함

-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향후 수입대체제와 중국의 국산화율 제고로 인하여 대 중국 수출증가율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임
- 따라서 중국과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중국과 분업화를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우리가 고부가가치 공정을 담당하는 분업구조를 형성해야 나가야 함
- 2004년 산업은행의 한중간 업종별 비교우위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전, 섬유, 통신기기, 컴퓨터는 3년 이내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는 3~4년, 자동차, 일반기계, 조선은 4년 이상의 기술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중국의 고속성장을 감안할 때 2010년에는 컴퓨터, 자동차, 일반기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한중간 기술격차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산업은행이 조사한 전망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자동차, 일반기계, 컴퓨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기술적 격차가 거의 대등한 관계를 전환되고, 특히 섬유산업은 기술적 우위를 상실할 것으로 전망함

<표 1-30> 한중간 업종별 기술경쟁력 비교

(지수 : 한국=100 기준)

업종	현황						전망	
	설계기술	기술/제품개발력	생산기술	품질수준	종합	기술격차	2007	2010
석유화학	86.5	88.0	85.0	84.3	86	3.7	95.0	98.5
가전	80.3	82.0	89.4	85.6	84.3	1.8	91.9	96.7
섬유	79.6	79.4	84.6	88.4	83	2.3	95.2	105.8
통신기기	80.6	81.0	86.0	83.4	82.8	2.3	88.2	95.2
철강	73.1	85.3	79.1	79.1	79.2	3.8	89.3	93.8
반도체	77.5	75.0	77.0	81.5	77.8	3.8	86.0	95.5
컴퓨터	70.7	72.0	78.3	75.0	74.0	2.5	82.6	88.3
조선	71.6	69.0	65.9	73.0	69.9	7.0	86.1	94.4
자동차	60.1	63.2	68.9	68.0	65.0	4.5	75.2	87.3
일반기계	59	56.0	68.7	66.7	62.6	5.8	80.0	89.7

자료 : 산업은행 산업기술부, 한중일 주요산업의 기술경쟁력 분석, 2004.7

- 지리적으로 경쟁우위를 가진 서해안 지역을 대중국 교역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해야 함
 - 경기, 서울, 경북 등 상위 3개 지자체의 대중국 교역이 전체 대중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를 넘고 있으며 충남과 울산을 포함한 상위 5개 지자체의 대중국 교역은 전체 73.3%를 차지
 - 서해안 지자체들은 지리적 우위를 활용하여 중국 동부 연해도시들과 협력을 통하여 중국과 분업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국 교역의 거점지역으로 성장해 나가야 함

5) 자동차 부품의 최대 수출국

- 2004년 한국의 자동차부품 수출은 5,925 백만달러, 수입은 2,791백만달러로 3,134 백만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최대수출국은 중국이고 최대 수입국은 일본이었음.

[그림 1-7] 한국의 주요 국가별 자동차부품 수출현황

(단위:백만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총계	2,122 (4.6)	2,223 (4.7)	2,705 (21.7)	4,227 (56.3)	5,925 (40.2)
중국	83 (18.1)	78 (△5.5)	169 (116.2)	944 (459.5)	1,736 (83.9)
미국	557 (12.0)	647 (16.1)	809 (25.0)	900 (11.3)	1,143 (27.0)
일본	146 (19.1)	160 (9.6)	211 (32.0)	269 (27.1)	334 (24.2)
인도	139 (26.4)	108 (△22.6)	138 (27.6)	264 (91.6)	373 (41.3)
이란	63 (120.4)	40 (△35.7)	154 (281.9)	213 (37.9)	204 (△4.1)

주:()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KOTIS 및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 주요수출품목은 공조부품(에어컨 부품, 라디에이터, 에어컴프레서 등), 차체부품(윈도우 레귤레이터, 히터, 로드 휠등), 제동장치(ABS,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등), 전장부품(모터류, 램프 등)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변속기(기어박스), 인젠 및 엔진부품, Fuel Pump, 기타 브레이크 및 차체부품임

주제 2

전북의 대 중국 자동차 부품 교역 경쟁력 분석

• 발표자 : 안 종 석 교수 (전주대학교)

1. 문제제기
2. 한국 및 전북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현황
3. 전북의 자동차 부품 수출 경쟁력 분석
4. 요약 및 제언

전북의 대 중국 자동차 부품 교역경쟁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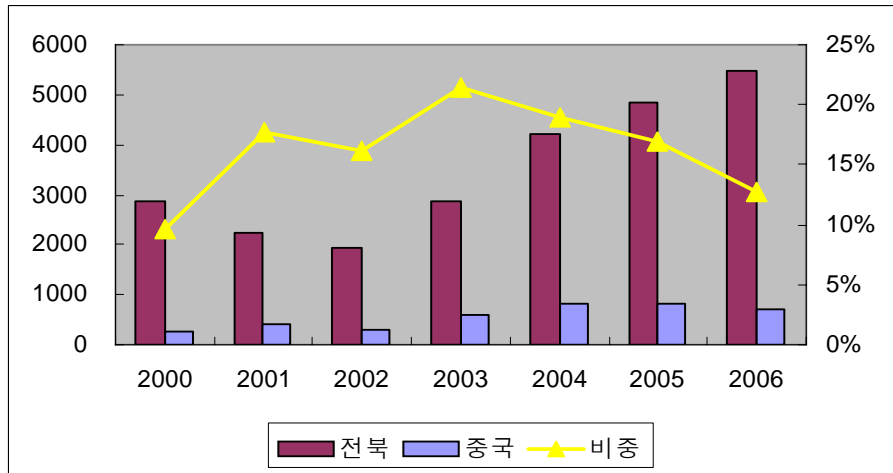
1. 문제제기

- 전북 경제가 현재의 낙후 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환황해 경제권의 역동적 성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매우 중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전북은 기존의 4대 지역전략산업의 중점 육성과 함께 전북을 첨단 부품·소재 산업의 환황해권 공급기지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발전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2010년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달성”을 위한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전북 차원에서도 ‘첨단 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

- 이는 한·중·일 국제 분업구조 상 한국이 중국의 확대되어 가는 핵심 부품·소재 수요의 주요 공급기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과, 전북 또한 핵심 부품·소재산업과 관련된 기계 및 자동차(부품)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임

- 전북의 미래가 환황해권의 부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체 수출액 중 21.3%가 중국에 대한 수출(2006년)인 데 반해, 전북의 전체 수출액 중 중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전북이 환황해 경제권의 역동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그림 2-1] 전북지역 총 수출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품·소재 산업 중 특히 자동차 부품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의 중국진출 확대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전북의 대 중국 자동차 부품산업 교역경쟁력을 분석해 보고자 함

-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함
 - 전북의 대 중국 자동차부품 수출 추이의 분석과 특징
 - 전북의 대 중국 자동차 부품 수출경쟁력의 파악
 - 전북의 대 중국 자동차부품 수출 추이와 경쟁력 분석을 통한 향후 수출 전망
 - 전북의 대략적인 대 중국 자동차부품 진출 확대의 기본방향 제시

2. 한국 및 전북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현황

2. 1 한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현황

- 한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2006년의 수출액은 1995년 대비 각각 4.65배, 10.9배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음

<표 2-1> 한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추이

(단위 : 천 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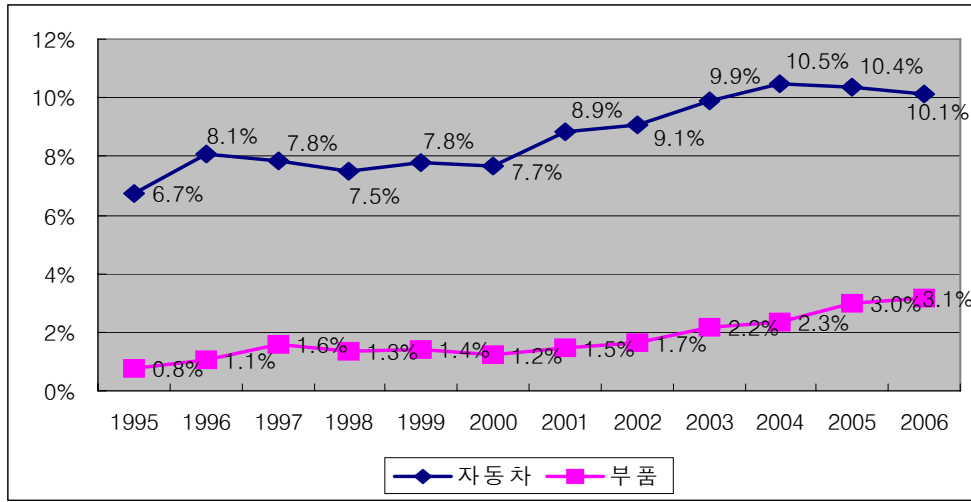
	1995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자동차	8,438,694 (-)	9,946,543 (12.3)	13,220,633 (18.3)	13,322,031 (0.8)	14,778,634 (10.9)	19,118,714 (29.4)	26,576,951 (39.0)	29,505,684 (11.0)	32,922,433 (11.8)
부품	939,182 (-)	1,760,481 (-16.8)	2,122,413 (4.6)	2,223,036 (4.7)	2,704,521 (21.7)	4,227,364 (56.3)	5,925,018 (40.2)	8,452,578 (42.7)	10,229,830 (21.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주 : ()안은 증가율을 나타냄

-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각각 6.7%, 0.8%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에는 10.1%, 3.1%로 증가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음

전북의 대중국 자동차 부품 교역경쟁력 분석



[그림 2-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 한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을 국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의 경우는 미국,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중국과 미국이 주요 시장임
 - 자동차의 경우 미국이 전체 수출의 26.6%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으로의 수출은 높은 관세율과 현지생산체제의 확립 등으로 1.8%에 불과함

<표 2-2> 한국의 자동차 수출국별 구성(2006년 기준)

(단위 : 백만 불, %)

	미국	러시아	스페인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영국	사우디	중국 (13)	전체
금액	8,750	1,694	1,617	1,441	1,300	1,214	955	927	794	598	32,922
비중	26.6	5.1	4.9	4.4	3.9	3.7	2.9	2.8	2.4	1.8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 반면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2002년 현대자동차의 중국 현지 생산공장 설립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어 전체 수출의 26.0%를 점하고 있음

<표 2-3> 한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국별 구성(2006년 기준)

(단위 : 천 불, %)

	중국	미국	인도	일본	우즈벡	러시아	이란	전체
금액	2,664,571	2,591,281	626,288	423,009	405,505	375,534	294,268	10,229,830
비중	26.0	25.3	6.1	4.1	4.0	3.7	2.9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이후 보인 급격한 신장세가 최근 들어 둔화되거나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표 2-4>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 추이

(단위 : 천 불, %)

	1995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8,438,694	9,946,543	13,220,633	13,322,031	14,778,634	19,118,714	26,576,951	29,505,684	32,922,433
중국	198,227 (45.0)	78,877 (44.3)	94,954 (69.0)	149,266 (57.2)	221,395 (48.3)	490,945 (121.8)	447,516 (-8.8)	620,236 (38.6)	598,446 (-1.0)
비중	2.4	0.8	0.7	1.1	1.5	2.6	1.7	2.1	1.8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 한편,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부품 수출은 2002년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어, 한국의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3.9% 수준에서 2005년 31.9%로 확대되었으나, 2006년 이후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자동차 부품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02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현대자동차의 현지 공장 설립에 따른 부품수요 확대에 기인함
 - 그러나 2006년에는 자동차 부품 수출이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에 비해 5.8% 포인트 줄어든 것은 중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능력의 강화와 이에 따른 중국 현지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현지 부품조달 확대에 기인

<표 2-5>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부품 수출 추이

(단위 : 천 불, %)

	1995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939,182	1,760,481	2,122,413	2,223,036	2,704,521	4,227,364	5,925,018	8,452,578	10,229,830
중국	32,899 (13.9)	83,624 (112.0)	82,608 (18.1)	78,032 (-5.5)	168,703 (116.2)	943,805 (459.5)	1,736,074 (83.9)	2,692,835 (55.1)	2,664,571 (-1.0)
비중	3.5	4.8	3.9	3.5	6.2	22.3	29.3	31.9	26.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2. 2 전북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현황

- 전북의 자동차 수출은 2003년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어 전국의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완연한 상승추세에 있음. 그러나 전북의 자동차 부품 수출은 2002년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

은 감소추세로 반전되고 있으며, 전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1.0%에서 2006년에는 3.7%로 감소되었음

- 전북의 자동차 수출이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은 2002년 GM대우의 정상화와 2004년 타타대우의 출범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전국의 자동차 수출에 대한 전북의 비중도 2002년 이후 증가하여 2006년에는 7.6%를 기록
- 전북의 자동차 부품 수출이 2002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국내 완성차 메이커들의 중국 현지 생산체제 확립에 따른 것임
- 그러나 최근 들어 전북의 자동차 부품 수출은 그 증가세가 둔화 혹은 감소추세로 반전되어 전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1.0%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여 2006년에는 3.7%를 기록
- 이는 전북의 자동차 부품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에서 국내 기업들의 부품 현지화 비율 증가와 중국 정부의 CKD 수입에 대한 규제 강화 때문

전북의 대중국 자동차 부품 교역경쟁력 분석

<표 2-6> 전북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추이

(단위 : 천 불,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자동차	한국 전체	13,220,633	13,322,031	14,778,634	19,118,714	26,576,951	29,505,684	32,922,433
	전북	928,462 (-)	540,668 (-41.8)	411,671 (-23.9)	661,821 (60.8)	1,562,304 (136.1)	1,951,837 (24.9)	2,502,234 (28.2)
	비중	7.0	4.1	2.8	3.5	5.9	6.6	7.6
부품	한국 전체	2,122,413	2,223,036	2,704,521	4,227,364	5,925,018	8,452,578	10,229,830
	전북	27,123 (-)	27,542 (1.5)	52,600 (91.0)	465,873 (785.7)	535,926 (15.0)	543,915 (1.5)	376,579 (-30.8)
	비중	1.3	1.2	1.9	11.0	9.1	6.4	3.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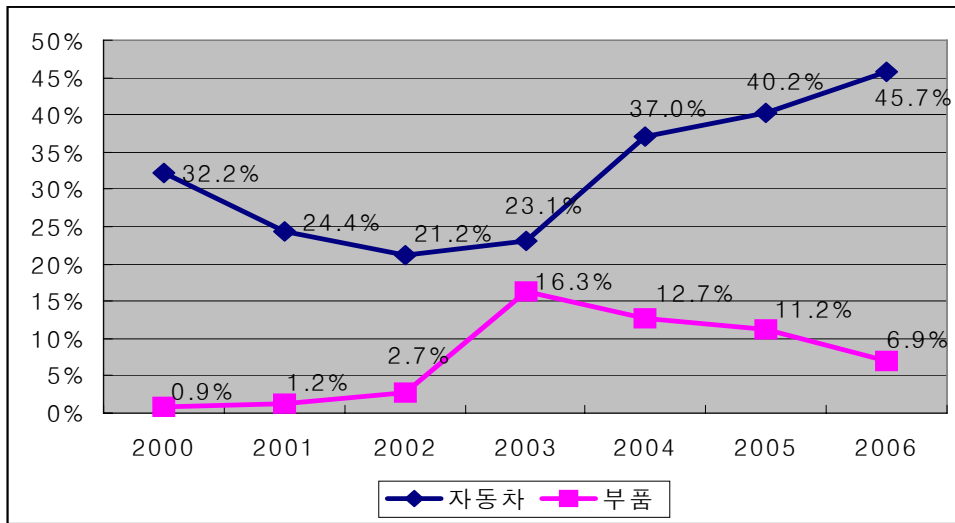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은 전북의 핵심 수출품목으로 전북지역의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현재 52.6%를 기록하고 있음

- 전북의 자동차 수출은 2002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21.2% 수준에서 2006년 45.7%로 대폭 확대됨

- 그러나 자동차 부품의 수출은 2003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전북지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6.3%에서 2006년 6.9%로 축소됨

전북의 대중국 자동차 부품 교역경쟁력 분석



[그림 2-3] 전북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이 전북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 전북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을 국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의 경우는 미국,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중국이 주요 시장임
 - 자동차의 경우 미국이 전체 수출의 18.2%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의 비중은 전체의 0.2%로 미미한 실정임

<표 2-7> 전북의 자동차 수출국별 구성(2006년 기준)

(단위 : 백만 불, %)

	미국	러시아	콜롬비아	멕시코	리비아	호주	알제리	사우디	중국 (56)	전체
금액	455.4	230.2	197.7	138.7	98.2	97.4	87.5	82.2	4.7	2,502.2
비중	18.2	9.2	7.9	5.5	3.9	3.9	3.5	3.3	0.2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 반면,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전북의 자동차 부품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점하는 비중이 무려 55.9%를 기록하고 있음

전북의 대중국 자동차 부품 교역경쟁력 분석

<표 2-8> 전북의 자동차 부품 수출국별 구성(2006년 기준)

(단위 : 백만 불, %)

	중국	일본	미국	이집트	태국	인도	러시아	전체
금액	210.6	47.2	31.3	25.2	20.0	9.9	6.9	376.6
비중	55.9	12.5	8.3	6.7	5.3	2.6	1.8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 전북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타타대우의 정상 조업 이후 반짝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부진한 수출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전북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최근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전북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는 최근 중국 내 완성차 메이커들의 공급능력 확대와 수출산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현지 생산체제 확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이에 따라 전북의 중국에 대한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0.7%로 추락함

<표 2-9> 전북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 추이

(단위 : 천 불,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북의 중국 수출	278,325 (-)	281,376 (1.1)	315,183 (12.0)	614,735 (95.0)	803,050 (30.6)	817,995 (1.9)	696,346 (-14.0)
자동차	9,242 (-)	8,541 (-7.6)	10,727 (25.6)	3,840 (-64.2)	10,318 (168.7)	11,069 (7.3)	4,741 (-57.2)
비중	3.3	3.0	3.4	0.6	1.3	1.4	0.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 전북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부품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현대자동차의 중국 진출 이후 급격한 신장세를 나타내어 자동차 부품이 전북지역의 대 중국 수출 주력품목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02년 이후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던 전북의 자동차 부품 대 중국 수출이 2005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섬
 - 이에 따라 전북의 중국에 대한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48.6%에서 2006년에는 30.2%로 축소
 - 이러한 현상은 중국 현지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현지 부품 조달 확대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전북지역의 경우 수출 감소세가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표 2-10> 전북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 추이

(단위 : 천 불,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북의 중국 수출	278,325 (-)	281,376 (1.1)	315,183 (12.0)	614,735 (95.0)	803,050 (30.6)	817,995 (1.9)	696,346 (-14.0)
자동차 부품	10,471 (-)	12,954 (23.7)	26,893 (107.6)	289,858 (977.8)	390,188 (34.6)	380,619 (-2.5)	210,567 (-44.7)
비중	3.8	4.6	8.5	47.2	48.6	46.5	30.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3. 전북의 자동차 부품 수출경쟁력 분석

- 자동차 부품의 품목 범위
 -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 자동차 부품의 품목 범위로 지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에 따른 분류(HS 2002)」 상의 10단위 62개 품목이 대상

- HS 10단위 기준의 품목분류가 국제간의 비교에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고, 상기 62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HS 6단위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분석
-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부품 무역통계는 실제 통계보다 일부 과대 계상되어 있음
- 전북의 자동차 부품 수출경쟁력을 평가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동차 부품 품목 분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2-11> 자동차부품품목분류

HS Code	품목명	HS Code	품목명
732010	판상스프링과 그 판	870710	승용차 차체
732020	나선용 스프링	870790	기타 자동차 차체
840999	엔진부품(디젤)	870810	완충기와 그 부분품
841330	내연기관 펌프	870821	안전벨트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여과기	870829	에어백
842131	내연기관용 공기여과기	870831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843120	포크리프트 및 작업트럭 부품	870839	기타 제동장치와 부분품
847989	차량용 기타기계	870840	기어박스
847990	기타기계 부분품 (카 에어컨 등)	870850	구동차축
848410	가스켓 및 이와 유사한 조인트	870860	비구동차축
848590	오일 쉘 등	870870	로드휠
851110	점화플러그	870880	속 압쇼바
851120	점화용 자석발전기	870891	방열기
851130	배전기와 점화코일	870892	소음기와 배기관
851140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870893	클러치
851150	기타발전기	870894	핸들, 운전대, 운전박스
851180	기타 시동용 전기기기	870899	차량용 기타부품 (엔진 미부착 샤프)
851190	기타 시동용 전기기기 부분품	870990	트랙터 부분품
851230	음향신호용 기구	871690	기타 차량 부품
851240	와이퍼	910400	차량용 시계
851290	조명용 혹은 신호용 기기 부품	940120	차량용 시트
870600	엔진을 갖춘 샤프		

- 한국 자동차 부품의 수출은 차량용 기타 부품(엔진 미부착 샤키)(870899)과 차량용 기타 기계(847989)에 집중되어 있음
 - 차량용 기타 부품은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의 57.1%, 그리고 차량용 기타 기계는 14.9를 점하여, 두 품목의 비중의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의 72.0%를 차지
 - 2006년 기준 연간 1억 불 이상의 수출을 기록한 11개 품목 중 내연기관 펌프(841330)와 에어백(870829)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북의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특정 품목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차량용 기타 부품(870899), 로드휠(870870), 속 압쇼바(870880)가 3대 주요 수출부품으로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의 94.3%를 차지
 - 특히 차량용 기타 부품의 경우 2002년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에서 12.6%를 점하던 것이 2003년 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에는 87.1%까지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74.8%를 기록
 - 차량용 기타 부품의 수출은 2004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이것이 최근 전북의 자동차 부품 수출실적 악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차량용 기타 부품 수출의 64.8%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최근 중국에 대한 전북의 자동차 부품 수출 감소의 주요원인도 차량용 기타 부품의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됨

<표 2-12> 전북의 차량용 기타 부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2006년 기준)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가율
	합계	286,846	-36.7
1	중국	185,734	-45
2	이집트	24,188	1.4
3	일본	21,569	457
4	태국	19,938	-54.4
5	인디아(인도)	9,135	-70.3
6	러시아 연방	6,915	2,268.20
7	콜롬비아	6,246	-3.1
8	대만	4,124	5,325.50
9	호주	2,749	15,170.9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 최근 전북의 자동차 부품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전북지역 자동차 부품 품목별 수출을 중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남
 - 전북의 주요 자동차 부품 수출 품목인 차량용 기타 부품과 로드휠의 경우 중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품목임
 - HS 6단위를 기준으로 살펴본 중국의 2006년 자동차 부품 수출 총액은 11,883,284천 불이며, 그 중 차량용 기타 부품은 2,857,408천 불(24.1%), 로드휠은 2,260,541천 불(19.0%)에 달함
 - 결국, 최근 전북의 자동차 부품 수출 부진은 중국 내 현지 완성차 메이커들의 현지 부품조달의 확대와 함께 중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실제 2000~2005년 기간 중 중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은 연 평균 54.4%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연 평균 29.5%의 증가율을 보여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빠르게 수출산업화 하고 있음을 보여 줌

<표 2-13> 차량용 기타 부품 및 로드휠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출 추이

HS_CD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870870	88,179	131,142	220,007	295,923	408,664	562,214	973,605	1,569,792	2,260,541
870899	183,827	256,445	346,529	407,897	552,783	704,809	1,534,812	2,194,183	2,857,408
중국 전체	850,901	1,225,113	1,688,504	2,011,150	2,638,594	3,523,630	6,026,830	8,844,305	11,883,284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시스템(KOTIS)

- 한국과 전북의 자동차 부품 산업 수출경쟁력을 살펴보고, 이를 중국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전북의 중국 대한 자동차 부품 수출 전망 및 확대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전북의 자동차 부품 무역특화지수(TSI : Trade Specialization Index)를 살펴보기로 함

- 수출경쟁력을 살펴볼 수 있는 대안적 방법(예를 들어 RCA 지수 등)이 있음에도 TSI를 활용하기로 한 것은 2006년까지의 통계 자료수집 문제 등을 고려
- TSI는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각 품목별 수출입 차를 해당 품목의 교역규모(수출입의 합)로 나눈 값($TSI=(X-M)/(X+M)$)으로 -1~+1의 값을 가짐
- TSI 값은 0을 기준으로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아 경쟁력을 가진 품목으로,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품목으로 경쟁력이 뒤지는 품목으로 해석할 수 있음

3.1 한국, 중국, 그리고 전북의 세계자동차 부품 시장에서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3.1.1 세계시장에서 한국, 중국, 전북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 한국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 1995년 이후 한국의 자동차 부품 TSI를 HS 6단위를 기준으로 품목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표 2-14> 한국의 자동차 부품 무역특화 지수 변화 추이

HS_CD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732010	-0.689	-0.421	-0.474	0.459	0.403	0.420	0.422	0.448	0.361	-0.160	-0.421	-0.607
732020	-0.781	-0.886	-0.711	-0.633	-0.652	-0.630	-0.566	-0.471	-0.342	-0.279	-0.273	-0.094
840999	-0.734	-0.775	-0.733	-0.502	-0.553	-0.563	-0.565	-0.591	-0.460	-0.475	-0.311	-0.251
841330	0.151	0.208	0.114	0.598	0.499	0.267	0.204	0.186	0.296	0.414	0.409	0.326
842123	0.004	0.180	0.266	0.465	0.474	0.391	0.168	0.230	0.139	-0.006	-0.159	-0.184
842131	-0.182	-0.050	0.076	0.453	0.169	0.528	0.578	0.584	0.667	0.622	0.554	0.364
843120	-0.600	-0.549	-0.287	-0.239	0.024	-0.023	0.006	-0.030	-0.112	-0.098	-0.207	-0.160
847989	-0.794	-0.743	-0.520	-0.257	-0.507	-0.565	-0.449	-0.387	-0.427	-0.378	-0.351	-0.346
847990	-0.463	-0.459	-0.237	0.044	-0.155	-0.205	-0.136	-0.127	-0.101	-0.086	-0.043	-0.035
848410	-0.678	-0.859	-0.761	-0.565	-0.588	-0.507	-0.496	-0.423	-0.291	-0.174	-0.071	-0.238
848590	-0.743	-0.344	-0.530	-0.168	-0.067	0.018	-0.050	-0.077	-0.146	0.062	-0.168	-0.107
851110	-0.940	-0.837	-0.992	-0.041	-0.982	-0.702	-0.633	-0.635	-0.625	-0.917	-0.944	-0.969
851120	0.148	0.709	0.565	0.932	0.969	0.988	0.989	0.994	0.974	0.961	0.978	0.972
851130	-0.564	-0.699	-0.498	-0.791	-0.870	-0.708	-0.269	0.077	0.252	0.461	0.067	-0.063
851140	0.107	0.135	0.193	0.654	0.771	0.808	0.822	0.846	0.896	0.903	0.818	0.674
851150	-0.422	-0.038	0.690	0.438	0.401	0.077	-0.370	-0.442	-0.400	0.045	-0.095	0.584
851180	-0.714	0.613	-0.886	na.	-0.203	0.059	-0.670	-0.774	-0.829	-0.444	-0.425	-0.098

전북의 대중국 자동차 부품 교역경쟁력 분석

851190	-0.621	-0.573	-0.234	0.153	0.136	0.209	0.362	0.398	0.289	0.317	0.557	0.563
851230	0.258	-0.386	-0.213	-0.732	-0.810	-0.538	-0.268	-0.248	-0.162	-0.246	0.105	0.061
851240	-0.623	-0.464	-0.494	0.151	0.763	0.833	0.820	0.761	0.460	0.258	0.408	0.135
851290	-0.449	-0.216	-0.059	0.319	-0.065	0.041	0.161	0.610	0.739	0.697	0.588	0.559
870600	0.892	0.809	0.779	0.974	0.928	0.705	0.946	0.850	0.970	0.989	0.993	0.973
870710	-0.718	-0.897	-0.840	0.860	0.197	0.947	0.979	0.988	0.909	0.982	0.810	0.938
HS_CD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870790	0.931	0.939	0.757	0.928	0.987	0.951	0.904	0.984	0.991	0.951	0.908	0.950
870810	-0.025	-0.072	0.177	0.613	0.580	0.464	0.437	0.290	-0.350	-0.148	0.032	0.157
870821	-0.808	-0.883	-0.942	-0.927	-0.937	-0.952	-0.962	-0.960	-0.906	-0.767	-0.545	-0.509
870829	-0.373	-0.383	0.056	0.189	0.053	0.054	0.058	0.052	-0.032	-0.040	0.021	-0.240
870831	-0.734	-0.383	0.096	0.462	0.312	-0.676	-0.956	-0.982	-0.993	-0.984	-0.112	-0.693
870839	-0.660	-0.704	-0.593	-0.301	-0.236	-0.188	-0.039	0.060	-0.032	0.255	0.150	0.145
870840	-0.978	-0.974	-0.971	-0.926	-0.967	-0.969	-0.984	-0.924	-0.881	-0.831	-0.713	-0.789
870850	-0.615	-0.459	-0.860	-0.337	0.494	0.429	0.452	0.484	0.487	0.529	0.559	0.416
870860	-0.441	-0.742	-0.946	-0.572	-0.040	0.393	0.689	0.591	0.920	0.913	0.921	0.834
870870	0.127	0.231	0.295	0.629	0.728	0.615	0.652	0.621	0.711	0.757	0.774	0.724
870880	-0.650	-0.762	-0.791	-0.190	-0.197	-0.415	-0.424	-0.208	0.316	0.433	0.575	0.575
870891	0.851	0.826	0.953	0.967	0.931	0.792	0.772	0.868	0.785	0.680	0.303	0.197
870892	0.815	0.644	0.792	0.855	0.905	0.930	0.894	0.933	0.924	0.801	0.858	0.791
870893	0.482	0.501	0.528	0.558	0.522	0.525	0.385	0.396	0.391	0.388	0.361	0.365
870894	-0.808	-0.708	-0.514	-0.181	0.184	0.343	0.032	0.141	0.314	0.453	0.590	0.568
870899	0.053	0.456	0.615	0.737	0.739	0.661	0.693	0.669	0.758	0.774	0.815	0.816
870990	-0.175	-0.896	-0.422	-0.400	0.264	0.042	-0.321	-0.493	-0.462	-0.353	-0.866	-0.782
871690	0.561	0.564	0.625	0.867	0.405	0.430	0.356	0.323	0.538	0.603	0.478	0.100
910400	-0.224	-0.816	-0.650	-0.749	-0.232	-0.243	-0.068	0.550	0.061	-0.019	0.153	0.573
940120	-0.985	-0.928	0.592	-0.467	-0.622	-0.287	-0.411	-0.601	0.478	0.663	0.537	0.452
전체	-0.544	-0.454	-0.222	0.103	-0.027	-0.177	-0.064	-0.042	0.043	0.087	0.193	0.210

- 한국의 자동차 부품산업 전체의 TSI는 1995년 -0.544에서 2006년 0.210으로 변화되어 수입특화산업에서 수출특화산업으로 변모
- 전체 43개 품목군 중 수출특화품목은 26개 품목, 수입특화품목은 17개 품목으로 집계됨
- 대표적인 수출특화품목(TSI>0.5) : 시동 전동기(851440), 발전기(851150), 시동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851190), 조명 또는 신호용 기기 부품(851290), 엔진부착 샤프트(870600), 승용차 차체(870710), 기타 자동차 차체(870790), 비구동 차축(870860), 로드휠(870870), 속 압쇼바(870880), 소음기와 배기관(870892), 핸들과 운전박스(870894), 승용차 제외 기타 자동차 샤프트(870899), 차량용 시계(910400)
- 대표적인 수입특화품목(TSI<-0.5) : 환상스프링(732010), 점화플러그(851110), 안전벨트(870821), 브레이크 라이닝(870831), 기어박스(870840), 트랙터 부분품(870990)

- 앞서 제시한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 TSI 자료를 통하여 2000~2006년 기간 동안 품목별 수출경쟁력의 동태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기간을 2000~2006년 기간으로 한 것은 동일한 기간 기준 하에 중국 및 전북 지역의 수출경쟁력 변화 추이와 비교하기 위한 것임
- 전체 43개 품목 중에서 동 기간 동안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은 23개 품목, 그리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은 20개 품목임
 - 경쟁력 강화 품목 중 점화용 전기기기, 조명 또는 신호용 기기 부품, 비구동 차축 등은 수출특화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고, 경음기와 제동장치, 그리고 속 압쇼바는 새로운 수출특화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코일 스프링, 엔진부품, 배전기, 카 에어컨 등은 수입특화의 정도가 두드러지게 약화되고 있음
 - 경쟁력 약화 품목 중에서는 와이퍼와 범퍼, 그리고 방열기 등의 품목은 수출특화 품목으로서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겹판스프링과 액체 여과기 등은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품목으로 전환됨

<표 2-15> 한국 자동차 부품의 품목별 수출경쟁력 변화 양상

		경제적 의미	세부품목
경쟁력 강화	I 그룹 (10품목)	수출특화품목으로 경쟁력 강화 →수출주력제품군 ($0 < TSI(2000) \leq TSI(2006)$)	841330,851150,851190,851290,870600,870790,870860,870870,870894,870899
	II 그룹 (5품목)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 →새로운 수출전략제품군으로 대두 ($TSI(2000) < 0 < TSI(2006)$)	851230,870839,870880,910400,940120
	III 그룹 (8품목)	수입특화품목으로 수입특화 약화 →수입대체 진전과 수출상품화가능성 ($TSI(2000) < TSI(2006) < 0$)	732020,840999,847989,847990,848410,851130,870821,870840
경쟁력 약화	I 그룹 (10품목)	수출특화품목으로 경쟁력 약화 →경쟁력 강화방안 필요 ($0 < TSI(2006) < TSI(2000)$)	842131,851120,851140,851240,870710,870810,870850,870891,870892,870893,871690
	II 그룹 (7품목)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 ($TSI(2006) < 0 < TSI(2000)$)	732010,842123,,848590,851180,870829,870990
	III 그룹 (3품목)	수입특화 심화 →구조조정 추진 및 전략적 수입확대 ($TSI(2006) < TSI(2000) < 0$)	843120,851110,870831

3.1.2 중국의 자동차 부품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 1998년 이후 중국의 자동차 부품 TSI를 HS 6단위를 기준으로 품목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중국의 자동차 부품산업 전체의 TSI는 1998년 -0.632에서 2006년 -0.220으로 변화되어 수입특화의 정도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음
 - 전체 43개 품목군 중 1998년 수출특화품목은 15개 품목, 수입특화품목이 28개 품목이던 것이 2006년에는 수출특화품목이 29개 품목, 수입특화품목은 14개 품목으로 변화됨
 - 대표적인 수출특화품목(TSI>0.5) : 기타 점화용 자석발전기(851120), 트랙터 샤시(엔진부착)(870600), 승용차 차체(870710), 기타 자동차 차체(870790), 브레이크라이닝(870831), 로드휠(870870), 방열기(870891), 트레일러 및 기타 비구동차량 부품(871690)
 - 대표적인 수입특화품목(TSI<-0.5) : 코일스프링(732020), 차량용 기타 기계(847989), 변속기(870840)

<표 2-16> 중국의 자동차 부품 무역특화 지수 변화 추이

HS_CD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732010	-0.413	-0.402	-0.373	-0.650	-0.756	-0.802	-0.666	-0.412	-0.340
732020	-0.628	-0.656	-0.732	-0.759	-0.721	-0.778	-0.728	-0.647	-0.613
840999	-0.377	-0.305	-0.169	-0.192	-0.233	-0.251	-0.027	0.102	0.313
841330	-0.710	-0.797	-0.843	-0.644	-0.729	-0.761	-0.814	-0.652	-0.439
842123	-0.248	-0.334	-0.366	-0.322	-0.307	-0.104	-0.001	0.203	0.225
842131	0.369	-0.338	-0.598	-0.539	-0.561	-0.600	-0.347	-0.098	-0.132
843120	-0.667	-0.271	-0.084	-0.011	0.028	0.099	0.182	0.215	0.392
847989	-0.919	-0.894	-0.934	-0.914	-0.911	-0.890	-0.891	-0.837	-0.847
847990	-0.921	-0.787	-0.788	-0.720	-0.761	-0.749	-0.814	-0.697	-0.606
848410	-0.395	-0.176	-0.093	-0.289	-0.263	-0.389	-0.417	-0.354	-0.399
848590	-0.285	-0.003	0.073	0.136	0.124	0.055	-0.330	-0.258	0.091
851110	0.776	0.500	0.489	0.514	0.332	0.164	0.139	0.049	-0.029
851120	-0.654	-0.752	-0.116	0.197	0.209	0.749	0.725	0.805	0.747
851130	0.731	0.485	0.504	0.188	-0.007	-0.046	0.000	0.110	0.052
851140	-0.322	-0.460	-0.209	-0.326	-0.117	-0.136	0.008	0.085	0.308
851150	-0.171	-0.365	-0.385	-0.561	-0.418	-0.448	-0.345	-0.122	0.024
851180	0.057	0.114	0.155	0.088	0.187	-0.093	-0.119	0.294	0.238

HS_CD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851190	-0.220	-0.234	-0.043	0.021	0.070	-0.057	-0.058	0.203	0.206
851230	0.643	0.238	0.260	0.072	0.523	0.318	0.417	0.480	0.494
851240	-0.236	-0.421	-0.439	-0.229	-0.067	0.080	-0.014	0.042	0.227
851290	-0.248	-0.260	-0.258	-0.344	-0.213	-0.311	-0.347	-0.164	-0.105
870600	-0.642	-0.780	-0.404	-0.422	0.304	-0.175	0.134	0.574	0.740
870710	-0.928	-0.987	-0.992	-0.982	-0.987	-0.999	-0.884	-0.378	0.559
870790	-0.014	-0.200	0.496	0.341	-0.438	-0.466	0.678	0.899	0.860
870810	0.358	0.109	-0.311	-0.423	-0.346	-0.554	-0.413	-0.210	-0.089
870821	0.177	0.720	0.430	-0.433	-0.008	-0.132	0.131	0.211	0.021
870829	-0.526	-0.478	-0.323	-0.490	-0.602	-0.763	-0.685	-0.535	-0.435
870831	0.863	0.688	0.710	0.717	0.714	0.643	0.557	0.599	0.568
870839	0.624	0.626	0.681	0.587	0.205	-0.162	-0.088	0.191	0.192
870840	-0.662	-0.506	-0.472	-0.808	-0.807	-0.934	-0.939	-0.925	-0.922
870850	-0.665	-0.800	-0.707	-0.599	-0.745	-0.866	-0.602	-0.393	0.072
870860	-0.138	-0.014	-0.063	-0.211	-0.314	-0.120	0.343	0.353	0.338
870870	0.854	0.792	0.793	0.821	0.873	0.728	0.768	0.823	0.885
870880	-0.760	-0.603	-0.585	-0.598	-0.352	-0.264	-0.056	0.375	0.463
870891	0.928	0.766	0.552	0.482	0.559	0.498	0.658	0.785	0.778
870892	-0.249	0.050	-0.105	-0.338	-0.484	-0.417	-0.136	0.130	0.273
870893	0.037	0.203	0.383	0.328	0.359	0.256	0.362	0.540	0.333
870894	-0.631	-0.739	-0.707	-0.797	-0.863	-0.866	-0.740	-0.492	-0.408
870899	-0.594	-0.530	-0.625	-0.576	-0.379	-0.478	-0.112	0.137	0.035
870990	0.338	0.678	0.551	0.551	0.521	0.439	-0.226	-0.191	0.159
871690	0.635	0.858	0.787	0.879	0.924	0.884	0.769	0.687	0.742
910400	0.726	0.664	0.537	0.269	0.226	0.056	-0.166	-0.050	0.029
940120	-0.697	-0.238	-0.285	-0.814	-0.804	-0.802	-0.683	-0.320	-0.269
전체	-0.632	-0.527	-0.527	-0.517	-0.487	-0.555	-0.462	-0.259	-0.220

○

- 앞서 제시한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 TSI 자료를 통하여 2000~2006년 기간 동안 품목별 수출경쟁력의 동태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전체 43개 품목 중에서 동 기간 동안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은 30개 품목, 그리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은 13개 품목임
 - 경쟁력 강화 품목 중 승용차를 제외한 차량의 차체 등은 수출특화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고, 엔진부품, 시동기기, 와이퍼, 샴시, 승용차 차체, 비구동차축, 속 압소바 등은 새로운 수출특화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공기여과기 등은 수입특화의 정도가 두드러지게 약화되고 있음
 - 경쟁력 약화 품목 중에서는 배전기와 점화코일, 제동장치, 트랙터 부품, 차량용 시계 등의 품목은 수출특화품목으로서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점화 플러그는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품목으로 전환되었으며, 변속기는 수입특화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표 2-17> 중국 자동차 부품의 품목별 수출경쟁력 변화 양상

		경제적 의미	세부품목
경쟁력 강화	I 그룹 (6품목)	수출특화품목으로 경쟁력 강화 →수출주력제품군 (0<TSI(2000)<TSI(2006))	848590,851180,851230,870790,870870,870891
	II 그룹 (15품목)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 →새로운 수출전략제품군으로 대두 (TSI(2000)<0<TSI(2006))	840999,842123,843120,,851120,851140,851150,851190,851240,870600,870710,870850,870860,870880,870892,870899
	III 그룹 (9품목)	수입특화품목으로 수입특화 약화 →수입대체 진전과 수출상품화가능성 (TSI(2000)<TSI(2006)<0)	732010,732020,841330,842131,847989,847990,851290,870810,870894
경쟁력 약화	I 그룹 (8품목)	수출특화품목으로 경쟁력 약화 →경쟁력 강화방안 필요 (0<TSI(2006)<TSI(2000))	851130,870821,870831,870839,870893,870990,871690,910400
	II 그룹 (1품목)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 (TSI(2006)<0<TSI(2000))	851110
	III 그룹 (4품목)	수입특화 심화 →구조조정 추진 및 전략적 수입확대 (TSI(2006)<TSI(2000)<0)	848410,870829,870840,940120

3.1.3 전라북도의 자동차 부품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 2000년 이후 전북의 자동차 부품 TSI를 HS 6단위를 기준으로 품목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전북의 자동차 부품산업 전체의 TSI는 2000년 0.124에서 2006년 0.763으로 변화되어 수출특화의 정도가 대폭 강화되었음
 - 특히 2002년 현대자동차의 중국 진출 이후 수출특화의 정도가 크게 향상되었음
 - 전체 43개 품목군 중 2000년 수출특화품목은 12개 품목, 수입특화품목은 15개 품목이던 것이 2006년에는 수출특화품목이 12개 품목, 수입특화품목은 20개 품목으로 변화됨
 - 대표적인 수출특화품목(TSI>0.5, 그리고 수출액>1,000 천불 이상) : 엔진부품(840999), 엔진부착 샤프트(870600), 로드휠(870870), 속 압쇼마(870880), 승용차 제외 기타 자동차의 샤프트(870899)
 - 대표적인 수입특화품목(TSI<-0.5, 그리고 수입액>1,000 천불 이상) : 차량용 기타 기계(847989), 카 에어컨(847990), 제동장치(870839), 변속기(870840), 구동차축(870850)

전북의 대중국 자동차 부품 교역경쟁력 분석

<표 2-18> 전북의 자동차 부품 무역특화 지수 변화 추이

TSI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732010	na.	na.	na.	-0.846	0.500	1.000	-1.000
732020	-1.000	na.	-1.000	-0.273	-0.821	-1.000	-1.000
840999	-0.546	-0.698	-0.938	-0.715	-0.826	0.752	0.886
841330	-0.629	-0.185	-0.947	-0.990	-0.869	na.	-0.988
842123	0.918	0.960	0.937	0.748	-0.801	-0.092	0.532
842131	1.000	0.993	0.845	0.083	0.882	0.865	0.136
843120	na.	-0.846	na.	na.	-1.000	-1.000	-1.000
847989	-0.387	0.084	-0.180	-0.466	-0.625	-0.532	-0.192
847990	-0.334	-0.465	-0.635	-0.475	-0.583	-0.639	-0.793
848410	0.199	0.776	0.136	-0.435	-0.881	-0.911	na.
848590	-1.000	-0.889	-0.538	na.	0.400	na.	-1.000
851110	na.	na.	na.	na.	0.000	-1.000	na.
851120	na.	na.	na.	na.	na.	na.	na.
851130	na.	na.	na.	na.	na.	na.	na.
851140	na.	na.	na.	na.	-0.300	-1.000	-1.000
851150	na.	-1.000	na.	-1.000	na.	na.	na.
TSI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851180	na.	na.	na.	na.	na.	-1.000	na.
851190	na.	na.	na.	na.	na.	1.000	1.000
851230	na.	na.	na.	-1.000	-1.000	-1.000	-1.000
851240	na.	na.	1.000	na.	na.	na.	-1.000
851290	na.	na.	na.	na.	na.	na.	na.
870600	1.000	1.000	1.000	1.000	1.000	0.998	0.998
870710	1.000	na.	na.	1.000	na.	na.	na.
87079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997
870810	-0.385	1.000	-0.763	-0.992	-1.000	-1.000	-1.000
870821	na.	na.	-1.000	-1.000	-1.000	na.	na.
870829	-0.632	1.000	-0.156	-0.922	-0.976	-0.210	0.697
870831	na.	na.	-1.000	na.	na.	na.	-1.000
870839	-1.000	-0.989	-0.966	-0.955	-0.995	-0.978	-0.757
870840	-1.000	-1.000	-0.995	-0.948	-0.836	0.036	-0.254
870850	-0.499	-0.324	0.461	0.787	0.929	-1.000	-0.802
870860	-1.000	-0.848	-0.998	1.000	-1.000	na.	0.625
870870	0.754	0.551	0.732	0.893	0.842	0.833	0.778
870880	0.980	0.971	0.999	0.951	0.939	0.989	0.991
870891	1.000	1.000	1.000	1.000	1.000	na.	na.
870892	0.857	0.966	0.833	0.997	0.091	0.796	0.748
870893	-1.000	-0.500	-1.000	-1.000	-1.000	-1.000	-0.736
870894	-1.000	-1.000	na.	-1.000	-0.763	1.000	-0.345
870899	0.184	0.319	-0.059	0.939	0.938	0.952	0.906
870990	na.	na.	-1.000	0.887	-1.000	-1.000	-1.000
87169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10400	na.	na.	na.	na.	na.	na.	na.
940120	-1.000	-1.000	0.333	0.692	na.	-1.000	-1.000
전체	0.124	0.199	0.185	0.720	0.704	0.811	0.763

□ 앞서 제시한 전북의 자동차 부품 산업 TSI 자료를 통하여 2000~2006년 기간 동안 품목별 수출경쟁력의 동태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2-19> 전북 자동차 부품의 품목별 수출경쟁력 변화 양상

		경제적 의미	세부품목
경쟁력 강화	I 그룹 (5품목)	수출특화품목으로 경쟁력 강화 →수출주력제품군 ($0 < TSI(2000) < TSI(2006)$)	851190,870790,870870,870880,870899
	II 그룹 (3품목)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 →새로운 수출전략제품군으로 대두 ($TSI(2000) < 0 < TSI(2006)$)	840999,870829,870860
	III 그룹 (4품목)	수입특화품목으로 수입특화 약화 →수입대체 진전과 수출상품화 가능성 ($TSI(2000) < TSI(2006) < 0$)	847989,870839,870840,870893
경쟁력 약화	I 그룹 (5품목)	수출특화품목으로 경쟁력 약화 →경쟁력 강화방안 필요 ($0 < TSI(2006) < TSI(2000)$)	842123,842131,870600,870891,870892
	II 그룹 (1품목)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 ($TSI(2006) < 0 < TSI(2000)$)	848410
	III 그룹 (14품목)	수입특화 심화 →구조조정 추진 및 전략적 수입확대 ($TSI(2006) < TSI(2000) < 0$)	732010,732020,841330,843120,847990,848590,851110,851140,851230,851240,870810,870831,870850,940120

주 : 굵은 글씨체는 전북의 7대 자동차 부품 수출품목을 의미함

- 전체 43개 품목 중에서 동 기간 동안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은 12개 품목, 그리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은 20개 품목임(11개 품목의 경우 2006년 수출 및 수입액이 0)
- 경쟁력 강화 품목 중 승용차를 제외한 차량의 차체 등은 수출특화의 정도가 강화되어 전북의 자동차 부품 수출에서 핵심품목으로 부상하였고, 엔진부품, 에어백과 기타 차체 부품은 새로운 수출특화 품목으로 등장하였으며, 변속기는 수입특화의 정도가 두드러지게 약화되면서 새로운 주요 수출품목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경쟁력 약화 품목 중에서는 전북의 자동차 부품 주요 수입품목 중의 하나인 에어컨이 수입특화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전북의 대중국 자동차 부품 교역경쟁력 분석

□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북의 자동차 부품 수출과 수입은 소수의 품목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바, 2006년 기준으로 수출 혹은 수입이 1,000 천불을 초과하고 있는 품목은 전체 43개 품목 중에서 10개 품목에 지나지 않음. 이들 10개 주요 교역품목의 수출입 및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2-20> 전북 자동차 부품 주요 교역품목의 수출입 추이 특성

HS Code	품목 명	주요 특이사항
840999	엔진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수출 3,318천불로 2002년 이후 지속 증가 · 2006년 수입 200천불로 2000년 이후 지속 감소 ·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되어 새로운 전략 수출품목으로 대두할 가능성
847989	차량용 기타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전북의 3위 수입품목 · 수출은 2001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4년 이후 증가 추세로 반전 · 2004년 이후 수입특화 정도가 약화되는 추세
847990	카 에어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이후 수출은 감소추세, 수입은 2003년 이후 증가 추세 · 수입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추세
870600	승용차 제외 가타 자동차 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전북의 주요 수출품목이었으나 이후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 · 수입은 거의 전무하여 여전히 수출특화
870839	제동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2004년 이후 수입도 감소세로 돌아섬 · 최근 들어 수입특화의 정도가 감소되는 추세
870840	변속기(기어박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입특화품목이었으나 2004년 이후 수출은 증가, 수입은 감소추세로 반전 · 2004년 이후 수입특화의 정도가 약화
870850	구동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은 2002년 이후 감소세, 수입은 증가세로 반전 · 현대차 중국진출 이후 수출특화품목으로 전환되었다가 2005년부터 다시 수입특화정도가 심화
870870	로드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전북의 2대 수출품목으로 매년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수입도 증가 추세 · 여전히 수출특화의 정도가 강하나, 2004년 이후 약화되어 가는 추세
870880	속 압쇼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전북의 3대 수출품목으로 2001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6년에 수출 감소 · 수입은 극히 미미하여 완전한 수출특화품목
870899	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의 1대 수출품목으로 2002년 이후 수출이 급증세, 그러나 2006년에는 대폭 감소 · 수입은 2000년 이후 매년 소폭의 증가세 · 2000년 이후 수출특화의 정도가 대폭 강화 추세

3. 2 한·중 자동차 부품 교역에서의 한국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표 2-21> 한·중 교역에서 한국의 자동차 부품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732010	-0.693	-0.529	0.143	0.410	-0.004	0.273	-0.321
732020	-0.706	-0.701	-0.379	-0.732	-0.605	-0.234	0.503
840999	0.079	0.012	-0.017	0.178	0.451	0.227	-0.041
841330	0.738	0.956	0.917	0.828	0.414	-0.045	0.239
842123	0.780	0.707	0.903	0.216	0.060	-0.639	-0.528
842131	-0.301	-0.154	-0.713	0.185	0.612	0.295	0.136
843120	0.467	0.537	0.276	-0.178	-0.327	-0.643	-0.541
847989	0.958	0.812	0.919	0.931	0.939	0.887	0.767
847990	0.973	0.825	0.794	0.841	0.882	0.815	0.747
848410	0.130	-0.430	0.238	-0.031	-0.197	-0.228	0.035
848590	0.784	0.833	0.467	0.558	0.727	0.490	0.272
851110	0.010	-0.185	-0.169	-0.046	0.295	-0.227	-0.538
851120	1.000	0.946	0.998	0.945	0.072	0.692	0.255
851130	na.	0.998	0.999	0.970	0.944	0.986	0.935
851140	0.999	0.994	0.995	0.989	0.799	0.704	0.120
851150	-0.092	-0.641	0.924	-0.229	0.996	0.241	0.429
851180	-0.739	na.	1.000	-0.813	-0.228	-0.143	1.000
851190	0.956	1.000	0.967	0.958	0.873	0.740	0.365
851230	-0.778	-0.143	-0.110	-0.083	-0.143	-0.053	-0.061
851240	1.000	-0.444	na.	0.666	0.957	0.735	0.139
851290	-0.757	0.045	0.782	0.855	0.776	0.700	0.700
870600	1.000	1.000	1.000	0.985	0.984	1.000	0.991
870710	na.	na.	0.995	na.	0.905	0.929	0.895
870790	0.999	na.	1.000	0.998	0.997	na.	1.000
870810	1.000	1.000	0.981	0.993	0.631	-0.492	0.308
870821	-1.000	-0.379	-0.926	0.991	0.897	0.554	0.318
870829	0.934	0.914	0.985	0.908	0.852	0.712	0.481
870831	0.787	0.500	na.	na.	0.714	-0.640	-1.000
870839	-0.123	0.031	0.547	0.844	0.889	0.622	0.133
870840	-0.998	-0.919	0.999	0.999	0.963	0.994	0.910
870850	0.018	0.487	0.807	0.999	0.972	0.942	0.683
870860	-0.271	na.	-0.180	0.811	0.902	0.933	0.751
870870	-0.916	-0.854	-0.144	0.335	0.747	0.552	0.065
870880	0.627	0.775	0.986	0.999	1.000	0.997	0.910
870891	-1.000	-1.000	0.500	0.998	0.930	-0.703	-0.788
870892	-0.511	-0.160	0.848	0.881	0.964	0.987	0.929
870893	0.840	0.667	-0.266	0.199	0.143	0.065	-0.203
870894	0.173	0.676	0.700	0.513	-0.004	0.371	0.289
870899	0.728	0.828	0.812	0.956	0.956	0.928	0.880
870990	1.000	1.000	0.684	0.318	-0.024	-0.551	-0.846
871690	-0.624	-0.806	-0.899	-0.488	-0.509	-0.607	-0.877
910400	0.000	na.	0.162	-0.210	-0.327	-0.027	-0.667
940120	-0.973	-0.839	-0.756	-0.988	0.678	-0.943	-0.952
합계	0.917	0.773	0.846	0.866	0.873	0.802	0.670

- 1998년 이후 중국의 자동차 부품 TSI를 HS 6단위를 기준으로 품목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 부품 교역에서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2000년 0.917에서 2006년 0.670으로 변화되어, 한국의 수출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특화의 정도는 점차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0년에는 전체 43개 품목 중에 한국의 수출특화품목이 24개, 수입특화품목이 16개이던 것이, 2006년에는 수출특화품목이 30개, 수입특화품목이 13개로 변화
- 앞서 제시한 한·중 교역에서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 TSI 자료를 통하여 2000~2006년 기간 동안 품목별 수출경쟁력의 동태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전체 43개 품목 중에서 동 기간 동안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은 20개 품목, 그리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은 23개 품목임
 - 경쟁력 강화 품목 중 조명 또는 신호용 기기는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되어 전북의 새로운 대 중국 수출특화 품목으로 등장하였으며,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된 11개 품목 중 10개 품목이 2002년 혹은 2003년에 수출특화로 전환되어 2002년 현대자동차의 중국진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중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에 따라 2000년에 비해 한국의 수출특화정도가 약화되고 있는 품목이 전체 43개 품목 중 14개 품목에 달하고 있고, 8개 품목은 아예 수입특화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표 2-22> 한·중 교역에서 한국의 자동차 부품 품목별 수출경쟁력 변화 양상

		경제적 의미	세부품목
경쟁력 강화	I 그룹 (5품목)	수출특화품목으로 경쟁력 강화 →수출주력제품군 (0<TSI(2000)<TSI(2006))	870790,870850,870880,870894,870899
	II 그룹 (11품목)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 →새로운 수출전략제품군으로 대두 (TSI(2000)<0<TSI(2006))	732020,842131,851150,851180,851290,870821,870839,870840,870860,870870,870892
	III 그룹 (4품목)	수입특화품목으로 수입특화 약화 →수입대체 진전과 수출상품화 가능성 (TSI(2000)<TSI(2006)<0)	732010,851230,870891,940120
경쟁력 약화	I 그룹 (14품목)	수출특화품목으로 경쟁력 약화 →경쟁력 강화방안 필요 (0<TSI(2006)<TSI(2000))	841330,847989,847990,848410,848590,851120,851130,851140,851190,851240,870600,870710,870810,870829
	II 그룹 (8품목)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 (TSI(2006)<0<TSI(2000))	840999,842123,843120,851110,870831,870893,870990,910400
	III 그룹 (1품목)	수입특화 심화 →구조조정 추진 및 전략적 수입확대 (TSI(2006)<TSI(2000)<0)	871690

3. 3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살펴본 한·중 자동차부품 경쟁력 비교

-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전북의 자동차 부품 주요 수출입 품목만을 대상으로 중국과 전북(및 한국)의 수출경쟁력 변화 추이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전북의 대중국 자동차 부품 교역경쟁력 분석

<표 2-23> 전북의 자동차 부품 주요 수출입 품목의 수출경쟁력 현황 및 전망

코드	품목명	수출경쟁력 변화 추이(2000→2006)		경쟁력 판단
840999	엔진부품(디젤) (수출주력)	세계	한국(-0.563→-0.251), 중국(-0.169→0.313). 전북(-0.546→0.886)	한국, 중국, 전북 수출경쟁력 회복 미래 한국, 전북의 수출 감소 전망
		한·중	한국 TSI : 0.079→0.041	
847989	차량용 기타 기계 (수출, 수입 주력)	세계	한국(-0.565→-0.346), 중국(-0.934→-0.847), 전북(-0.387→-0.192)	한국, 전북 수입특화 약화 중국은 여전히 강한 수입특화 일정 기간 전북의 수출 증가 전망
		한·중	한국 TSI : 0.958→0.767	
847990	카 에어컨 등 (수입 주력)	세계	한국(-0.205→-0.035), 중국(-0.788→-0.606), 전북(-0.334→-0.793)	한국, 중국 수입특화 약화 전북 수입특화 심화 일정 기간 한국의 수출증가 전망
		한·중	한국 TSI : 0.973→0.747	
870600	엔진을 갖춘 샤시 (수출 주력)	세계	한국(0.705→0.973), 중국(-0.404→0.740), 전북(1.000→0.998)	한국, 전북 수출특화 강화 및 유지 중국 수출특화 전환 향후 한국, 전북 수출감소 전망
		한·중	한국 TSI : 1.000→0.991	
870839	기타 제동장치와 부품 (수입 주력)	세계	한국(-0.188→0.145), 중국(0.681→0.192), 전북(-1.000→-0.757)	한국 수출특화 전환 중국 수출특화 약화 향후 한국의 수출증가 전망
		한·중	한국 TSI : -0.123→0.133	
870840	기어박스 (수출, 수입 주력)	세계	한국(-0.969→-0.789), 중국(-0.472→-0.922), 전북(-1.000→-0.254)	한국, 전북 수입특화 약화 중국 수입특화 심화 전북 수출 증가 전망
		한·중	한국 TSI : -0.998→0.910	
870850	구동차축 (수입 주력)	세계	한국(0.429→0.416), 중국(-0.707→0.072), 전북(-0.499→-0.802)	중국 수출특화 전환 전북 수입특화 심화 향후 한국의 수출 점차 감소 전망
		한·중	한국 TSI : 0.018→0.683	
870870	로드휠 (수출, 수입 주력)	세계	한국(0.615→0.724), 중국(0.793→0.885), 전북(0.754→0.778)	한국, 중국, 전북 수출특화 심화 향후 한국 및 전북 수출 점차 감소 전망
		한·중	한국 TSI : -0.916→0.065	
870880	속 압쇼바 (수출 주력)	세계	한국(-0.415→0.575), 중국(-0.585→0.463), 전북(0.980→0.991)	한국, 중국 수출특화 전환 전북 수출특화 강화 향후 한국 및 전북 수출 점차 감소 전망
		한·중	한국 TSI : 0.627→0.910	
870899	엔진 미부착 샤시 (수출, 수입 주력)	세계	한국(0.661→0.816), 중국(-0.625→0.035) 전북(0.184→0.906)	한국, 전북 수출특화 강화 중국 수출특화 전환 일정 기간 한국, 전북 수출증가 전망
		한·중	한국 TSI : 0.728→0.880	

주 : 품목 명에서 수출 혹은 수입 주력은 2006년 기준 전북의 수출 및 수입액이 100만 불 이상을 의미

□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전북의 주력 수출품목인 7 개 품목 중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수출특화지수 감소,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 수입특화 심화)되고 있는 품목은 기어박스(870840) 1개 품목에 지나지 않음

- 이는 이들 수출 주력 품목에서 향후 중국과의 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중국 내에서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되어 한국 및 전북의 자동차 부품 수출이 둔화 혹은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보다 구체적으로 전북의 7대 수출 주력품목 중에서 엔진부품, 엔진부착 샤프트, 로드휠, 속 압쇼바 등 4개 품목은 향후 대 중국 수출이 둔화 혹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기어박스는 향후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대할 수 있는 품목으로 예상됨. 그리고 차량용 기타 기계와 엔지 미부착 샤프트는 일정 기간 동안 중국에 대한 수출이 유지 혹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북의 경우 자동차 부품 수출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56%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북경 현대자동차의 현지 부품조달비율 확대, 그리고 중국의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자동차 부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3. 4 한국 및 전북의 대 중국 진출 유망 품목

- 앞서 분석한 한국 및 전북과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 수출경쟁력 변화 추이를 토대로 향후 한국과 전북의 중국 진출 유망 품목을 추론하여 볼 수 있음
- 한국 및 전북의 입장에서 수출경쟁력(수출특화)을 갖추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수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수입특화) 품목들이 유망 진출 품목이 될 것임
 - 한국 및 전북의 수출특화품목은 수출특화 강화 품목, 수출특화 약화 품목,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된 품목임
 - 중국의 수입특화품목은 수입특화 심화 품목, 수입특화 약화 품목,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된 품목임

□ 이를 기초로 한국 및 전북의 기존 수출특화품목, 그리고 중국의 수입특화품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표 2-24> 수출입특화 항목

수출특화			수입특화(중국)	
형태	품목(한국)	품목(전북)	품목	형태
수출특화 강화	841330, 851150, 851190, 851290, 870600, 870790, 870860, 870870, 870894, 870899	851190, 870790, 870870, 870880, 870899	848410, 870829, 870840, 940120	수입특화 심화
수출특화 약화	842131, 851120, 851140, 851240, 870710, 870810, 870850, 870891, 870892, 870893, 871690	842123, 842131, 870600, 870891, 870892	732010, 732020, 841330, 842131, 847989, 847990, 851290, 870810, 870894	수입특화 약화
수입특화 →수출특화	851230,870839, 870880,910400, 940120	840999,870829, 870860	851110	수출특화 →수입특화

주 : 굵은 글씨체는 중국의 수입특화품목이면서 한국 및 전북의 수출특화품목에 해당

□ 한국의 대 중국 진출 유망 자동차 부품 품목

- 내연기관 펌프(841330), 조명 또는 신호용 기기(851290), 핸들, 운전대 및 운전박스 (870894), 공기여과기(842131), 범퍼와 부분품(870810), 시트(940120)
- 상기 품목 중 한국의 경우 수출특화가 약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수입특화가 약화되어 수출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기여과기(842131)와 범퍼 및 그 부분품(870810)의 경우 수출보다는 중국 현지 생산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전북의 대 중국 진출 유망 자동차 부품 품목

- 수출경쟁력 변화 추이로 보았을 때,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의 중국 진출 유망 품목은 공기여과기(842131)와 에어백(870829)으로 제한됨
- 전북의 경우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되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수입특화가 심화되고 있는 에어백은 수출이, 그리고 전북의 수출특화가 약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수입특화가 개선되고 있는 공기여과기는 현지 생산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그러나 이 두 품목 모두 기존에 전북의 생산 및 수출기반이 약해 자동차 부품 주요 수출품목에는 해당하지 않음

4. 요약 및 제언

- 전북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부품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현대자동차의 중국 진출 이후 급격한 신장세를 나타내어 자동차 부품이 전북지역의 대 중국 수출 주력품목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중국 현지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현지 부품 조달 확대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한국 전체에 비해 전북지역의 경우 수출 감소세가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전북의 자동차 부품 수출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지역 및 특정 품목에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 2006년 기준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5.9%에 달함
 - 차량용 기타 부품(870899), 로드휠(870870), 속 압쇼바(870880) 등 3대 주요 부품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의 94.3%를 차지

- 무역특화지수로 살펴본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출경쟁력은 2000년 0.124에서 2006년 0.763으로 변화되어 수출특화의 정도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동 기간 동안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은 12개 품목에 지나지 않는 반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은 20개 품목에 이른다. 이는 전북의 자동차 부품 수출이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 1998~2006년 기간 동안 중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1998년 -0.632에서 2006년 -0.220으로 변화되어 여전히 수입특화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동 기간 중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이 30개 품목이나 되어 중국의 자동차 부품산업이 점차 수출산업화 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전북의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경쟁력을 중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살펴볼 경우 전북의 주력 수출품목인 7개 품목(연간 수출액 100만 불 이상) 중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은 기어박스(870840) 1개 품목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품목들의 경우 모두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전북의 자동차 부품 수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7대 수출 주력품목 중 수입특화의 정도가 약화되고 있는 기어박스는 중국의 수입특화 심화에 따라 향후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대할 수 있는 품목으로 예상되며, 차량용 기타 기계와 엔진 미부착 샤프트는 일정 기간 동안만 중국에 대한 수출이 유지 혹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43개 전체 품목으로 분석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도, 전북이 현재 수출특화의 상태에 있고 중국은 현재 수입특화의 상태에 있어 향후 중국 진출이 유망한 품목은 공기여과기(842131)와 에어백(870829) 2개 품목으로 제한됨. 그러나 이들 두 품목의 경우 모두 도내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은 품목들임

-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전북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향후 대 중국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전환(장기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되면서, 전북 소재 업체들의 경우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7대 수출 주력품목 중 향후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엔진부품, 엔진부착 샤프트, 로드휠 및 속 압쇼바 제조업체들이 이에 해당

- 이에 따라 전북이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예상되는 이와 같은 도전을 극복하고, 자동차 부품산업을 지역의 전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정책개발 노력이 요구됨

- 소수의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전북 자동차 부품산업의 저변을 확대
 - 전북의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3대 핵심품목(엔진 미부착 샤프트, 로드휠, 속 압쇼바)이 자동차 부품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4.3%에 달함

 - 만약 연간 수출액이 100만 불을 초과하는 7대 수출 주력품목으로 확대할 경우, 이들 7대 주력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9.3%를 차지함

 - 중국의 수입특화가 유지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품목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유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유치의 확대를 위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적 기업유치지원제도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중 FTA 추진의 기회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다국적 자동차부품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

□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한 시장 다변화 노력이 필요

- 2006년 전북의 자동차 부품 수출액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5.9%에 달함
- 2006년 한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6.1%임을 감안하면,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전북의 중국 의존성은 매우 심한 편임
- 향후 중국의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에 따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점차 감소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수출마케팅이 필요

□ 중국 자동차 부품산업과의 경합관계 심화에 대비하고 보완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구조를 확립

- 향후 중국과의 경합관계가 확대·심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중국 자동차 부품산업과의 산업 내 분업체제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전북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구조를 확립
- 중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확대·발전에 편승할 수 있는 1차 부품 및 부품소재 분야의 중점 육성 필요

□ 중국 내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 및 현지 부품업체와의 협력 확대

- 중국 현지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자동차 부품 현지 조달비율 상승에 따른 대 중국 수출 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한국 및 전북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중국 현지생산을 위한 중국 진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현지 시장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
- 또한 전북의 자동차 부품 산업구조의 개선이 대 중국수출 확대와 직접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도 중국내 완성차 메이커 및 현지부품업체와의 협력관계 확대가 필요

전북의 대중국 자동차 부품 교역경쟁력 분석

<표 2-25> 한국의 자동차 부품 품목별 수출 추이

Cod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732010	3,287	2,346	2,615	2,339	1,730	1,554	1,192
732020	2,674	2,615	3,374	4,348	5,248	6,581	10,438
840999	84,522	105,346	132,144	173,400	227,766	339,438	408,000
841330	377,155	347,693	381,570	466,533	572,516	515,123	439,557
842123	53,449	49,529	57,577	53,243	50,792	42,877	43,377
842131	17,232	20,879	26,248	27,373	34,210	33,327	35,325
843120	25,540	22,125	19,661	21,017	30,558	29,662	36,506
847989	786,078	658,974	758,505	991,735	1,645,047	1,777,498	2,061,709
847990	303,978	251,555	294,036	383,904	589,827	760,323	876,525
848410	5,174	6,176	7,549	12,055	16,169	22,068	20,125
848590	45,150	35,648	34,802	45,619	83,868	61,864	85,664
851110	1,089	1,169	1,427	1,927	281	201	168
851120	12,528	15,455	20,740	26,429	16,684	20,468	25,846
851130	1,438	2,987	9,310	9,165	9,518	5,837	5,073
851140	59,401	64,539	73,044	83,125	92,430	84,695	41,938
851150	13,516	12,584	10,076	6,602	11,777	9,745	18,434
851180	940	147	155	108	1,244	1,266	1,800
851190	39,233	54,060	59,661	53,729	66,193	108,216	130,838
851230	421	1,014	1,255	2,737	3,345	10,694	11,160
851240	7,097	9,332	10,256	18,736	21,249	18,583	13,675
851290	6,760	4,889	18,667	49,578	48,953	70,632	96,413
870600	11,352	22,100	5,617	23,483	50,429	66,275	37,737
870710	1,383	2,043	3,660	3,842	4,191	554	1,247
870790	33,655	13,755	19,542	14,131	3,058	935	1,832
870810	6,792	5,893	7,209	6,362	9,446	10,254	13,012
870821	1,130	959	1,227	3,896	12,376	25,659	27,435
870829	165,591	188,045	239,750	238,001	326,926	427,007	246,921
870831	799	200	122	46	46	1,476	65
870839	59,891	62,516	94,366	132,357	193,301	253,140	335,693
870840	9,005	4,376	28,648	48,545	67,036	119,947	91,804
870850	17,368	18,513	24,950	37,194	46,067	61,569	59,932
870860	5,604	8,748	7,719	8,955	18,433	25,187	21,971
870870	121,254	142,674	186,406	231,783	227,240	257,485	294,616
870880	6,331	7,755	11,061	24,344	33,149	34,092	34,140
870891	16,451	20,845	13,810	17,052	20,432	22,730	28,705
870892	20,121	18,105	20,930	25,849	37,370	74,736	85,550
870893	52,529	48,348	54,933	65,068	88,701	102,635	128,086
870894	23,684	20,668	36,057	49,009	61,666	113,054	162,439
870899	1,239,218	1,319,993	1,561,118	2,805,999	4,129,123	6,189,986	7,927,721
910400	178	391	1,105	2,937	1,912	1,295	1,331
940120	984	1,331	699	8,188	18,935	14,415	9,722
합계	3,639,982	3,576,320	4,241,601	6,180,743	8,879,242	11,723,083	13,873,722

전북의 대중국 자동차 부품 교역경쟁력 분석

<표 2-26> 중국의 자동차 부품 품목별 수출 추이

HS_CD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732010	8,162	10,074	11,605	11,690	18,268	18,101	24,081	32,895	38,989
732020	4,667	5,402	5,687	5,100	7,639	8,669	16,461	29,588	40,610
840999	72,329	97,731	150,538	151,971	154,123	149,464	285,372	405,889	592,168
841330	7,809	6,159	5,894	16,778	14,902	23,151	24,838	56,870	93,430
842123	4,314	5,251	6,358	10,921	13,390	35,927	56,208	94,180	144,883
842131	4,885	4,236	3,983	4,586	4,670	9,885	15,065	16,515	22,357
843120	9,961	20,039	31,643	36,368	41,031	56,694	78,621	118,610	176,827
847989	81,757	117,433	92,603	137,082	172,580	282,396	434,056	576,825	649,092
847990	23,845	29,076	31,084	43,299	42,568	61,046	80,917	145,101	191,471
848410	9,342	22,676	33,847	32,373	34,338	39,235	45,124	56,716	62,775
848590	23,757	24,076	39,953	46,365	51,911	83,550	105,190	99,936	138,314
851110	9,973	10,074	15,345	16,584	17,804	20,130	25,374	22,929	28,461
851120	922	1,543	3,727	3,398	2,048	5,125	9,047	14,033	15,864
851130	12,313	23,681	35,896	30,485	39,569	51,584	63,731	72,686	88,262
851140	5,919	8,745	14,371	18,473	24,197	38,091	59,792	85,505	131,522
851150	5,632	4,480	5,077	5,699	14,363	18,050	24,807	48,526	68,918
851180	2,973	2,463	2,633	3,770	6,630	13,828	15,825	13,934	20,016
851190	13,029	22,724	32,041	36,583	56,519	64,764	88,279	114,961	136,527
851230	2,450	2,961	3,456	3,542	8,461	16,154	27,561	43,602	74,195
851240	3,668	5,188	7,036	10,820	14,489	24,318	37,255	38,532	61,331
851290	8,884	12,149	16,787	16,338	26,967	39,822	40,409	65,222	96,281
870600	2,673	2,520	6,365	8,906	17,439	21,772	20,852	51,671	55,082
870710	115	29	35	116	103	71	1,242	4,467	15,230
870790	2,872	2,377	2,123	1,684	1,515	2,664	4,754	8,476	12,756
870810	8,060	8,875	11,736	12,203	18,100	18,293	33,624	46,413	59,741
870821	491	2,055	3,749	5,634	11,170	26,329	39,180	49,948	47,476
870829	24,958	58,062	127,883	136,148	188,912	249,059	433,360	687,097	968,357
870831	27,611	27,054	44,795	70,979	92,529	126,328	173,228	215,630	243,213
870839	128,986	193,225	222,021	253,346	338,709	399,233	611,254	867,282	1,150,513
870840	3,682	16,035	28,530	22,903	32,712	29,545	35,871	45,645	81,557
870850	2,433	3,053	4,050	8,663	6,054	7,909	38,061	28,331	45,282
870860	10,445	16,949	21,796	22,272	21,229	50,514	122,869	159,171	197,130
870870	88,179	131,142	220,007	295,923	408,664	562,214	973,605	1,569,792	2,260,541
870880	1,379	4,830	8,213	10,150	23,792	43,164	72,967	135,812	175,196
870891	23,254	29,146	36,244	48,746	63,675	80,541	108,079	146,958	213,855
870892	1,996	5,014	9,291	13,031	20,628	31,962	66,658	107,121	158,775
870893	17,298	21,586	26,428	35,689	50,105	62,614	111,433	212,926	245,663
870894	2,792	5,464	10,040	7,013	10,190	22,037	46,831	103,202	144,550
870899	183,827	256,445	346,529	407,897	552,783	704,809	1,534,812	2,194,183	2,857,408
870990	1,903	2,213	2,671	3,391	3,727	4,164	2,097	3,711	12,056
871690	30,703	62,411	94,708	111,013	145,129	220,233	371,359	530,576	699,596
910400	2,333	2,344	3,927	2,619	4,399	6,229	5,482	6,802	10,704
940120	926	2,747	5,178	5,003	9,419	18,359	34,655	50,323	67,962
합계	883,507	1,289,737	1,785,883	2,125,554	2,787,450	3,748,027	6,400,286	9,378,592	12,594,936

전북의 대중국 자동차 부품 교역경쟁력 분석

<표 2-27> 전북의 자동차 부품 품목별 수출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732010	0	0	0	1	6	4	0
732020	0	0	0	16	5	0	0
840999	276	87	30	240	621	3,644	3,318
841330	205	187	25	8	101	-	2
842123	117	292	276	104	118	119	36
842131	29	272	285	203	143	193	96
843120	0	1	0	0	0	0	0
847989	4,532	19,751	4,056	6,230	2,182	5,390	6,597
847990	741	567	681	629	628	412	291
848410	199	588	167	50	13	4	-
848590		1	9	-	14	-	
851110	0	0	0	0	1	0	0
851120	0	0	0	0	0	0	0
851130	0	0	0	0	0	0	0
851140	0	0	0	0	7	0	0
851150	0	0	0	0	0	0	0
851180	0	0	0	0	0	0	0
851190	0	0	0	0	0	2	7
851230	0	0	0	0	0	0	0
851240	0	0	6	0	0	0	0
851290	0	0	0	0	0	0	0
870600	1,466	2,248	41	19,313	6,598	1,304	2,023
870710	4	0	0	35	0	0	0
870790	8,396	6,674	17,372	13,203	2,851	888	645
870810	16	7	7	4	0	0	0
870821	0	0	0	0	0	0	0
870829	14	16	19	82	48	411	369
870831	0	0	0	0	0	0	0
870839		7	50	84	17	30	398
870840			29	849	3,403	17,992	7,316
870850	982	908	2,821	1,517	952	0	166
870860		78	1	168	0		13
870870	6,339	6,468	16,929	27,521	32,177	38,987	51,133
870880	3,456	3,367	6,250	16,842	18,984	26,391	23,829
870891	1	1	2	1	3	0	0
870892	1,667	880	1,287	1,145	608	449	367
870893	0	2	0	0	0	0	64
870894				0	53	33	77
870899	4,295	6,134	7,224	384,103	469,177	453,440	286,846
870990	0	0	0	50	0	0	0
871690	1	0	0	14	0	0	0
910400	0	0	0	0	0	0	0
940120	0	0	2	11	0	0	0
합계	32736	48536	57569	472423	538710	549693	383593

주제 3

전북의 대 중국 기계·자동차 수출 품목 선정

• 발표자 : 이 송 인 박사 (전략산업기획단)

1. 대 중국 수출품목 선정의 배경
2. 대 중국 유망 수출품목 선정절차
3. 전북 자동차 부품의 대 중국 유망 수출품목

전북의 대중국 기계·자동차 수출품목 선정

1. 대중국 수출품목 선정의 배경

- 중국은 금후 세계 최대의 제조업 생산 및 수요처로 부상이 예상되므로 세계 제조업 공장으로서 핵심 부품·소재의 공급능력은 취약한 중국을 겨냥한 부품·소재 수출전략의 마련이 필요

- 최근 부품·소재의 수요원으로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음.
 - 중국은 현재 노동집약적인 범용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 이들 조립형 완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부품·소재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함.
 - 중국 제조업 매출 증가율 5대 품목(전자/통신, 철강, 수송 장비, 일반기계, 화학원료 산업)은 대부분 중화학공업으로서 지속적인 부품·소재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소비구조 고도화와 함께 2010년경, 중국은 세계 3대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연간 1천만대 생산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림픽과 동북지방 재건 등의 특수로 인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로 건설기계 등 관련 자본재의 부품·소재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다.

- 한·중·일의 국제 분업구조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부품·소재 분야를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요구됨.
 - 중국의 제조분야 경쟁력과 한국의 부품·소재 기술, 일본의 하이테크 기반 원천기술 역량은 한중일 간의 효율적인 분업구조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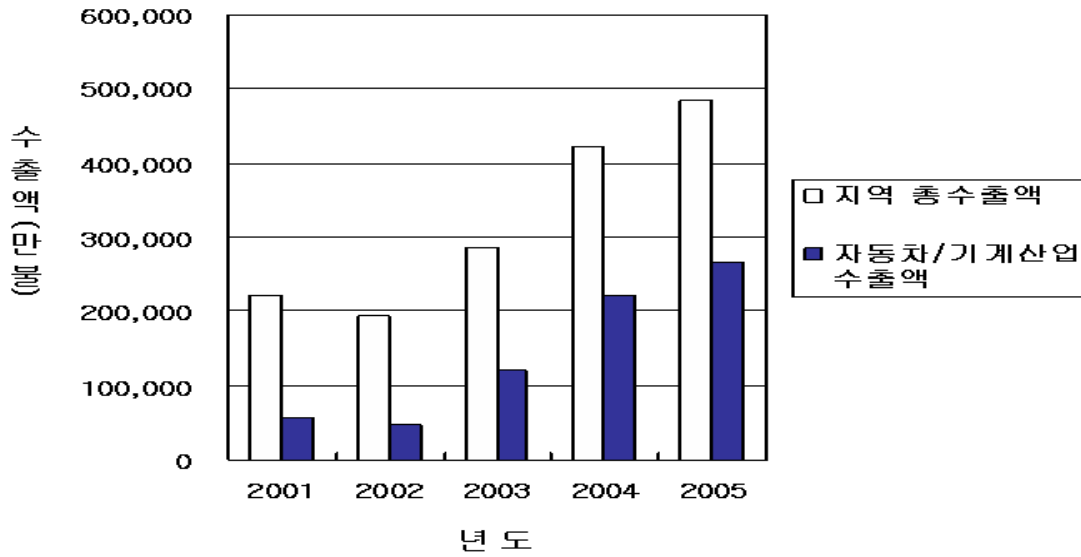
- 특히 한·중 관계는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부품·소재를 통해 상호간 Win-Win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중국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어 한국은 물론 선진국과의 품질경쟁력 격차가 더욱 좁혀질 것으로 예상
 -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의 원가 및 기술경쟁력의 제고가 요구

 - 전북의 경우에도 지역적 특화성과 우위성을 바탕으로 중국의 조립산업이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일본과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부품·소재 품목을 선정하여 적극 육성하는 것이 요구됨.

- 중국은 전북의 제 1의 수출국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특히, 자동차 관련 품목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
 - 지역의 전체 수출액에서 기계·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50% 이상으로서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있음.
 - * 자동차(부품)·기계 산업의 수출기여도 : 2001년(26%), 2003년(42%), 2005년(55%)

 - 그러나 '03년 95%의 성장을 정점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 내 현지생산능력의 급속신장으로 자동차부품 수출의 급감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림 3-1] 전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 산업 수출동향

- 자동차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해 지역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핵심 부품·소재의 지역 내 조달체제를 형성시키고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북경·염성과 상해에 각각 입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와 GM대우자동차는 현지에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글로벌 기지화하고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중국 내 조달을 강화하는 등 점차 현지완결형의 투자체제를 구축하려는 추세에 있어 전북 내 자동차부품업체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물류비가 가장 적게 소요되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핵심부품의 경우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한국내 소싱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범용부품 등은 현지에서 조달받도록 하는 분업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함.

전북의 대중국 기계·자동차 수출품목 선정

<표 3-1> 전북지역의 기술혁신지원기관 및 주요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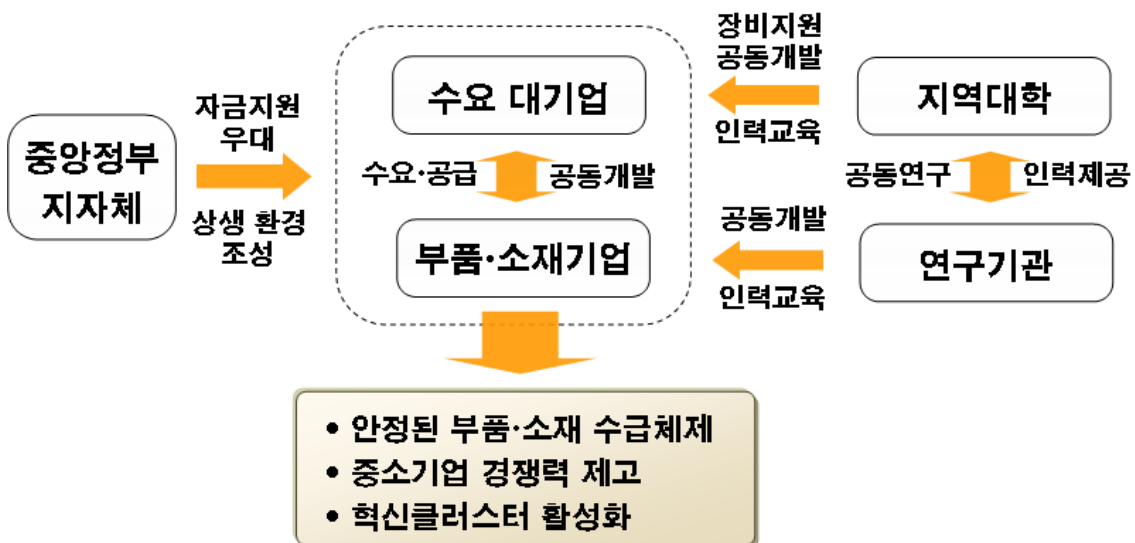
사업명		센터명, 주관기관	사업 기간 (년)	사업비 (국비) <억원>	사업분야	관련기관
지역 전략 산업 진흥 사업	지역산업기반 구축사업	-(재)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재)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자동차부품단지지정및집적화	02~07 02~07 02~07	345 235.3 323.3	자동차부품 기계 자동차부품	산자부,지자체 산자부,지자체 산자부,지자체
	전북전략산업 기획단 운영사업	-(재)전북테크노파크	02~07	47.7	전략산업 정책기획	산자부,지자체
	지역산업기술 개발사업	-중점·공동기술개발사업	03~07	128	자동차부품/ 기계	산자부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	-기계산업리서치센터확장 -핵심기능기계부품·소재실용화사업	05~07 06~08	38.3	기계 기계	산자부,지자체 산자부,지자체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	군산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	05~08	163 (06까지)	자동차부품/ 기계	산자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재)전북테크노파크	03~09	250	전략산업	산자부,지자체
지역 기술 혁신 센터	TIC	-자동차부품/금형 지역기술혁신센터(전북대) -자동차새시부품 지역기술혁신센터(군산대) -농기계부품개발 및 생산 지역기술혁 신센터(전주대)	99~04 99~04 02~06	49.9 45 45.8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기계	산자부,전북대 산자부,군산대 산자부,전주대
	RRC	메카트로닉스 연구센터(전북대)	98~07	45	기계	산자부,전북대
	RIC	차세대방사선산업기술지역혁신센터 (원광대)	06~15	70	신재생에너지	산자부,원광대
	지역혁신특성화 사업	자동차/기계부품 기술·공정혁신과 제 품화 사업(전북테크노파크)	04~07	31.8	자동차부품/ 기계	산자부,지자체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NURI)		기계·자동차산업기술교육혁신사업단 (NUMATE, 전북대)	04~08	50	자동차부품/ 기계	교육부
		신재생에너지융합기술 인력양성사업단(e-REST, 전북대)	05~09	50	신재생에너지	교육부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	첨단제조기술혁신산학협력사업단 (AMTI, 전주대)	04~08	277	자동차부품/ 기계	산자부
정보기술연구센터 (ITRC)		-Vehicular Infortronics 연구센터(전북 대)	03~09	29.75	자동차정보· 전자부품 자동차정보· 통신부품	정통부 정통부
		-LBS 응용연구센터(전북대)	03~09	29.75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사업	- 나노기술집적센터(전자부품연구원)	04~09	250	나노기술 (장비, 공정)	산자부,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연료전지(DMFC)핵심기술연구센터	05~10	45	신재생에너지	산자부, 지자체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대학, 자동차 및 기계 관련학과 1,000여명 인력 배출 ○ 해당 교수진 90여명 재직 ○ 군산, 익산, 전북직업전문학교 및 4개 학원 ○ 7개 종합고등학교, 9개 공업계열 고등학교 				

- 이러한 산업경제적 환경 하에서 전북지역은 환황해권의 지경학적 우위를 바탕으로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의 적극적 육성을 통해 부품·소재 클러스터의 형성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소 부품기업들이 핵심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전북은 자동차부품 및 기계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향후 유망분야인 지능형·친환경 기계·자동차 산업의 성장기반을 구비해 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
 - 다음 표는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한 전북지역의 기술혁신지원기관 현황과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것임.
 - 전북 내 부품·소재 기업들의 적극 육성을 통해 이들 기업들이 글로벌 부품·소재 조달체제에 편입할 수 있다면 자동차, 조선, 정보통신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국가주력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하므로 획기적인 지역산업 재편과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전북의 대다수 기계·자동차 부품기업들은 모기업의 설계도면을 대여 받아 단품위주로 단순조립 또는 임가공 하는 수준으로서 부품의 수요 대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임. 따라서 R&D 역량 등 자주적인 혁신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소싱 추세에 대응하여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것이 필요함.
 - 중국 자동차산업의 경우, 한국과 범용기술의 경우, 1~2년, 첨단기술의 경우, 5~6년의 격차를 갖고 있으나 2010년경 범용기술 격차는 소멸되고 첨단기술은 1~2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산업연구원, 한중 산업구조 고도화와 양국간 협력방향 국제 세미나, 2006, 11)
 - 또한 최근 체결된 한미 FTA로 인해 전반적으로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 효과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품·소재의 수입 증가로 경쟁력이 확

보이지 못한 분야는 구조조정과 고용감소 등의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 특히 저부가형 부품·소재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전북의 경우, 급속한 구조조정으
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됨.
 - 주로 범용제품을 생산하는 전북의 기계·자동차 부품·소재 산업이 구조를 고도화
하지 못하면 결국 2-3차 하청수준에서 단순 생산기능만을 담당하는 낮은 가치사
슬로 전락하여 중국의 가격 및 향상된 기술경쟁력에 그대로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전북지역 기계자동차 부품·소재 산업이 글로벌 소싱 체제하에서 중국과의
출혈경쟁을 피하고 지역 주력산업으로서 성장엔진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성과 우위성을 바탕으로 Killer application형 품목을 발굴,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임.
- 또한 수요대기업의 중장기 개발로드맵과 유리된 부품·소재 개발은 무의미하므로
수요대기업-중소 부품·소재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조속한 상용화로 시장선
점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적, 전략적 고려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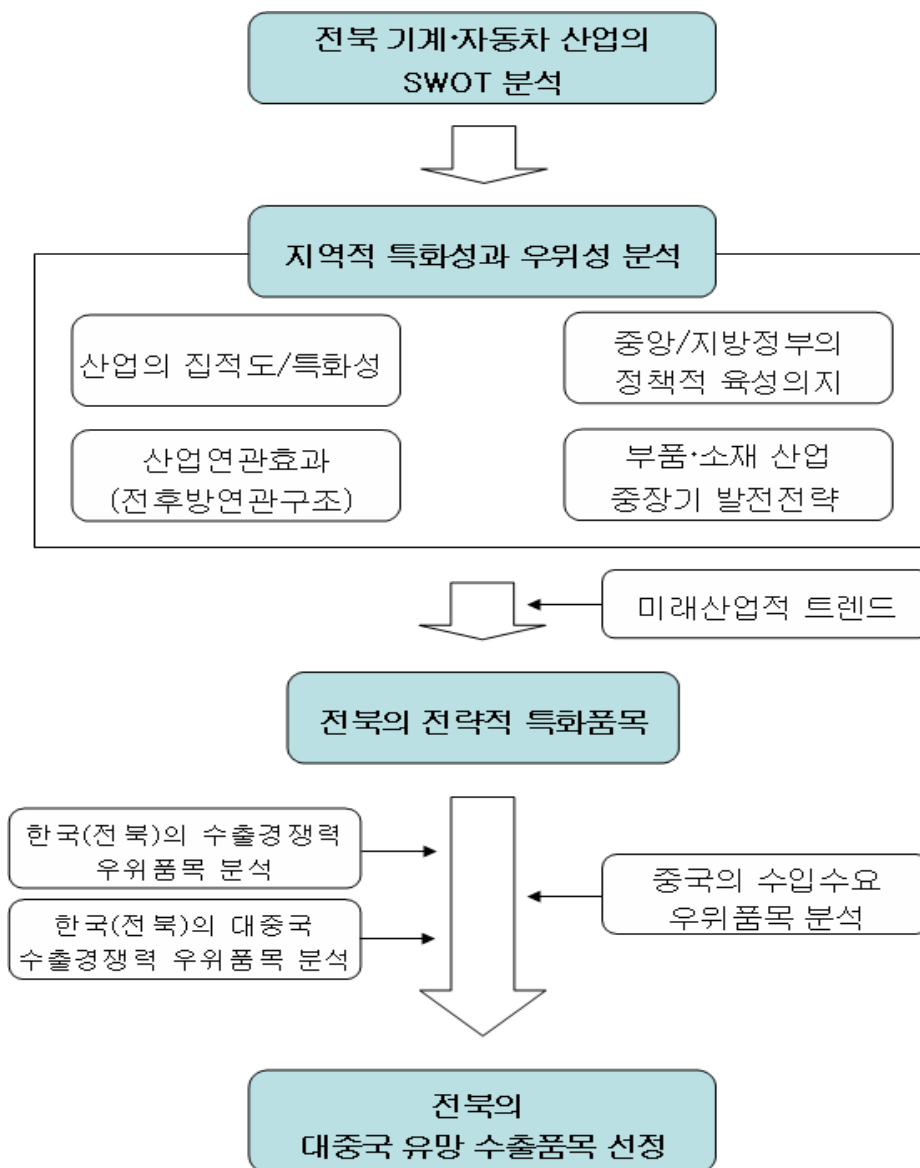


[그림 3-2] 수요대기업 - 부품·소재 기업의 상생협력체제

2. 대중국 유망 수출품목 선정절차

2. 1 대중국 유망 수출품목 선정의 틀

- 다음 그림은 전북 기계·자동차 산업의 지역적 특화성과 우위성 분석을 바탕으로 대중국 유망 수출품목을 선정하는 절차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임.



[그림 3-3] 전북 기계·자동차 산업의 대중국 수출품목 선정 절차

□ 대중국 유망 수출품목을 선정하는 절차는 다음의 3단계로 진행

○ 1단계

- 전북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기계·자동차 산업의 SWOT 분석을 수행
- SWOT 분석에 따른 전략적 방향성을 도출

○ 2단계

-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기계·자동차 산업의 특화성과 우위성을 다음의 6대 항목에 대하여 분석, 도출
- 산업의 집적도 및 특화성 :
 - 전북의 군산~익산~전주·완주~김제·정읍을 광역적으로 연계하는 소위 T자형 벨트 내에 형성된 기계·자동차 산업의 집적화(클러스터) 현황을 분석
 - 수도권 및 동남권 등 기존 집적지와 대비하여 T자형 벨트 내에 형성된 기계·자동차 산업 클러스터의 특화분야와 차별성을 분석
- **산업연관효과** : 원자재 ⇨ 가공 ⇨ 부품·소재 ⇨ 모듈화 ⇨ 완제품의 가치연계 고리를 기계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검토
-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적 육성의지** : 2002년부터 본격 시작된 정부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정책과 최근 지자체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정책적 육성의지를 검토
- **부품·소재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 지역산업발전 로드맵(RIRM)과 첨단 부품·소재 공급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 부품·소재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검토
- 이상 4대 항목의 검토분석 결과와 미래 산업적 Trend를 고려하여 전북의 전략적 특화품목을 1차 선정

○ 3단계

- 한국(전북)의 수출경쟁력 우위 품목과 대중국 우위품목을 분석
- 중국의 수입수요 우위품목을 분석
- 최종적으로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

2. 2 전북 기계·자동차 산업의 SWOT 분석

<표 3-2> 전북 기계·자동차 산업의 SWOT 분석 Matrix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업체의 글로벌 조달 강화 ○ 향후 중국이 세계 제조업 공장으로서 부품·소재 막대한 수요처로 부상 ○ 기존 산업패러다임을 뒤엎는 신기술 분야의 등장으로 블루오션의 신성장 시장 진입가능성 존재 ○ 자동차,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생산 및 투자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 ○ 신성장동력으로서 미래형자동차, 신·재생에너지산업, 고부가원천소재산업의 발전여건을 활발히 조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주력 생산·연구기지로 중국과 인도가 급부상 ○ 유망 부품·소재분야에 대한 선진국의 대규모 투자 확대로 경쟁 격화 ○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 및 기계 분야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육성 경쟁 심화 ○ 중국 황해연안의 대규모개발, 충청권 행정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역량의 분산과 유출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환황해권의 신경계 중심지로서의 지정학적 발전 잠재력 확보 ○ 최근 지역내로의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로 장기 성장기반 확충 중 ○ 풍부한 양질의 산업용지 보유 ○ IT, NT,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조성으로 기술융합 기반이 양호 ○ 지역 내에 기계·자동차분야의 풍부한 부품·소재 수요처 존재 ○ 기계·자동차에 특화된 혁신지원기관 및 교육 인프라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기술에 기반한 지식기반형보다는 노동, 도입기술에 의존하는 저부가형 부품·소재 산업이 주종 ○ 지역혁신요소인 지식창출시스템, 인적 자원 인프라의 취약성 ○ 기계·자동차산업 분야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품 및 소재 산업은 구조적으로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R&D 투자규모 - 숙련인력과 기술력 부족 - 해외마케팅 역량 부족

□ SWOT 분석에 따른 전략적 방향성

- 강점과 기회의 활용 (S-O)
 - 하이테크형 부품·소재의 핵심기술 확보로 고부가 시장 선점
 - 환황해 부품·소재 생산-교역-물류거점을 조기 확보
 - 지역 전략산업간의 연계를 통한 융합형 부품·소재 개발 추진

- 강점을 고려한 위협의 극복 (S-T)
 - 기존 주력분야의 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 분야의 전략적 육성
 - 풍부한 산업용지와 지정학적 잠재력을 이용한 핵심기업 적극 유치
 - R&D 및 생산 혁신역량을 확보하고 기업과 연계, 집적화

- 기회를 이용한 약점의 보완 (O-W)
 - 동북아 중심인 환황해 경제권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
 - 핵심 부품·소재 산업체의 유치, 집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혁신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추진
 - 산·학·연 협력체제에 기반한 장소·기업밀착형 클러스터 조성, 연계

- 약점과 위협의 극복 (W-T)
 - 기존 혁신지원기관의 지속적 역량 확충 및 활용 극대화 : 전략적 특화분야의 거점 기관화
 -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효율적인 통합지원체제 구축
 - 인력양성 ⇨ 연구개발 ⇨ 생산 ⇨ 마케팅의 일괄지원 프로세스 운영

2.3 전북 기계·자동차 산업의 특화성과 우위성

2.3.1 산업의 집적도

- 전북지역의 기계·자동차 산업은 군산~익산~전주·완주~김제·정읍을 광역적으로 연계하는 소위 T자형 벨트 내에 관련 대기업 및 중소 부품·소재 업체 600여개가 집적화

*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집적지로 평가(산업연구원)



[그림 3-4] 전북의 기계·자동차 산업의 집적화 현황

□ 조립완제품 및 부품산업의 집적현황

- 전북에 위치한 완성차는 다음 표와 같이 44만 5천대의 연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완성차 전체의 연산능력 458.6만대 기준 약 10%에 상당

<표 3-3> 전북지역 완성차 업체의 연간 생산능력 및 생산량

구 분	생산차종	부 지	연간 생산능력	생산량 (04년기준)	비 고 (KD 수출)
GM대우차 군산공장 (군산시 소룡동)	준중형승용차	370,000평	300,000대	152,770대	190,000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완주군 봉동)	중대형상용차	387,000평	125,000대	50,255대	-
타타대우상용차 (군산시 소룡동)	대형트럭	96,000평	20,000대	4,792대	-
합 계		853,000평	445,000대	207,817대	190,000대

* 자료 : 04년 자동차산업현황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전북의 대중국 기계·자동차 수출품목 선정

- 전북은 2.5 Ton 이상 중대형급 상용(특장)차량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상용(특장)차 생산지임.
- 지역내 자동차 1차 협력업체 82%가 상용(특장)차량 관련 업체임.
- 최소 물류비용으로 전북내 완성차업체에 대형 모듈부품 공급 가능

<표 3-4> 국내 지역별 상용차 생산현황

구 분	현대차 (전주)	타타대우 (군산)	기아차 (광주)	대우버스(부산)
2005년	51,145대	4,657대	2,162대	4,626대
합 계	55,802 (90%)		6,788 (10%)	

* 자료 : 05년 자동차산업현황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승용 및 상용차용 디젤엔진이 GM대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산업기계용 디젤엔진의 경우, 두산인프라코어에서 향후 2009년 생산을 목표로 이전을 준비 중임.
-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국내점유율 및 중국시장 점유율 1위인 건설중장비와 산업차량을 대규모로 생산할 예정이며, 유관 부품업체들의 동반이전이 예상
- 만도에서는 주로 속업쇼바를 포함한 서스펜션 등 현가장치용 부품 및 모듈을 생산하고 있음.
- 알루미늄합금을 이용하여 승용 및 상용차 휠 및 공압 탱크 등 경량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지역 내에 다수 입지
- 농업관련 공공기관(8개)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LS전선 등 총 43개 업체가 포진하여 농기계산업 新 집적지로 급부상 중임.
- LS전선과 함께 동양물산 입지 시 국내 트랙터시장 41% 점유 예상

□ 소재 산업의 집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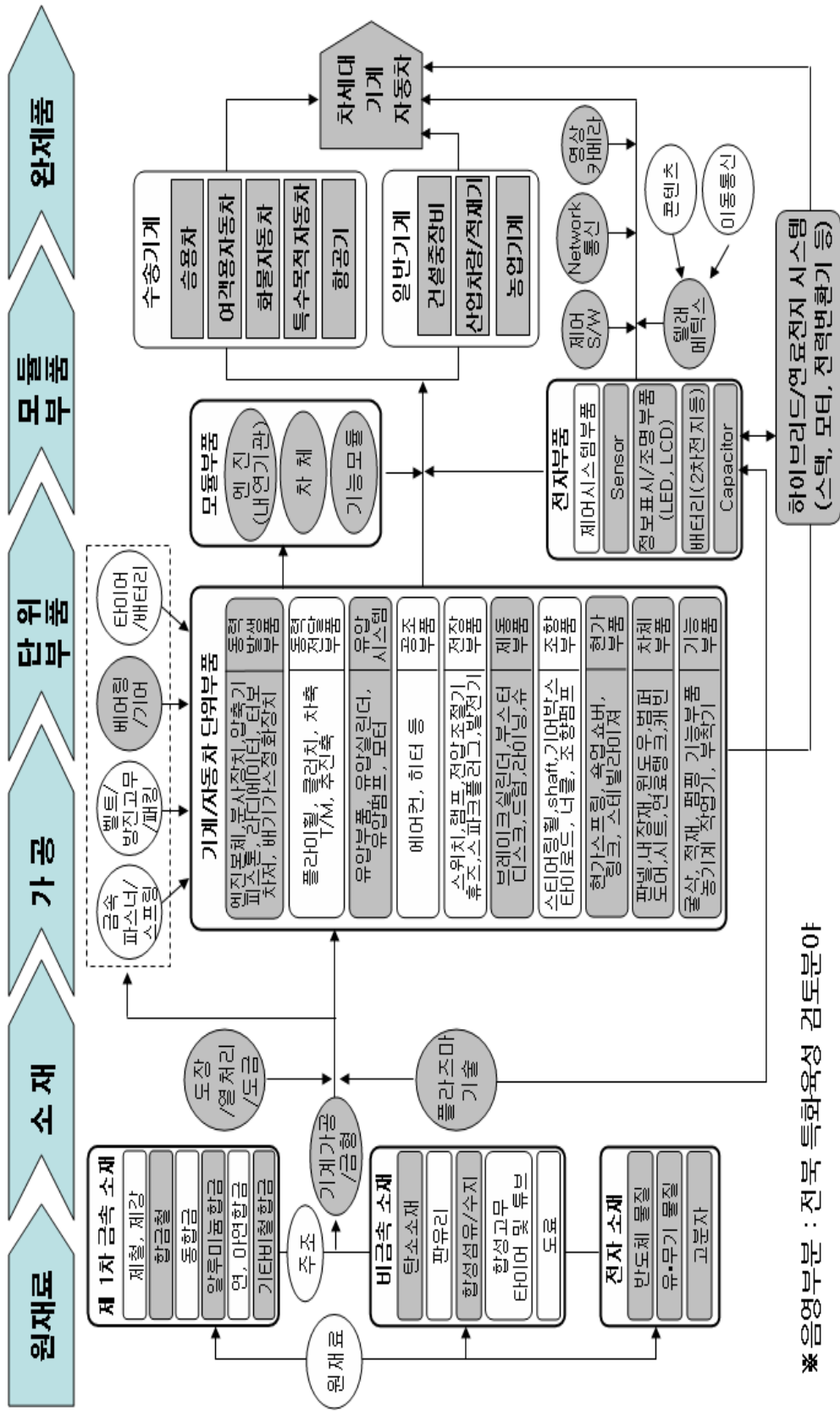
- 최근 전북에서는 탄소기반 소재산업 인프라 구축과 기업의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점, 육성하고 있음.

- (재)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탄소섬유 생산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2007년 9월 완공 예정
- 또한 지역 내에는 탄소소재 관련 기업이 9개 정도 입지해 있으며, 2008년도에 탄소관련 10여개 업체들이 전북지역으로 기업이전을 준비 중이어서 타 지역에 비해 탄소관련 기업집적화가 빠르게 진행 중임.
- 세아베스틸에서는 고기능 수지강판, 칼라특수강판 등을 연간 12만톤 생산하고 있음.
- 지역내 탄소복합소재 및 Al, Ti과 같은 비철합금 소재를 적용한 경량화, 고강도 소재기반 부품이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집중 개발되고 있음.
- 전북지역 내에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등 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없으나, 알루미늄, 티타늄 합금의 성형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혁신형 업체가 약 30여개 존재
-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한 압력용기, 자동차휠, 다이캐스팅, 연료탱크 등과, 티타늄 정밀주조 부품, 기타 마그네슘 등 경량소재를 활용하여 차체제작이 가능한 업체들이 입지
- LS전선과 일진소재를 중심으로 PCB/PDP용 특수동박, 전도성 필름 등 전자부품용 소재를 생산
- 동양제철화학, 대상, 휴비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웨이퍼/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생분해성 수지, 정밀화학 응용소재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능성 ECO 소재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고 있음.

2.3.2 산업 연관효과(전후방 연관구조)

- 전북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기계·자동차 산업의 전후방 산업연관구조를 원재료로부터 부품·소재, 모듈부품, 완제품에 이르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음.
- 여기서 음영부분은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현재 적극 추진되고 있는 첨단 부품·소

- 재 공급기지 조성을 통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하는 분야임.
- 기계·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광범위하며, 최근 세계적인 친환경, 지능화 트렌드에 대응하기위해 전자, 정보, 이동통신,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연관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임.
 - 소재부문의 경우, 기계·자동차의 경량화·지능화에 필수적인 부문으로서 차체, 현가장치 등 지역의 기존 입지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음.
 - 소재로부터 부품을 생산하기위해서는 기계가공/금형, 도장/도금, 열처리, 표면처리 등 고기능성을 부여하기위한 공정 등이 연계체인을 형성
 - 현재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자동차분야의 동력발생장치 일부부품이나 제동, 현가, 차체부품 분야, 향후 산업기계 전문 대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와 관련 부품업체들의 전북 입주 시 생산이 개시될 산업기계용 유압시스템과 관련부품 등은 지역 내 조달체제 구축이 가능함.
 - 동력발생 일부핵심부품, 동력전달, 공조, 전장, 조향분야의 부품은 수도권, 충남권, 영남권으로부터 조달되고 있음.
 - 지능형 자동차 실현의 핵심 분야로서 정보 인식/표시/구동 관련 분야와 차량내 네트워크기술, 영상카메라기술 등은 기존 기계·자동차의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으므로 적극 육성을 통해 전통적 기계기술과 가치체인을 형성시키는 것이 필요함.
 - 최근 자동차산업은 적기조달방식과 모듈생산의 진전으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간의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한 입지결정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모듈부품의 생산이 가능한 1차 모듈업체의 유치노력이 필요
 - 따라서 원재료로부터 부품·소재, 모듈부품, 완제품의 프로세스를 볼 때, 상용차나 특수목적차와 같은 수송기계, 건설중장비 등 산업기계, 농업용 기계, 신재생에너지 기계분야는 타 지역과 차별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대중국 및 글로벌 교역을 선도하도록 핵심 부품·소재 분야의 적극 육성이 필요함.



※ 음영부분 : 진북 특화육성 검토분야

[그림 3-6] 진북의 기계·자동차 분야의 산업연관구조

전북의 대중국 기계·자동차 수출품목 선정

□ 이상과 같은 산업연관구조와 함께 지역경제 측면에서 자동차 관련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타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출품목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전북지역 수출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연구보고서, 2006. 6.
- 기존 산업과 연관성이 높으면서도 생산, 취업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각종 기계산업, 영상·음향기기, 철강제품 등의 산업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표 3-5> 주요 품목별 산업연관효과 분포1

품 목	생산 유발효과	품 목	취업 유발효과	품 목	부가가치 유발효과
자동차엔진 및 부분품	2.596	영상 및 음향기기	29.56	유리제품	75.9
자동차	2.522	기타 섬유제품	19.15	공구 및 철선제품	74.6
열간압연강재	2.516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18.61	편직제 의복 및 장신품	74.3
플라스틱 제품	2.307	광학기기	18.49	기타 철강1차제품	74.1
기타 섬유제품	2.278	농업 및 건설기계	17.57	자동차	72.9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2.247	편직제 의복 및 장신품	17.54	자동차엔진 및 부분품	72.8
농업 및 건설기계	2.241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17.48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72.3
기타 철강1차제품	2.221	자동차엔진 및 부분품	16.76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72.0
편직제 의복 및 장신품	2.217	화학섬유직물	15.98	가정용 전기기기	71.7
가정용 전기기기	2.180	공구 및 철선제품	15.10	기타 섬유제품	71.4
냉간압연강재	2.175	플라스틱 제품	14.64	선박	68.3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2.165	기타 전기장치	14.34	타이어 및 튜브	67.1
합성수지	2.150	선박	14.33	화학섬유직물	67.0
기타 유기화학 기초제품	2.140	자동차	14.11	플라스틱 제품	66.7
공구 및 철선제품	2.128	가정용 전기기기	13.04	농업 및 건설기계	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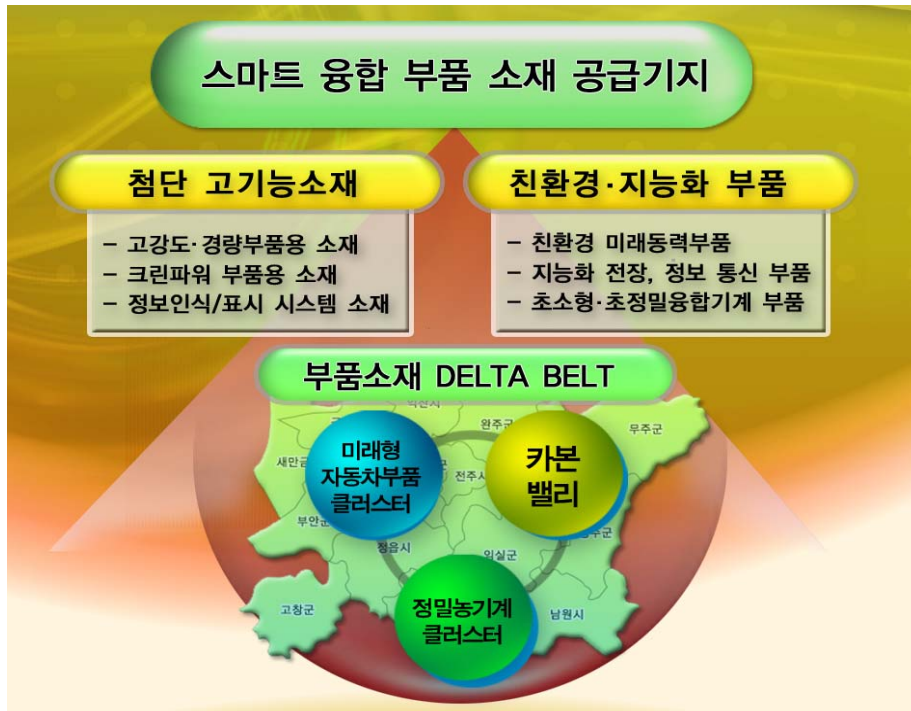
주 : 1) 생산, 취업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순으로 15위까지 나열
 2) 음영부분은 전북지역 주요 수출품목
 3) ○ 는 기존 전북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관성이 높으면서 생산, 취업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산업

2.3.3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적 육성이지

- 정부는 2015년, 자동차산업의 경우, 세계자동차 4강, 기계산업의 경우, 세계 5대 기계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중점육성을 추진

- 특히 부품·소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는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MCT-2010)을 수립, 고시(2001. 7)하고 『부품·소재 발전전략』을 확정('05. 12)한 바 있음.
 - “2010년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달성”의 비전을 통해, 매출 2천억원, 수출 1억불 초과의 중핵기업 300개 육성비전을 제시
 - 다음과 같은 특화분야의 집중육성을 위해 관련 재원을 집중 투입
 - IT, BT, ET 등 첨단산업 부문의 원천 신소재 분야
 - 국가 주력 기간산업 분야의 친환경, 저에너지, 경량 및 고안전성, 지능화 부문의 핵심 부품·소재 분야
 - 한·일, 한·미 FTA 대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부품·소재 분야

-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전라북도는 민선 4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첨단 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위치 : 전북의 군산-익산-전주-완주-김제·정읍을 연계한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약 100만평 규모로 광역 클러스터를 조성
 - 사업기간 : '08년 ~ '17년 (2단계, 10개년)
 - 총사업비 : 1단계 10,817억원(국비 5,791, 지방비 3,802, 민자 1,224)
 - 주요 사업내용
 - 부품·소재 DELTA 벨트 조성 : 3대 거점 특화클러스터 형성
 - 부품·소재 대·중핵기업 및 연구기관의 유치, 집적화
 - R&D, 제조, 비즈니스를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지원
 - 첨단 고기능 소재와 친환경·지능화 부품을 특화 육성



[그림 3-6] 첨단 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사업 기본 개념도

2.3.4 부품·소재 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 전북에서는 “2017년 스마트 융합 부품·소재의 국가거점 공급기지 조성”의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목표와 전략을 추진

- 3대 목표
 - 부품·소재 3대 클러스터(카본, 자동차·기계, 정밀농기계 클러스터) 조성
 - 100대 Global New Leader 기업을 창출, 육성
 - 10개년에 걸쳐 일자리 창출 총 50,000명, 연매출 10조원/수출 30억불 달성

전북의 대중국 기계·자동차 수출품목 선정

○ 3대 전략

- 국가 거점형 클러스터 형성 및 네트워킹에 기반한 혁신공간 조성
- 전략적 기업유치를 통해 규모의 경제화 실현하고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기반인프라를 중점적으로 확충
- 6T 기술과의 융복합화를 지원하고 지역의 R&D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원천기술력을 확보

□ 첨단 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사업을 통해 다음의 분야를 특화육성

<표 3-6> 첨단 부품·소재 공급기지 중점육성분야

구분	분야	세부분야
소재	고강도·경량화 소재	○ 카본 및 카본기반 복합소재, CNT ○ Al, Ti, Mg 합금 소재
	크린파워 소재	○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용 핵심소재
	정보 인식/표시 시스템용 소재	○ 지능형 센서용 핵심소재 ○ 조명 및 디스플레이용 발광소재
부품	친환경 동력시스템용 부품	○ 상용차 및 농기계용 저공해 디젤엔진 부품 ○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용 핵심부품
	지능형 시스템용 부품(정보인식/표시/구동시스템용)	○ 지능형 센서 및 응용부품, 엑추에이터 ○ 영상 카메라 및 응용부품 ○ 기계·자동차 내부 통신네트워크 부품
	초정밀 기계 부품	○ 진공터보응용기계 부품 ○ 나노기반 초정밀 부품
	기반입지부품	○ 경량·능동형 새시, Seat 부품 ○ 산업기계용 기능부품(건설, 차량, 농업용) ○ 부품 모듈화
가공/공정	초정밀 가공 및 고기능화 공정	○ 초정밀 가공 및 공정 ○ 플라즈마 공정 및 응용

□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되는 산업자원부의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침마련의 일환으로 작성된 전북지역산업발전로드맵(JB-RIRM : Jeonbuk Regional Industry Road Map)에서는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에 대한 세부특화분야와 특화유망분야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있음.

- 세부분야 :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기계 부품 소재 분야
- 특화유망분야
 - 고기능·경량 소재 부품 : 4대 세부 유망분야
 - 친환경 부품 : 4대 세부 유망분야

<표 3-7> 전북 지역산업발전로드맵 세부분야 선정결과

세부분야 (특화유망분야)	대상세부사업 분야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기계부품 소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기능·경량 소재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경량 샤시·차체부품 및 모듈 - 탄소 및 탄소복합재 부품 - 경량합금 및 내마모합금 부품 - 고기능·경량부품용 금형 - 고기능 전자제어부품 및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동력부품 - 자동차 재활용부품(리사이클 샤시부품 등) - 친환경 터보기계 부품(무윤활 터보압축기 등) - 청정기술융합 정밀·생산·검사기기

2.3.5 전북 기계·자동차 산업의 전략적 특화품목

- 이상의 산업의 집적도와 특화성, 산업연관효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적 육성 의지, 부품·소재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들을 바탕으로 전북지역 기계·자동차 산업의 특화된 품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3-8> 전북 기계·자동차 산업 및 부품·소재 분야의 전략적 특화품목

구 분	특 화 품 목
완성차 및 조립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 2.5톤 이상 상용트럭, 수송용 트랙터 ○ 10인 이상 수송용 버스 ○ 특장차, 트레일러 ○ 농업용 트랙터, 사출기 ○ 건설기계, 산업차량(두산인프라코어 이전 시)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업쇼버, 서스펜션 등 현가시스템 부품 ○ 프레임, 적재함 등 차체와 샤페 부품 ○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 응용 부품(휠, 압력용기 등) ○ 탄소기반 복합소재(경량·고강도화 차체 및 단위부품) ○ 고분자 소재 적용부품 ○ 수송·산업기계용 유공압 부품 ○ 센서응용 부품 ○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태양전지, 풍력)용 부품 ○ 반도체, LED 패키지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루미늄, 티타늄, 마그네슘 등 경량합금 소재 ○ 동제품, 합금강 및 봉형강 ○ 전자부품용 동박 ○ 합성수지(폴리스틸렌, 폴리카보네이트), 인조섬유 ○ 탄소기반 복합소재, 탄소나노튜브 ○ 정보 인식/표시 시스템용 소재 ○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태양전지, 풍력)용 소재

3. 전북 자동차부품의 대중국 유망 수출 품목

3. 1 한국의 수출경쟁력 우위 품목

□ 다음 <표 3-9>은 2006년 수출액 100만달러를 넘어선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부품 주요 수출입 품목(22개)을 정리한 것임(이문형, 2007)

-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의 대중 수출액이 전체수출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품목은 대중국 수입에서도 가장 많은 42.9%를 나타내고 있음(<표 3-9> 참조).
- 경음기(306.1%), 변속기(302.6%), 조명용 및 신호용 기기 부분품(287.8%), 소음기와 배기관(163.8%), 로드휠 및 부분품(136.1%), 점화용 전기기기(134%), 엔진부품(100.9%)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카쿨러(63.8%), 배전기와 점화코일(53.8%), 점화용 전기기기(82%), 안전벨트(66.1%) 등은 한국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중국시장 집중도가 높은 품목임.
- 안전벨트(282.4%), 경음기(193%), 기타 차체부품(168%), 점화용 전기기기의 부분품(159.8%), 조명용/신호용 기기 부분품(109%) 등의 품목은 대중국 수입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표 3-10>은 중국 자동차부품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나타낸 것임.

- 전반적으로 자동차부품의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액이 수출액의 약 2배를 나타내고 있음.
- 주요 수입품은 차량용의 기타 기계류, 변속기, 기타차체부품 등임.

전북의 대중국 기계·자동차 수출품목 선정

<표 3-9>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부품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달러)

품 목	수 출			수 입			수지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엔진부품(Diesel)	2.0	3.8 (0.08)	100.9	2.1	0.6	112.2	-0.1
차량용의 기타 기계류	38.7	34.2 (1.46)	n.a.	0.2	1.6	n.a.	38.4
카 쿨로(Air Con)	3.6	63.8 (0.14)	79.7	0.1	3.1	n.a.	3.5
배전기와 점화코일	2.7	53.8 (0.1)	n.a.	0.1	1.6	n.a.	2.6
점화용 전기기기	1.5	82.0 (0.06)	134.0	1.5	69.6	70.6	-0.0
점화용 전기기기의 부분품	6.6	5.1 (0.25)	56.9	3.1	8.5	159.8	3.5
경음기	4.5	40.2 (0.17)	306.1	5.1	51.3	193.0	-0.6
조명용, 신호용 기기 부분품	30.6	31.8 (1.15)	287.8	5.4	19.9	109.0	25.2
엔진을 갖춘 샤시(10인 이상 중합차)	7.1	19.0 (0.27)	29.9	0.0	11.0	n.a.	7.0
안전벨트	18.1	66.1 (0.68)	n.a.	9.4	11.1	282.4	8.7
에어백	4.7	35.0 (0.18)	21.8	7.1	9.9	120.6	-2.5
기타 차체부품	113.0	48.4 (4.25)	82.1	34.1	10.3 (10.3)	168.0	79.0
기타 브레이크 부품	54.0	16.3 (2.03)	62.7	40.5	28.0 (12.2)	48.9	13.5
변속기(Gear Box)	29.8	32.5 (1.12)	302.6	1.4	0.2	-21.4	28.4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8.2	13.6 (0.31)	26.3	1.5	6.2	-3.8	6.6
비구동 차축과 부분품	1.2	5.6 (0.05)	84.9	0.2	8.9	21.8	1.1
로드휠 및 부분품	25.8	8.8 (0.97)	136.1	22.6	47.9	37.2	3.2
속압쇼바	9.1	26.7 (0.34)	21.4	0.4	4.6	-6.9	8.7
소음기와 배기관	7.7	9.1 (0.29)	163.8	0.3	2.9	26.2	7.5
클러치와 부분품	5.7	4.5 (0.21)	17.3	8.6	14.5	88.7	-2.9
핸들, 운전대의 운전박스	21.1	13.0 (0.79)	70.4	11.7	26.0	63.5	9.5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2,242.8	28.3 (84.4)	99.8	142.4	18.0 (42.9)	71.6	2,100.4
전체	2,658.3	26.0	80.3	331.7	9.8	52.5	2,326.6

* 주 1 : 비중은 한국의 전세계 수출입에서 대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안은 전체 수출액 중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주 2 : 증가율은 2000~2006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 KOTIS

전북의 대중국 기계·자동차 수출품목 선정

<표 3-10> 중국 자동차 부품의 주요 수출입 품목(2006년)

(단위 : 백만달러, %)

품 목	수 출			수 입			수지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발전기(Alternator)	66	1.0	55.1	58	0.48	34.1	8
속압쇼바	175	2.66	66.5	64	0.53	12.7	111
브레이크 라이닝	243	3.69	32.6	67	0.55	43.7	176
시동 전동기	132	2.0	44.6	70	0.58	21.2	62
범퍼와 부분품	59	0.9	31.1	71	0.58	21.4	-12
배전기와 점화코일	75	1.14	14.4	73	0.6	40.4	2
기타 작업트럭의 부분품	177	2.69	33.2	77	0.63	12.8	100
점화용 전기기기의 부분품	106	1.61	27.0	82	0.68	16.8	24
소음기와 배기관	159	2.41	60.5	91	0.75	41.2	68
액체여과기	145	2.2	68.4	92	0.76	37.2	53
비구동 차축과 부분품	197	2.99	44.3	98	0.81	25.7	100
트레일러, 기타 차량 부분품	700	10.62	39.6	103	0.85	44.7	596
오일 썰	138	2.09	23.0	115	0.95	22.3	23
조명용, 신호용 기기 부분품	96	1.46	33.8	119	0.98	26.9	-23
클러치와 부분품	246	3.73	45.0	123	1.01	47.8	123
로드휠 및 부분품	2,261	34.3	47.4	137	1.13	32.5	2,123
가스켓	63	0.96	10.8	146	1.2	23.7	-83
코일 스프링	41	0.62	38.8	169	1.39	29.0	-129
내연기관 펌프	93	1.41	58.5	239	1.97	22.9	-146
핸들, 운전대와 운전박스	145	2.2	56.0	344	2.83	34.3	-199
기타 차체부품	796	12.08	36.1	1,951	16.06	42.1	-1,155
변속기	82	1.24	19.1	2,017	16.61	71.4	-1,936
차량용의 기타 기계류	397	6.02	41.8	5,839	48.07	16.8	-5,443
전체	6,591	100	30.3	12,146	100	17.5	-5,556

- 다음 <표 3-11>는 2000~2006년 동안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대세계 수출실적을 분석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A)과 중국의 수입수요 우위품목(B), 한국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확보품목(C)을 도출한 것임.
- 한국의 대세계 수출경쟁력 우위품목(A) : HS 10단위 기준 62개 품목 중 품목당 한국의 대세계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들 중 2000~200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30% 이상인 품목
 - 중국의 수입수요 우위품목(B) : HS 8단위 기준 53개 품목 중 품목당 중국의 대세계 수입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들 중 2000~200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7.5% 이상인 품목
 - 한국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우위품목(C) : HS 10단위 기준 62개 품목 중 품목당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들 중 2000~200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50% 이상인 품목
 - 한국의 수출경쟁력 우위품목과 중국의 수입수요 우위품목, 한국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우위품목을 모두 고려할 경우, 엔진부품 등 13개 품목임.
 - 또한 기존 한국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우위품목을 제외하고 앞으로 대중국 수출확대가 가능한 품목으로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A+B) 또는 (A), (B) 그룹에 해당되는 총 24개 품목이 이에 해당됨.

전북의 대중국 기계·자동차 수출품목 선정

<표 3-11> 한국의 자동차부품 수출 유망 품목

한국의 대세계 수출경쟁력 우위(A)	중국의 수입수요 우위 (B)	한국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우위 (C)
	<p>(A+B+C) 엔진부품, 차량용 기계, 가스켓, 점화용 전기기기와 부품, 조명기기, 안전벨트, 차체부품, 변속기, 차축, 로드휠, 소음기, 운전박스(13개)</p>	
<p>(A+B) 점판스프링, 내연기관 펌프, 연료여과기, 작업트럭 부품, 시동전동기, 발전기, 와이퍼, 범퍼와 부품, 구동차축, 속업쇼바, 클러치와 부품, 시계(11개)</p>		<p>(C) 엔진부품(Diesel), 차량용의 기타 기계류, 카쿨러(Air Con), 점화용 전기기기, 점화용 전기기기의 부분품, 경음기, 조명용/신호용 기기 부분품, 엔진을 갖춘 샤시(10인 이상 승합차), 안전벨트, 기타 차체부품, 기타 브레이크부품, 변속기, 로드휠 및 부분품, 소음기와 배기관, 핸들 운전대와 운전박스,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16)</p>
<p>(A) 점화용 자석발전기, 에어백, 방열기, 시트(4)</p>	<p>(B+C) 오일셀, 배전기와 점화코일, 승용차 샤시(3)</p>	
<p>(A+C) 경음기, 브레이크부품, 기타부품(3)</p>	<p>(B) 코일스프링, 카쿨러, 점화플러그, 브레이크 라이닝, 전자제어식 제동장치, 트랙터 샤시, 승합차 샤시, 화물차 샤시, 특수자동차 샤시(9)</p>	<p>(A+C)</p>

3. 2 전북의 수출경쟁력 우위 품목

□ 2006년도 전북지역의 자동차부품 산업의 대세계 및 대중국 수출현황과 수입현황을 각각 <표 3-12>과 <표 3-13>에 나타내었음.

- 먼저 대세계 수출현황을 보면, 상용차 분야로 특화된 지역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송용 트랙터나 특장차용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이 76.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서스펜션 및 그 부분품(속업쇼바 포함)”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또한 전반적으로 전북 수출품목의 대세계 동향과 대중국 동향이 품목 측면에서 상호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즉, 이들 주요 대세계 수출품들은 대부분 대중국 수출품목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북의 자동차부품 산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전북의 대세계 및 대중국 수입현황을 보면,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과 “수송용 트랙터나 특장차용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액에 비하여 작은 규모임.

전북의 대중국 기계·자동차 수출품목 선정

<표 3-12> 전북지역의 2006년도 세부품목별 자동차부품 수출현황

(단위 : 천불, %)

품목명 (품목코드)	전북의 대세계 수출			전북의 대중국 수출		
	금액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금액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차량 엔진용 부분품과 부속품 (8409992000)	3,130	0.833	-13.2	0	0	0
차량용 유류 여과기 (8421231000)	34	0.009	-71.43	0	0	0
차량용 공기 여과기 (8421311000)	96	0.025	-50.26	0	0	0
기타 엔진점화/시동용 전기기기 (8511909000)	7	0.001	350	2	0.0009	0
엔진을 포함한 새시부품 (8706001090)	17	0.004	신규	0	0	0
버스용 엔진포함 새시부품 (8706002000)	1,917	0.510	47.01	1,917	0.910	47.01
승용/기타차량용 엔진포함 새시부품 (8706003000)	6	0.001	신규	0	0	0
특장차용 엔진포함 새시부품 (8706005000)	83	0.022	신규	0	0	0
버스용 차체(운전실 포함) (8707902000)	645	0.172	-27.28	645	0.306	-27.28
기어박스 및 부분품 (8708400000)	7,316	1.948	-59.34	5,077	2.411	-57.30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8700000)	51,133	13.615	31.15	8,214	3.901	-18.89
서스펜션 및 그 부분품(속업쇼바포함) (8708800000)	23,829	6.345	-9.71	8,926	4.239	-51.49
소음기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8708920000)	367	0.097	-18.26	0	0	0
클러치와 그 부분품 (8708930000)	64	0.017	신규	43	0.020	신규
운전대, 스티어링 칼럼 및 운전박스 그 부분품 (8708940000)	71	0.018	115.15	8	0.003	신규
수송트랙터용 기타새시 (8708991010)	43	0.011	신규	0	0	0
승용 및 기타 차량용 기타새시 (8708991030)	39	0.010	3900	0	0	0
수송용 트랙터나 특장차용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8708999000)	286,763	76.356	-36.76	185,734	88.207	-45.04
합 계	375,560	100	-	210,566	100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전북의 대중국 기계·자동차 수출품목 선정

<표 3-13> 전북지역의 2006년도 세부품목별 자동차부품 수입현황

(단위 : 천불, %)

품목명 (품목코드)	전북의 대세계 수입			전북의 대중국 수입		
	금액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금액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자동차용 판상스프링 (7320101000)	1	0.004	신규	1	0.014	신규
나선용 스프링 (7320201000)	65	0.276	-1.52	0	0	0
엔진용 부분품과 부속품 (8409992000)	164	0.697	-61.14	0	0	0
급유용 또는 냉각냉매용 펌프 (8413304000)	309	1.314	-67.02	8	0.111	신규
차량용 유류여과기 (8421231000)	11	0.047	-92.20	0	0	0
차량용 기타 부품 (8479899091)	857	3.644	-35.67	0	0	0
차량용 기타 부분품 (8479901030)	25	0.106	신규	5	0.069	신규
전동축(캠축/크랭크축 포함)과 크랭크 (8483109010)	326	1.386	831.4	0	0	0
가스켓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8484101000)	5	0.021	-16.67	0	0	0
시동전동기와 겸용의 시동발전기 (8511409000)	2	0.008	-97.94	0	0	0
기타 엔진점화/시동용 전기기기 부분품 (8511909000)	0	0	0	2	0.028	0
음향신호용 기기 (8512300000)	31	0.132	-87.75	6	0.083	-66.67
윈드스크린와이퍼, 제상기/제무기 (8512400000)	1	0.004	신규	0	0	0
엔진을 포함한 새시부품 (8706001090)	2	0.008	100	0	0	0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8700000)	6,373	27.101	79.88	4,170	57.764	107.88
서스펜션 및 그 부분품(속업쇼바포함) (8708800000)	102	0.434	-31.08	1	0.014	신규
소음기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 (8708920000)	53	0.225	3.92	0	0	0
클러치와 그 부분품 (8708930000)	421	1.790	432.9	320	4.433	370.6
운전대·스티어링 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8708940000)	158	0.672	신규	8	0.111	신규
소 계	8,906	37.869		4,521	62.627	

전북의 대중국 기계·자동차 수출품목 선정

<표 3-14> 전북지역의 2006년도 세부품목별 자동차부품 수입현황 계속

(단위 : 천불, %)

품목명 (품목코드)	전북의 대세계 수입			전북의 대중국 수입		
	금액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금액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수송트랙터용 기타새시 (8708991010)	9	0.038	신규	0	0	0
승용 및 기타 차량용 기타새시 (8708991030)	1	0.004	-85.71	0	0	0
화물차용 기타새시 (8708991040)	2	0.008	100	0	0	0
특장차용 기타새시 (8708991050)	28	0.119	180	0	0	0
수송용 트랙터나 특장차용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 (8708999000)	14,048	59.738	26.47	2,468	34.188	181.7
*단거리 화물운반용 차량부분품 (8709900000)	50	0.213	4900	0	0	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용 부분품 (8716909000)	4	0.017	신규	0	0	0
차량용 의자 (9401200000)	468	1.990	1237.1	230	3.186	557.1
소 계	14,610	62.127		2,698	37.374	
합 계	23,516	100		7,219	100	

* 조인트 : 금속외의 재료와 혼합한 금속판재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적층한 것에 한함.

* 단거리 화물운반용 차량부분품 : 공장, 창고, 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

*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 이상과 같이 <표 3-11>에서 제시된 한국의 자동차부품 수출유망품목과 <표3-12> 및 <표 3-13,14>에서 제시된 전북지역의 자동차부품 수출 및 수입 현황을 연계, 검토하여 다음 <표 3-15>와 같이 전북의 대중국 자동차부품 유망품목을 도출하였음.
- 기존 수출유망품목은 현재 전북 기계·자동차 산업의 집적도와 특화성을 고려하여 도출된 전북의 수출유망품목을 항목별로 나타낸 것임.
 - 미래수출유망품목은 중앙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과 전북지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계자동차 산업의 중장기 육성전략과 정책, 향후 전북으로의 기업 이전 가능성,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산업혁신 사업들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수출유망품목을 항목별로 나타낸 것임.
 - 여기서 “전북의 대세계 수출경쟁력 우위품목”은 HS 10단위 기준 62개 품목 중 품목당 한국의 대세계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을 의미
 - “중국의 수입수요 우위품목”은 HS 8단위 기준 53개 품목 중 품목당 중국의 대세계 수입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들 중 2000~200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7.5% 이상인 품목임.
 - “전북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우위품목”은 HS 10단위 기준 62개 품목 중 품목당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임.
- <표 3-15>의 전북의 대중국 자동차부품 기존수출유망품목을 보면 “수송용 트랙터나 특장차용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서스펜션 및 그 부분품(속업쇼바 포함)” 등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함.

- 현재 전북의 대세계 또는 대중국 수출경쟁력 우위품목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중국의 수입수요 우위품목으로 제시된 5개 품목들은 전북의 대중국 수출확대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품목으로 고려될 수 있음.

- 특히, WTO 가입 이후 중국정부는 2005년 4월부터 <완성차 특징을 구성하는 부품수입에 관한 관리규칙>을 시행하면서 2002년에 철폐된 자동차부품 현지조달의 무(국산화 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킴.
 - 이 규칙은 수입부품 조립세트(CKD)와 반조립세트(SKD)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현지 부품조달을 강화하여 중국 자동차부품 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8대 핵심부품은 차체(CAP 포함), 엔진, 변속기, 구동용 액슬, 비구동용 액슬, 새시, 조향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임.
 - 따라서 이 규칙의 적용으로 전북의 유망 자동차부품 수출품목인 차체나 새시 분야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임.
 - 또한 기존 상용 완성차 업체에서도 부품의 글로벌 소싱과 중국 현지조달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
 - 결국 Low-tech 위주의 전북 자동차부품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출혈적인 가격경쟁력 확보노력보다는 기술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특화시켜 중소 부품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 요인임.

전북의 대중국 기계·자동차 수출품목 선정

<표 3-15> 전북의 대중국 자동차부품 수출유망품목

항 목		수출 유망 품목
기존 수출 유망 품목	전북의 대세계 수출경쟁력 고려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용 트랙터나 특장차용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 ○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서스펜션 및 그 부분품(속업쇼바 포함) ○ 기어박스 및 부분품 ○ 차량엔진용 부분품과 부속품 ○ 버스용 엔진포함 새시부품
	중국의 수입수요 상위품목 고려 시(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랙터 새시 ○ 승합차 새시 ○ 화물차 새시 ○ 특수자동차 새시 ○ 버스용 엔진포함 새시부품
	전북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 우위품목 고려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용 트랙터나 특장차용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 ○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 서스펜션 및 그 부분품(속업쇼바 포함)
미래 수출 유망 품목	중국의 수입수요 상위 품목 고려 시(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기능 복합소재 적용 브레이크 시스템 ○ 능동형 새시시스템 및 관련 부품 ○ 경량화 새시 및 차체 부품
	미래형 자동차 Trend 고려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서기반 정보 인식/표시용 부품 ○ 전기구동 시스템 및 부품 ○ 연료전지 시스템 및 부품 ○ 바이오연료 시스템 및 부품 ○ 디젤엔진 부품 및 배기계 부품 ○ 차량용 조명장치 ○ 고안전 시트
	전북의 전략적 특화성 고려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공압 시스템 및 부품(펌프, 밸브, 압축기) ○ 차체 프레임, 크로스멤버, 적재함 ○ 모듈부품(새시코너, 서스펜션 등) ○ 상용차용 공기스프링 시스템 및 부품

* 자료 : 본 연구

□ 이 같은 환황해 경제권 하에서 <표 3-15>에 제시된 전북의 기존 수출유망품목 외에 중장기적인 미래유망품목을 1) 중국 수입수요 우위품목(Ⅱ), 2) 친환경, 고안전, 지능화의 미래자동차 Trend, 3) 전북지역 기계·자동차 산업의 전략적 특화성 측면에서 제시하여 보았음.

○ 중국의 수입수요 우위품목에 대한 분석은 전북의 기존 수출유망품목을 도출하는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향후 지역의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수출유망품목을 도출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음.

- 전북지역이 강점을 갖는 상용차 및 특장차용 새시 외에 현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 복합소재, 경량합금(알루미늄, 마그네슘)의 제조 및 공정기술의 개발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 고내마모의 브레이크 시스템과 경량화가 우수한 새시 및 차체부품

- 전북지역에 특화된 상용차 및 특장차용 새시 기술과, 각종 주행정보의 인식/표시를 위한 센싱기술과 IT기술이 융합되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능동적으로 확보해주는 새시 시스템

○ 친환경, 고안전, 지능화를 표방하는 차세대 미래형자동차의 발전 Trend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과 부품의 상용화 및 수출유망품목화가 가능

- 전기구동,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저공해 디젤 엔진 시스템 및 부품

- 고안전, 지능화 부품 실현의 핵심인 센서기반 정보 인식/표시용 부품

- LED를 활용한 차량용 각종 조명장치, 고안전 차량용 시트

○ 승용 및 상용차와 특장차, 농기계에 특화된 지역적 특성과 두산인프라코어의 전북이전계획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부품들이 유망수출품목으로 도출될 수 있음.

- 펌프, 밸브, 압축기 등 유공압 시스템 및 부품
- 초경량·고강도를 실현하는 차체용 프레임, 크로스멤버, 적재함 등
- 새시코너, 서스펜션 등의 모듈부품
- 상용차용 공기 스프링 시스템 및 부품

□ 현재 중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에서 경쟁력이 급속하게 향상되는 추세임(이경숙, 2005)

- 본 연구대상인 자동차산업의 경우, 중국정부는 중점발전항목으로 선정하여 적극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의 자동차 완제품 시장은 높은 보호장벽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한국의 자동차부품 수출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대중국 5대 수출품목의 하나인 “운송” 분야에서 승용/상용/특장차량과 이들 차종들의 차체들이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이들 품목들은 대부분 전북의 수출유망품목들임.

- 그러나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수출경쟁력(가격, 품질, 기술)의 확보가 당면숙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완성차 또는 KD 형태의 부품수출보다는 핵심 부품·소재로 점진적 전환을 꾀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세계 어느 지역과 비교하여도 최대장점인 물류 측면의 이점을 살려 전북에서 생산한 고부가 부품·소재를 중국의 연해 경제권의 High tech(高新) 제조 산업과 연계시켜 전후방 연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규모의 경제화 실현이 미흡하고 기술력과 부품의 적기조달체제가 취약한 전북의 자동차산업에게 부품의 글로벌 소싱 추세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것임.
- 따라서 전북의 자동차산업은 지속적인 기업유치 전략과 함께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확보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임

참고문헌

1. 전라북도 자동차 부품산업의 중국시장 진출전략, 제2회 전라북도 중국시장 개척 전략포럼, 산업연구원, 이문형, 2007
2. 전북지역 수출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2006
3. 중국 산업발전에 따른 위협확대에 대비해야, 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 2005
4. 첨단 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전라북도, 전북전략산업기획단, 2006
5. 전북 지역산업발전로드맵(RIRM) 수립, 전북전략산업기획단, 2007

주제 4

전북자동차 부품산업의 중국시장 진출전략 : 부품산업의 교역전망

• 발표자 : 이 헌 재 교수 (청주대학교)

1. 교역전망의 전제조건과 추정방법
2. 한국의 제조업, 기계공업 및 자동차 산업 전망
3. 전북의 제조업과 자동차 산업 전망
4. 중국의 자동차산업 전망
5. 전북자동차부품산업의 교역전망

전북자동차부품산업의 중국시장 진출전략 :

부품산업의 교역전망

1. 교역전망의 전제조건과 추정방법

1. 1 전제조건

- 자동차는 신생기, 성숙기 및 표준화기 등의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명확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산업간(inter-industry) 또는 산업내(intra-industry)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품임.
- 즉, 자동차생산의 초기단계에서는 자동차 생산을 처음으로 시작한 미국이 기술갭(technology gap)의 우위를 확보하면서 생산을 독점하였지만, 표준화기에 이른 오늘날 날에 있어서는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및 중국 등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생산 규모를 늘려서 세계자동차시장에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음
- 자동차산업은 일종의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의 진입초기에는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필요하여 신흥 자동차생산국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 단계를 벗어나면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 창출과 전후방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급성장이 가능한 산업임
- 일반적으로 일인당국민소득이 5,000달러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음.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서 발간하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HDR)에 의하면 2003년 중국의 일인당 경상국민소득은 1,208.99달러지만, 화폐의 실질가치로 표시되는 구매력평가에 의한 중국의 일인당국민소득은 5,003달러로 나타나 향후 중국의 자동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0년대 이후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자동차생산에 큰 성과를 거두면서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또는 자동차부품생산에 있어서 이 국가들과 극심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 더구나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3위의 자동차생산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요도 급증하여 2006년 현재 자동차 내수규모가 세계 2위의 722만대로써 자동차산업이 중국제조업의 기간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즉, 자체브랜드 없이 다국적기업의 OEM방식에 의한 하청형태의 생산 활동을 해오던 중국의 자동차산업이 다국적기업과의 제휴나 독자적 기술개발을 강화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음
- 최근 한미 FTA협상의 타결로 향후 한·중 FTA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새롭게 조성될 무역환경도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전북지역도 그 동안 축적해 온 기존의 우위적 산업구조를 활용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생산을 지속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리적 위치로 인한 해상물류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임. 결과적으로 향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이 전북지역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

1. 2 전망을 위한 추정방법

- 본 연구에서 향후의 전망을 위해 추정하려는 변수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의한 추정이라기보다는 단일시계열변수(univariate time series)의 추정임. 단일시계열변수의 추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량경제기법으로는 Box-Jenkins가 제시한 자기회귀이동평균법(auto regressive moving average, ARMA)이 있음
- 자기회귀이동평균법은 해당 시계열자료의 과거추세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자기회귀(AR) 요소와 이동평균(MA) 요소로 구분하여 시계열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추이를 추정하는 계량경제기법임

2. 한국의 제조업, 기계공업 및 자동차산업 전망

2. 1 한국의 제조업, 기계공업 및 자동차산업 추이

- < 표 4-1 >은 한국의 제조업 전체, 기계공업 및 자동차산업의 업체수, 종업원 수, 생산액, 부가가치 및 수출의 추이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표1 >에서 기계공업은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 자동차 및 정밀기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 표 4-1 >에 의하면 업체수의 경우 제조업 전체와 자동차산업은 증가세가 둔화되지만 기계공업은 일정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종업원 수의 경우는 제조업 전체와 기계공업은 감소세로 나타났지만 자동차산업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경우 제조업 전체는 변동 폭이 심하지만 기계공업과 자동차산업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수출의 경우 제조업 전체와 자동차산업은 변동 폭이 심하지만, 기계공업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추이를 종합해 보면 한국의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기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계공업과 자동차산업은 경제적 가치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표 4-1> 한국의 제조업, 기계공업 및 자동차산업 추이

(단위 : %)

항목	산업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업체수 (개)	제조업	68,872 (4.85)	96,202 (5.29)	98,110 (7.63)	115,067 (1.55)	123,587 (1.29)	130,554 (0.99)
	기계공업	19,074 (-13.72)	32,572 (9.16)	34,863 (9.25)	44,790 (3.02)	51,105 (2.47)	57,018 (2.06)
	자동차산업	2,138 (16.51)	3,070 (9.06)	3,200 (6.29)	3,697 (1.60)	3,988 (1.34)	4,217 (0.99)
종업원수 (명)	제조업	3,019,816 (-2.38)	2,951,885 (0.75)	2,652,590 (5.78)	2,823,711 (0.91)	2,811,762 (-0.04)	2,809,290 (-0.01)
	기계공업	793,049 (-30.08)	992,468 (4.70)	947,615 (6.46)	1,067,600 (-2.29)	978,479 (-0.78)	963,676 (-0.13)
	자동차산업	186,288 (17.80)	220,601 (5.22)	203,952 (4.34)	257,438 (4.25)	267,225 (0.64)	274,268 (0.45)
생산액 (억원)	제조업	1,773,187 (19.42)	3,648,213 (21.91)	5,648,341 (17.74)	7,311,721 (-8.01)	9,313,025 (10.33)	10,092,841 (-2.62)
	기계공업	474,857 (-11.27)	1,103,665 (22.11)	1,620,534 (17.28)	2,195,231 (-13.41)	2,956,383 (12.04)	3,167,187 (5.53)
	자동차산업	162,393 (50.83)	350,895 (21.89)	538,889 (17.74)	808,451 (-9.20)	1,080,554 (13.58)	1,146,300 (3.79)
부가가치 (억원)	제조업	709,245 (29.05)	1,594,483 (23.02)	2,194,246 (9.21)	3,042,198 (0.78)	3,390,646 (13.08)	3,373,410 (-5.61)
	기계공업	188,877 (-6.59)	451,971 (21.24)	657,158 (14.36)	927,065 (-1.46)	1,168,097 (11.29)	1,276,167 (0.68)
	자동차산업	58,393 (62.92)	130,814 (30.10)	205,750 (17.62)	305,888 (1.58)	373,185 (5.17)	427,144 (1.39)
수출 (백만달러)	제조업	65,016 (4.23)	125,058 (30.25)	172,268 (19.89)	284,419 (12.04)	317,100 (15.76)	337,055 (-11.03)
	기계공업	16,400 (6.99)	37,048 (39.09)	44,680 (16.25)	99,932 (19.55)	116,179 (15.84)	131,972 (13.25)
	자동차산업	1,911 (-9.17)	8,293 (59.21)	13,101 (18.67)	29,303 (10.96)	37,485 (24.46)	36,102 (-5.55)

주 : ()내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자료에 의거 추계

2. 2 한국의 제조업 및 기계공업 대비 자동차산업의 비중 추이

- 한국의 제조업 전체 및 기계공업 대비 자동차산업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 표 4-2 >와 같음
- < 표 4-2 >에 의하면 업체수의 경우 제조업 전체 대비 자동차산업 비중은 3% 수준을, 기계공업 대비는 7%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종업원 수의 경우에는 제조업 전체 및 기계공업 대비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기계공업 대비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생산액의 경우에도 제조업 전체 대비 및 기계공업 대비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 경우에도 기계공업 대비는 35%대에서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부가가치와 수출의 경우에도 제조업 전체 및 기계공업 대비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추이를 종합해 보면 한국의 제조업 전체 중에서 기계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계공업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표 4-2> 한국의 제조업 및 기계공업 대비 자동차산업의 비중 추이

(단위 : %)

항목	산업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업체수	제조업	3.10	3.19	3.26	3.21	3.23	3.23
	기계공업	11.21	9.43	9.18	8.25	7.80	7.40
종업원수	제조업	6.17	7.47	7.69	9.12	9.50	9.76
	기계공업	23.49	22.23	21.52	24.11	27.31	28.46
생산액	제조업	9.16	9.62	9.54	11.06	11.60	11.36
	기계공업	34.20	31.79	33.25	36.83	36.55	36.19
부가가치	제조업	8.23	8.20	9.38	10.05	11.01	12.66
	기계공업	30.92	28.94	31.31	33.00	31.95	33.47
수출	제조업	2.94	6.63	7.61	10.30	11.82	10.71
	기계공업	11.65	22.38	29.32	29.32	32.26	27.36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자료에 의거 추계

2. 3 한국의 자동차산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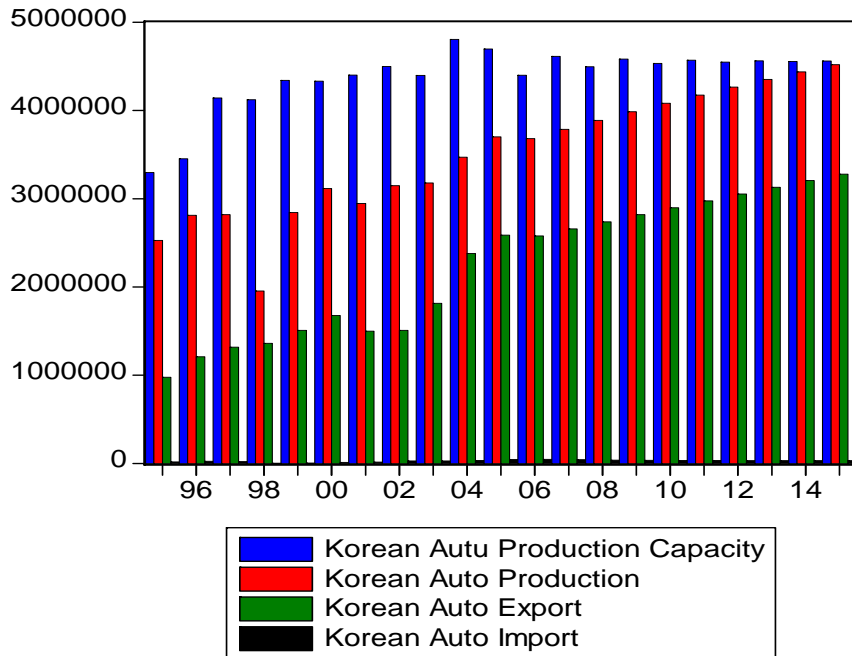
- 한국의 자동차생산능력, 자동차생산, 자동차수출, KD수출, 자동차수입 및 자동차 부품생산업체수 추이를 살펴보면 < 표 4-3 >과 같음
- < 표 4-3 >에 의하면 자동차생산능력, 자동차생산, 자동차수출, KD수출, 자동차수입 및 자동차부품생산업체수 모두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에서 자동차생산과 자동차수출의 감소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수입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1997년 외환위기시 자동차수입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향후 각 국가와의 FTA체결이 예상되어 자동차수입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같은 추이를 종합해 보면 한국의 자동차생산과 자동차수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지만 자동차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그림 4-1]은 한국의 자동차산업 생산능력, 생산량 및 수출입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표 4-3> 한국의 자동차산업 추이

(단위 : %)

항목	1995	2000	2005	2010	2015
자동차생산능력 (천대)	3,297 (12.00)	4,332 (-0.18)	4,695 (-2.29)	4316 (-1.05)	4,315 (0.12)
자동차생산 (대)	2,526,400 (9.29)	3,114,998 (9.56)	3,699,350 (6.63)	4,081,437 (2.40)	4,518,661 (1.85)
자동차수출 (대)	978,688 (32.62)	1,676,442 (11.05)	2,586,088 (8.68)	2,898,093 (2.79)	3,278,373 (2.32)
KD수출 (대)	-	245,249 (-11.70)	796,906 (30.60)	950,894 (1.67)	1,002,462 (0.76)
자동차수입 (대)	18,584 (33.80)	11,168 (96.80)	46,221 (33.16)	35,331 (-4.77)	31,336 (-1.29)
자동차부품생산업체수 (개)	-	-	922 (0.99)	903 (-0.01)	903 (-0.01)

주 : ()내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자료에 의거 추계



[그림 4-1] 한국의 자동차산업 생산능력, 생산량 및 수출입 추이

2. 4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 수출입 추이

- 한국의 대중국수출과 수입, 대중국자동차수출, 자동차부품의 대중국수출입 및 자동차산업투자의 추이와 증가율을 살펴보면 < 표 44 >와 같음
- < 표 44 >에 의하면 한국의 대중국수출과 수입은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대중국자동차수출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한국의 대중국자동차부품수출 및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 세계 및 대중국 자동차산업투자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정수준의 추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추이를 종합해 보면 향후 대중국수출입, 대중국자동차수출 및 대 세계 및 대중국 자동차산업투자는 일정수준을 유지할 것이지만, 대중국자동차부품 수출입은 모두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그림 42]는 한국의 대중국수출 및 대중국자동차부품수출 추이이며, [그림 43]은 한국의 대중국수입 및 대중국자동차부품수입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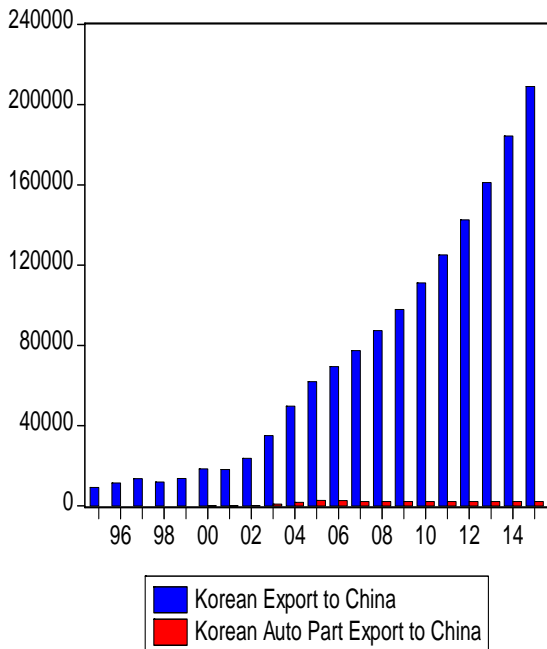
<표 4-4>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 수출입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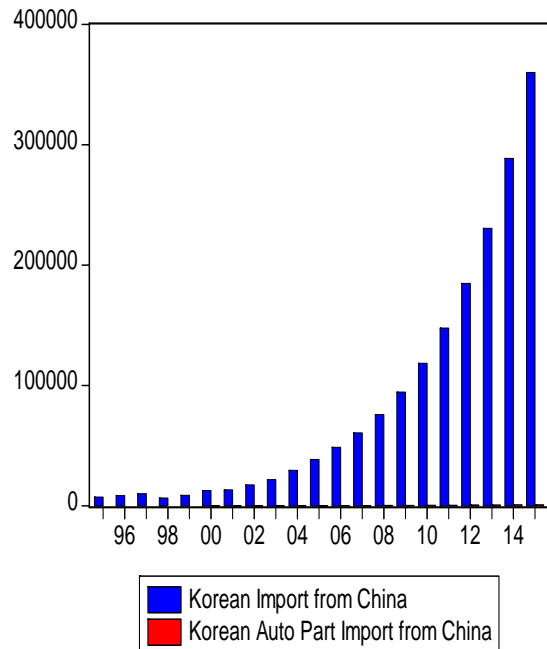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대중국수출 (백만달러)		585 (33.73)	9,144 (47.41)	18,455 (34.86)	61,915 (24.42)	111,104 (13.48)	209,032 (13.36)
대중국수입 (백만달러)		2,268 (33.06)	7,401 (35.48)	12,799 (44.35)	38,648 (30.64)	118,371 (25.18)	360,025 (24.74)
대중국자동차수출 (대)		-	-	-	32,947 (124.34)	79,665 (12.23)	118,651 (6.50)
자동차부품 (백만달러)	대중국수출	-	-	77 (-)	2,689 (55.43)	2,180 (0.15)	2,187 (0.03)
	대중국수입	-	-	26 (-)	165 (135.71)	658 (31.26)	938 (-1.04)
자동차산업투자 (백만달러)	대세계투자	-	-	13 (-)	718 (86.80)	1,372 (12.23)	1,866 (3.88)
	대중국투자	-	-	4.2 (-)	358 (61.64)	431 (4.71)	491 (1.73)

주 : ()내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제2회 전라북도 중국시장개척 전략포럼』, 2007. 4에 의거 추계



[그림 4-2] 한국의 대중국수출 및 대중국자동차부품수출 추이



[그림 4-3] 한국의 대중국수입 및 대중국자동차부품수입 추이

3. 전북의 제조업과 자동차산업 전망

3. 1 전북의 제조업과 자동차산업 추이

- 전북제조업 전체 및 전북자동차산업의 생산지수, 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 및 수출입의 추이와 증가율을 살펴보면 < 표 45 >와 같음
- < 표 45 >에 의하면 전북제조업 전체와 전북자동차산업의 생산지수, 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및 부가가치 모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음
- 전북제조업 전체와 전북자동차산업의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정수준은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전북수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추이를 종합해 보면 전북수출을 제외한 전북제조업 전체와 전북자동차산업은 규모면에서나 경제적 가치창출에 있어서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향후 전북지역의 제조업 및 자동차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산업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5> 전북의 제조업과 자동차산업 추이

(단위 : %)

항목	산업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생산지수 (2000=100)	제조업	-	-	100 (4.82)	130 (5.27)	128 (-0.19)	127 (-0.05)
	자동차산업	-	-	100 (-1.38)	180 (13.22)	172 (-0.57)	169 (-0.19)
사업체수 (개)	제조업	-	2294 (-)	2071 (0.39)	2248 (-5.06)	2208 (-0.01)	2207 (0.01)
	자동차산업	-	66 (-)	104 (13.04)	141 (-3.85)	125 (-0.46)	124 (-0.02)
종업원수 (명)	제조업	-	81267 (-)	73018 (12.56)	73325 (-26.13)	73275 (0.20)	73275 (0.01)
	자동차산업	-	5512 (-)	11053 (13.04)	10797 (-3.85)	11219 (-0.46)	11249 (-0.02)
생산액 (10억원)	제조업	-	8983 (-)	15816 (8.02)	20431 (-3.85)	17666 (-0.69)	17522 (-0.04)
	자동차산업	-	531 (-)	3584 (7.32)	5520 (-3.22)	5136 (-0.64)	5070 (-0.12)
부가가치 (10억원)	제조업	-	4109 (-)	5781 (-6.38)	6701 (-7.68)	6179 (-0.09)	6176 (-0.01)
	자동차산업	-	278 (-)	954 (-29.57)	1235 (-15.70)	1243 (-0.21)	1240 (-0.01)
수출입 (백만달러)	수출	458 (4.33)	1353 (45.33)	2881 (8.27)	4851 (14.82)	6947 (3.97)	8252 (3.23)
	수입	799 (7.54)	1631 (28.02)	1501 (23.04)	2456 (-2.62)	2516 (-0.80)	2446 (-0.43)

주 : ()내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지역경제연보』, 2005 및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 『전북수출입동향』, 2007에 의거 추계

- 전북의 제조업 전체 대비 자동차산업의 비중 추이는 < 표 4-6 >과 같음. < 표 4-6 >에 의하면 전북자동차산업은 전북제조업 전체에 비해 생산 활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사업 체수나 종업원수의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생산액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전북수출 대비 전북수입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추이를 종합해 보면 전북지역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산업이 성장 동력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6> 전북의 제조업 대비 자동차산업 비중 추이

(단위 : %)

항목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생산지수	-	-	100.00	138.52	134.53	133.06
사업체수	-	2.88	5.02	6.29	5.64	5.62
종업원수	-	6.78	15.14	14.72	15.31	15.35
생산액	-	5.91	22.66	27.02	29.07	28.94
부가가치	-	6.77	16.50	18.43	20.11	20.08
수출입	174.45	120.55	52.10	50.63	36.21	29.64

주 : 수출입은 (수입 / 수출)의 비율임

자료 :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지역경제연보』, 2005 및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 『전북수출입동향』, 2007에 의거 추계

3. 2 전북의 자동차산업 추이

- 전북자동차수출, 전북자동차부품수출, 전북대중국수출, 전북대중국수입, 전북대중국자동차수출, 전북대중국자동차수입, 전북대세계투자 및 전북대중국투자의 추이와 증가율은 < 표 4-7 >과 같음
- < 표 4-7 >에 의하면 전북자동차수출과 전북자동차부품수출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전북대중국수출과 전북대중국수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정수준은 유지하고 있음. 그리고 전북대중국자동차수출, 전북대중국자동차수입, 전북대세계투자 및 전북대중국투자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같은 추이를 종합해 보면 전북대중국수출과 전북대중국수입을 제외한 대중국자동차 교역은 감소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그림 4-4]는 전북의 자동차수출 추이이며, [그림 4-5]는 전북의 대중국 자동차수입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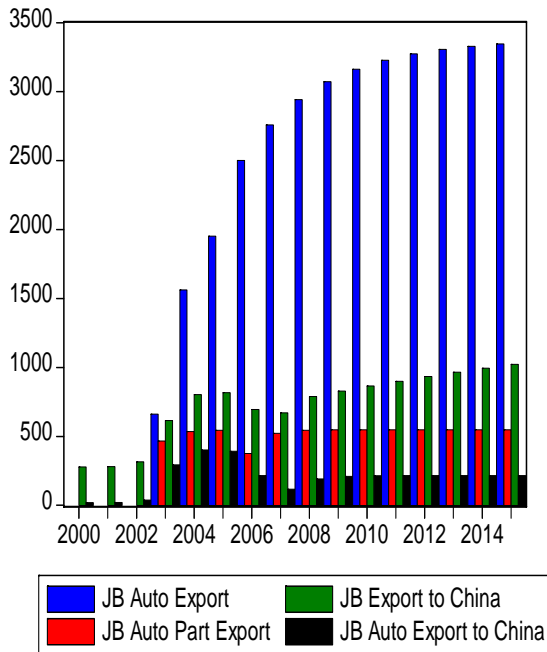
<표 4-7> 전북의 자동차산업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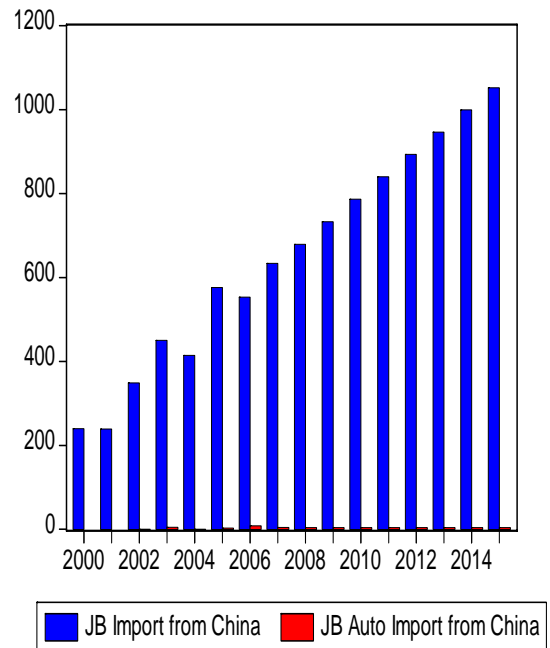
항목	2000	2005	2010	2015
전북자동차수출 (백만달러)	-	1,952 (24.97)	3,163 (2.98)	3,346 (0.49)
전북자동차부품수출 (백만달러)	-	544 (1.49)	548 (0.08)	548 (0.01)
전북대중국수출 (백만달러)	278 (8.17)	818 (1.87)	865 (4.49)	1,023 (2.82)
전북대중국수입 (백만달러)	240 (48.15)	576 (39.13)	787 (7.32)	1,052 (5.26)
전북대중국자동차수출 (천달러)	19,713 (-)	391,688 (-2.20)	214,352 (2.23)	215,929 (0.01)
전북대중국자동차수입 (천달러)	-	3,195 (669.88)	4,231 (-0.16)	4,230 (-0.01)
전북대세계투자 (천달러)	-	37,154 (10.03)	50,241 (-12.13)	35,930 (-3.56)
전북대중국투자 (천달러)	-	29,417 (14.90)	23,871 (-0.06)	23,868 (-0.01)

주 : ()내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제2회 전라북도 중국시장개척 전략포럼』, 2007. 4에 의거 추계



[그림 4-4] 전북의 자동차수출 추이



[그림 4-5] 전북의 대중국자동차수입 추이

3. 3 전북의 자동차산업 비중 추이

- 전북자동차수출 대비 전북자동차부품수출, 전북자동차수출 대비 전북대중국자동차수출, 전북대중국수출 대비 전북대중국자동차수출, 전북대중국수입 대비 전북대중국자동차수입 및 전북대세계투자 대비 전북대중국투자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 표 4-8 >과 같음
- < 표 4-8 >에 의하면 전북자동차수출 대비 전북자동차부품 및 전북대중국자동차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전북대중국수출 대비 전북대중국자동차수출 비중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전북대중국수입 대비 전북대중국자동차수입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전북대세계투자 대비 전북대중국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추이를 종합해 보면 전북지역과 중국의 자동차 교역규모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수준은 유자할 것으로 예상됨

<표 4-8> 전북자동차산업의 비중 추이

(단위 : %)

항목	2000	2005	2010	2015
전북자동차부품수출 / 전북자동차수출	-	27.87	17.32	16.37
전북대중국자동차수출 / 전북자동차수출	-	20.07	6.78	6.45
전북대중국자동차수출 / 전북대중국수출	7.09	47.88	24.78	21.12
전북대중국자동차수입 / 전북대중국수입	-	0.55	0.54	0.40
전북대중국투자 / 전북대세계투자	-	79.18	47.51	66.43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제2회 전라북도 중국시장개척 전략포럼』, 2007. 4에 의거 추계

- 한편, 2004년 및 2005년 OEM 매출액을 기준한 각국의 100대 자동차부품생산업체 수는 <표 4-9>와 같음
- <표 4-9>에 의하면 주요 자동차생산국인 일본(2006년 기준으로 세계생산의 16.5%), 미국(16.2%), 중국(10.5%), 독일(8.4%) 및 한국(5.5%)인데, 이 중에서 자동차부품생산은 미국, 일본 및 독일은 상위권인데 비해 한국은 2개사 뿐이고 중국은 단 한 개사도 없음
- 자동차산업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달성되었지만 한국이나 신흥자동차생산국인 중국의 경우는 자동차산업의 집약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표 4-9> 주요국의 자동차부품업체수 (2005년 기준)

국가명	업체수
미국	32
일본	28
독일	18
프랑스	6
영국	4
스웨덴	3
한국	2
캐나다	2
이탈리아	2
네덜란드	1
스위스	1
스페인	1

주 : 2004년 및 2005년 OEM 매출액을 기준한 각국의 100대 자동차부품업체수임
 자료 : Automotive News, June 26, 2006

4. 중국의 자동차산업 전망

□ 중국의 자동차생산 및 수출입 추이

- 중국자동차생산, 중국자동차수출, 중국완성차수출, 중국자동차부품수출, 중국자동차수입, 중국완성차수입 및 중국자동차부품수입의 추이와 증가율은 < 표 4-10 > 과 같음
- <표 4-10>에 의하면 중국자동차생산, 중국자동차수출 및 중국완성차수출은 일정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자동차부품수출, 중국자동차수입, 중국완성차수입 및 중국자동차부품수입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같은 추세를 종합해 보면 향후 중국의 자동차생산과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자동차수입이나 자동차부품수출입 모두 수입대체를 통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산업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그림 4-6]은 중국의 자동차생산 및 수출입 추이이고, [그림 4-7]은 중국의 자동차수출 추이이며, [그림 4-8]은 중국의 자동차수입 추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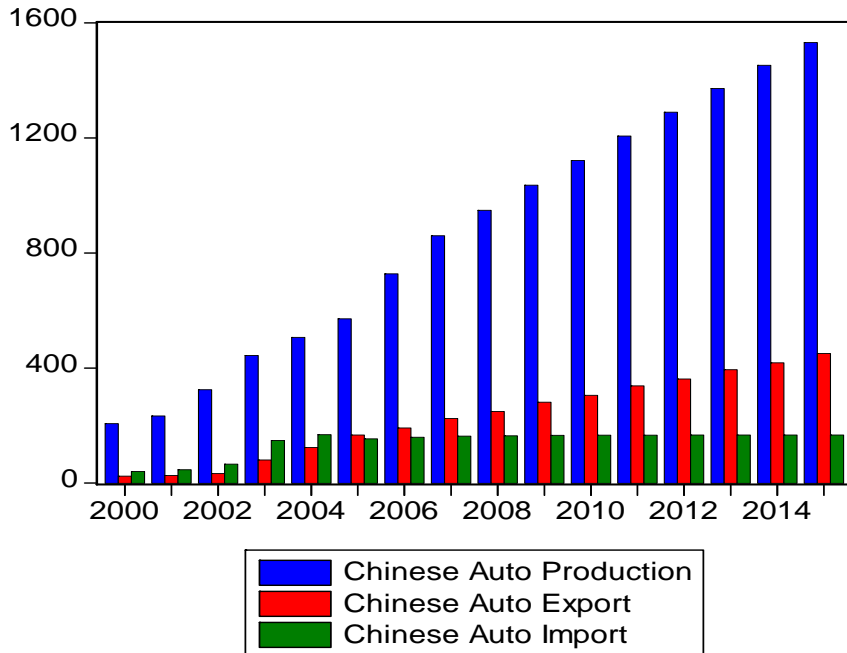
<표 4-10> 중국의 자동차생산 및 수출입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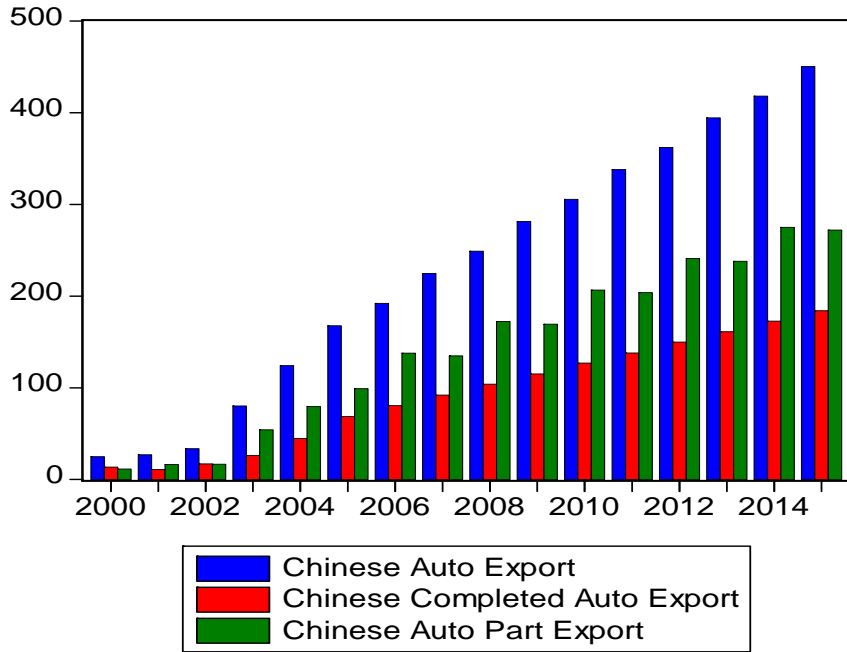
항목	2000	2005	2010	2015
중국자동차생산 (만대)	207 (13.11)	571 (12.62)	1122 (8.30)	1532 (5.48)
중국자동차수출 (억달러)	24.79 (-)	167.70 (35.04)	305.56 (8.55)	450.27 (7.69)
중국완성차수출 (억달러)	13.53 (-)	68.81 (53.83)	126.91 (10.28)	183.96 (6.44)
중국자동차부품수출 (억달러)	11.25 (-)	98.89 (24.45)	206.60 (22.00)	272.18 (-1.03)
중국자동차수입 (억달러)	40.48 (-)	154.34 (-8.46)	166.81 (0.40)	167.73 (0.03)
중국완성차수입 (억달러)	19.35 (-)	77.49 (-5.27)	79.48 (0.23)	79.84 (0.04)
중국자동차부품수입 (억달러)	21.13 (-)	76.85 (-11.46)	107.16 (4.08)	120.24 (1.54)

주 : ()내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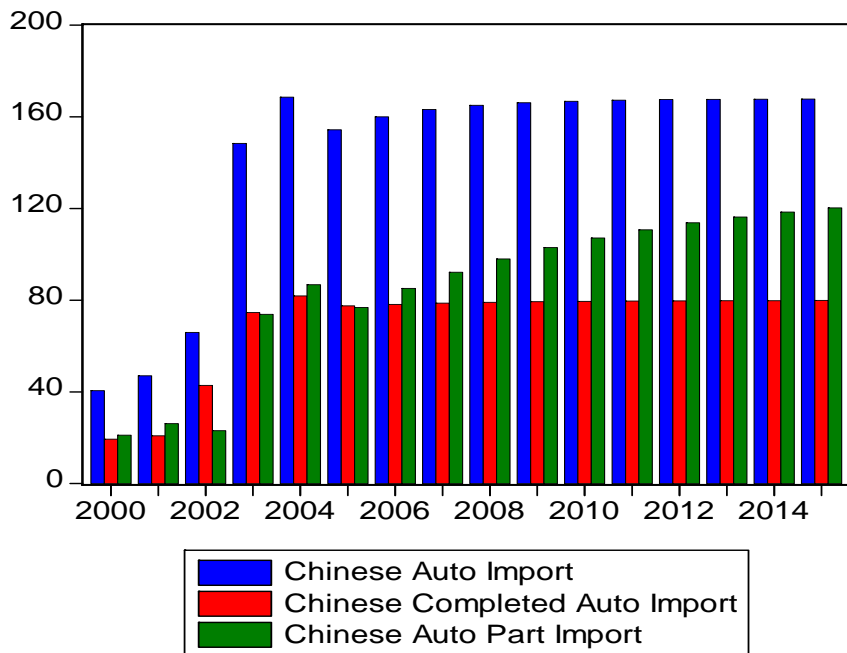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 『제2회 전라북도 중국시장개척 전략포럼』, 2007. 4에 의거 추계



[그림 4-6] 중국의 자동차생산 및 수출입 추이



[그림 4-7] 중국의 자동차수출 추이



[그림 4-8] 중국의 자동차수입 추이

5. 전북 자동차부품산업의 교역전망

5. 1 요약 : 한국, 전북 및 중국의 자동차산업 전망

- 한국의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기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계공업과 자동차산업은 경제적 가치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제조업 전체 중에서 기계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계공업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자동차생산과 자동차수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지만 자동차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수출입, 대중국자동차수출 및 대세계 및 대중국 자동차산업투자는 일정수준을 유지할 것이지만, 대중국자동차부품 수출입은 모두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북수출을 제외한 전북제조업 전체와 전북자동차산업은 규모면에서나 경제적 가치창출에 있어서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향후 전북지역의 제조업 및 자동차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산업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전북지역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산업이 성장 동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북대중국수출과 전북대중국수입을 제외한 대중국자동차 교역은 감소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됨
- 전북지역과 중국의 자동차 교역규모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산업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달성되었지만 한국이나 신흥자동차생산국인 중국의 경우는 자동차산업의 집약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중국의 자동차생산과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자동차수입이나 자동차부품수출입 모두 수입대체를 통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산업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보임

5. 2 향후 대중국 자동차 교역전망

- 중국자동차부품생산 수준이 선진국과의 평균격차가 5-10년 정도지만, 중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이후의 경제적 급성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자본집약화에 성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량생산체제로 전환하였음
-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2006년 기준으로 117개의 업체가 난립하여 아직까지도 다품종소량생산의 비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R & D)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서 급속하게 기술력이 신장되고 있음. 따라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에 있어서 한·중간 기술 갭이 점차 사라지고, 주요 자동차부품의 표준화(standardization)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완성차의 국산화를 위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이와 같은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
- 중국의 자동차산업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하게 되면 생산규모를 기준하여 중하위권에 속해 있는 자동차생산업체는 부품생산으로 업종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중하위권 자동차생산업체는 잠재적인 부품생산업체임. 이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도 중국에서 부품산업기지화를 가속화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추세는 중국에서 자동차부품의 수입대체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범용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현지조달체계가 확립될 것임

- 중국의 경우 자동차부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후 시장이나 보험 및 할부 등을 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매망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음
- 또한, 최근 글로벌 자동차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는 인도로 낮은 수준의 기술력만 있어도 생산이 가능한 범용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입선을 전환하여 우회조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5. 3 전북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이 전북지역경제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이와 같은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 산업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전북지역이 대중국교역에서 해상물류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중간의 교역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임. 오히려 산업뿐만 아니라 통상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
- 전북의 대중국 완성차 수출 환경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CKD방식에 의한 수출규모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전북지역이 자동차부품 공급 기지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의 확대를 통해 가격 및 기술경쟁력이 있는 핵심 자동차부품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특화를 해야 할 것임. 철강, 석유화학의 소재 산업, 전자 및 기계 산업 등의 전방산업과 운수, 물류 및 금융 산업 등의 후방산업을 고려한 전후방과급효과와 연계하여 이 효과가 큰 산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임. 자동차부품의 특화시 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적이고 안전성이 강화된 부품 생산에 특화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제2회 전라북도 중국시장개척 전략 포럼』에 의하면 24개 품목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국제화 및 세계화로 인해 저렴한 생산요소를 해외에서 구입하려는 Global Outsourcing의 추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대중국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중국 현지에 자동차부품 생산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정책적 대안이 될 것임. 즉, 전북지역과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2005년 기준 자동차산업의 비중이 13.8%인 중국의 강소성을 비롯한 타 지역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여 합자기업을 통해 협력과 분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고도의 기술집약적 생산이 요구되는 자동차부품산업에 특화하고 이 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자동차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전북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업정책만이 그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연보 : 개혁, 개방의 현단계』, 2003
2. 전북발전연구원, 『제2회 전라북도 중국시장개척 전략포럼』, 2007. 4
3. 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 『전북수출입동향』, 2007
4.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지역경제연보』, 2005
5. 포스코경영연구소, 『글로벌 자동차 생산기지로 주목 받는 인도』, 2007. 5
6. Automotive News, June 26, 2006
7.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전북의 대 중국 기계·자동차 부품 수출확대 방안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